은혜로운 품속에서

4

문예출판사
1980

은혜로운품속에서

4

문예출판사
1980



천리마동상 초안을 지도하시는 어버이수령님

차 례

어버이사랑속에 태여난 음악무용서사시극

리 인 걸

새롭고 독창적인 무대예술형식인 음악무용서사시극이 이 세상에 나온지는 얼마 되지 않는다. 그러나 음악무용서사시극은 이 세상에 나오자마자 우리 인민들속에 커다란 반향을 불러일으키고있으며 세계혁명적인민들이 그처럼 높이 칭송하여 마지않는 주체예술의 대화원을 빛나게 장식하고있다.

한때 무대예술은 영화와는 달리 시공간적 제한성으로 하여 다양한 생활과 력사적인 사변들을 폭넓게 그릴수 없다는 기성관념으로 하여 많은 제약을 받고있었다. 특히 주인공들의 활동무대가 극히 제한된것으로 하여 생활과 인간들의 형상범위가 좁고 단조로왔으며 이것이 바로 무대예술의 특성이라고까지 생각하였다.

형식에서 완전히 독창적인 음악무용서사시극은 이와 같은 기성관념을 깨뜨리고 거대한 력사적화폭을 제한된 무대에서 자연스럽게 형상하여 관중들을 경탄케하고있다. 그러나 사람들은 황홀한 무대미술과 우아하

고 섬세한 무용수들의 률동, 정서와 기백이 넘치는 노래에 깊은 감동을 받기는 하지만 음악무용서사시극이 이 세상에 나오게 된 사랑의 력사를 다는 알지 못할것이다.

이 세상에 태여난지 불과 몇해밖에 안되는 음악무용서사시극이 주체예술의 대화원을 아름답게 장식하고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에 크게 기여할수 있게 되기까지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크나큰 사랑과 로고가 헤아릴수 없이 깃들어있다.

첫 음악무용서사시극작품인 인민상계관작품 혁명적음악무용서사시극 《고난의 행군》을 창조할 때부터 어버이수령님을 몸가까이 모시고 그이의 현명하신 가르치심을 받아온 나는 하많은 사랑의 이야기중에서 몇가지만을 추려 아래에 소개하려고 한다.

지금으로부터 8년전 일이다.

내가 사업하고있는 협주단에서는 민족최대의 경사의 날인 어버이수령님의 탄생 60돐을 기념하여 음악무용소품을 준비해가지고 관하 군인들앞에서 공연을 하였다. 물론 우리가 준비한 음악무용소품들의 예술적형상수준은 오랜 경험과 력사를 가지고있는 예술단체에 대비할바가 되지 못하였다.

조직된지 몇해 안되는 우리 협주단 창작가들의 창작기량은 그리 높지 못했고 또 배우들속에는 예술활동을 해본 경험있는 배우도 적었다. 협주단을 책임진 나

자신이 얼마전까지만 해도 총을 잡고 전초선에서 싸우던 부대의 지휘관이였다. 그러다보니 작품들의 예술적 형상수준은 응당한 높이에 이르지 못하였다. 노래와 기악, 무용 등 모두가 창작의도가 앙상하게 로출되여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따분하고 어색한감을 주었다. 우리들은 여러번 작품을 뜯어고치였으나 형상수준은 별반 높아지지 못하였다.

나는 점차 실망하지 않을수 없었다. 솔직히 말해서 공연을 준비할 초기에는 우리도 어버이수령님을 한자리에 모셨으면 하는 은근한 생각도 없지 않았다. 이것은 나혼자의 생각이 아니라 우리 협주단 전체 예술인들의 한결같은 심정이였다. 그러나 작품의 전반수준이 어버이수령님을 모시기에는 너무나 어리기때문에 감히 그런 청을 드릴수 없었다. 안타까운 가운데 어느덧 민족최대의 경사의 날인 위대한 수령님의 탄생 60돐기념일이 지나갔다.

나는 어버이수령님께서 새로 나온 예술영화를 보시고 매우 만족해하셨다든가 또는 어느 극장을 찾으시여 예술공연을 보아주시였다는 소식을 들을 때마다 우리는 언제가면 어버이수령님을 모시고 공연을 하여 그이께 기쁨을 드리겠는가 하는 생각을 하였다. 그때마다 나는 다음번에는 공연준비를 잘했다가 꼭 어버이수령님을 모시자고 동무들을 고무하기도 하였다.

그러던 어느날이였다. 나는 부대의 한 책임일군으로부터 어버이수령님께서 우리 협주단이 준비한 예술

공연을 보아주시겠다고 말씀하시였다는것을 전달받게 되였다.

《어버이수령님께서요?!…》

나는 이렇게 말하고 다음말을 잇지 못하였다.

《뭘 그렇게 서있는거요? 빨리 준비를 갖추도록 합시다!》

책임일군이 다시금 깨우쳐주어서야 나는 정신을 차리고 《알았습니다!》하고는 동무들이 있는 연습실로 달려갔다.

어버이수령님께서 우리 협주단을 찾아주신다는 격동적인 소식은 삽시에 창작가, 배우들 속에 퍼졌다.

협주단은 명절날처럼 흥성거렸다. 대개 스물안팎의 젊은 청년들이였던 배우들은 발을 구르며 환성을 올리였다. 젊은 배우들만이 아니라 나이 많은 창작지휘성원들도 흥분을 억제하지 못해하였다. 그렇게 흥분된 가운데서도 나에게는 한가지 근심되는 일이 있었다. 그것은 과연 우리가 준비한 음악무용종합공연을 가지고 어버이수령님께 기쁨을 드릴수 있겠는가 하는것이였다. 그전에는 괜찮다고 느껴지던 우리 동무들의 노래는 어덴가 음색이 고르지 못하고 거친감이 들었고 기악연주며 별로 마음을 쓰지 않았던 무대장치까지도 불비한데가 한두곳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해 5월 7일, 우리는 뜻깊은 력사의 순간을 맞이하게 되였다. 나라의 크고작은 모든 일을 돌보셔야 하시는 어버이수령님께서 우리 협주단의 예술공연을

보아주시려고 몸소 찾아오시였던것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 만세!》

《만세!》

나는 창작가, 배우들과 함께 목청껏 만세의 환호성을 올렸다.

배우들은 공연을 하기 위하여 이미 분장을 했다는 것도 잊고 눈물을 흘리고 또 흘렸다.

어버이수령님께서는 몇번이나 손을 드시여 이제는 그만하고 공연을 시작하라고 이르시였으나 배우들은 좀체로 진정을 하지 못하였다. 자나깨나 뵈옵고 싶던 어버이수령님을 한자리에 모시고 그이 앞에서 노래를 부르고 연기를 하게 된 그 기쁨, 그 영광을 어찌 몇마디의 환호성으로 대신할수 있었으랴. 그속에는 조국의 북변땅에서 온 교환수출신의 처녀배우도 있었으며 서해바다가의 어로공의 아들도 있었으며 용광로앞에서 쇠물을 뽑다가 입대한 어제날의 용해공청년도 있었다.

위대한 수령님을 한번만이라도 뵈왔으면 하는것이 그들의 더없는 소원이였다. 진정 어버이수령님을 기쁘게 해드릴수만 있다면 그 무엇도 아끼지 않고 바칠 각오로 가슴을 불태워오던 그들이였다.

이윽고 장내가 물을 뿌린듯 조용한 가운데 막이 서서히 올랐다.

나는 긴장해지지 않을수 없었다. 배우들의 기량이 어린데다 너무나 흥분한뒤여서 뜻하지 않은 실수를

저지를수 있지 않겠는가 해서였다. 특히 공연시작을 뗀 합창을 들을 때에는 더욱 그러했다. 다 아는바와 같이 합창은 성량이 각이한 성악배우들과 여러가지 기악이 배합되여 하나의 화음으로 조화를 이루어야 되는것만큼 예술인들 매개인의 기량도 그렇지만 지휘자의 역할과 책임성은 더욱 중요한것이다. 그러나 창조집단에서는 지휘경험이 있는 전문가가 없어 부대에서 예술소조활동을 하던 동무가 맡아하고있었다.

어버이수령님께서는 합창이 끝나자 환하게 웃으시며 합창을 규률있게 잘한다고 하시면서 내용도 좋고 노래도 잘 부르며 지휘자가 지휘를 잘한다고 치하해주시였다. 어버이수령님께서는 어느 녀성가수가 독창을 부를 때에는 누구보다도 기뻐하시고 아주 유망한 동무인데 계속 연습을 잘 시켜야 하겠다고 하시면서 《**얼마나 잘합니까. 참 잘 부릅니다.**》

라고 거듭 치하해주시였다.

어버이수령님께서는 합창과 독창뿐아니라 혼성군무, 가무, 3중창 등 공연종목이 바뀌여질 때마다 누구보다도 크게 박수를 보내주시며 《**잘합니다. 참 잘합니다.**》라고 거듭 분에 넘치는 치하의 말씀을 해주시였다.

나는 환하신 얼굴에 인자하신 미소를 띠우시고 그렇듯 기뻐하시는 어버이수령님을 뵈옵노라니 가슴이 뭉클해지고 눈시울이 뜨거워옴을 어쩔수 없었다. 과연 우리 동무들이 노래를 잘 불렀으면 얼마나 잘 불렀

으랴.

훈련의 설참 대원들앞에서 혹은 군민일치의 전통적인 미풍을 꽃피워나가는 포전머리 농장원들앞에서나 노래를 불러본 그들이 노래형상을 잘했으면 얼마나 잘했고 춤을 추었으면 얼마나 잘 추었겠는가. 어버이수령님께서는 어린 배우들의 그 소박한 노래속에서 옹달샘같이 티없이 맑고 깨끗한 그들의 마음을 읽으시고 아직은 미미한 싹에 불과한 그 재능이 반드시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을 날이 오리라는것을 굳게 믿으시고 그렇듯 크나큰 고무의 말씀을 주시였으리라.

나는 뿌옇게 흐려오는 눈으로 무대를 바라보며 마음속으로 부르짖었다.

(동무들, 어버이수령님께서는 동무들의 공연성과를 높이 평가해주고계십니다. 수령님께서 기뻐하십니다!)

나는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는 무대우의 동무들에게 달려가 어버이수령님의 말씀을 전해줄수 없는것이 안타까왔다.

무대는 바뀌여 어느덧 기악과 노래 《고난의 행군》이 시작되였다. 나는 다시 긴장해지지 않을수 없었다. 그것은 이 작품이 창조과정과 시연회때에 론의가 분분했기때문이였다.

작품이 공연되는동안 나는 조마조마한 심정에 싸여있었다. 그런데 이때 깊은 생각에 잠기시여 무대를 지켜보고계시던 어버이수령님께서 고개를 가벼이 저으

시였다.

(어버이수령님께서 심려하시는게 아닌가?) 나는 어버이수령님께서 서운해하시는 표정을 보자 이런 생각이 불쑥 들어 무대쪽을 재빨리 바라보았다. 우리 동무들이 실수라도 한것만 같았다. 어느덧 20분이라는 시간이 흘러 기악과 노래 《고난의 행군》이 끝나고 소개자가 중간휴식을 선포하였다.

무대막이 내리고 객석에는 불이 환하게 켜졌다. 그러나 누구 하나 일어날념을 하지 못하였다. 어버이수령님께서 옆으로 돌아앉으시여 한 일군에게 무슨 말씀을 하고계셨던것이다. (심려의 말씀을 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한 나는 몸둘바를 몰랐다. 나는 맨 마지막에야 객석에서 나와 휴계실에 온 다음에도 줄곧 이 착잡한 생각뿐이였다.

이때 부대 당위원회의 한 일군이 어버이수령님께서 저와 협주단 창조성원들을 부르신다면서 빨리 휴계실로 가자고 재촉하는것이였다.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리라는 예감으로 하여 나의 가슴은 두근거렸다. 나는 만년필을 열어 수첩에 써보고 잉크가 탈없이 내린다는것을 확인하고야 그의 뒤를 따라 걸음을 다우쳤다. 우리가 휴계실에 들어섰을 때 어버이수령님께서는 한손을 허리에 얹으신채 서계시였다. 어버이수령님 옆에는 당중앙위원회 정치위원회 위원들과 몇몇 수행원들이 서있었다.

어버이수령님께서는 저를 반갑게 맞아주시더니 일

군들과 하시던 이야기를 계속하시였다.

어버이수령님께서는 《고난의 행군》을 잘한다고 높이 평가하신 다음 앞으로 《고난의 행군》을 대작으로 만들어 3시간 공연할수 있게 해야 하겠다고 가르치시였다.

순간 나는 가슴이 후둑후둑 뛰는것을 느꼈다.

어버이수령님께 심려를 끼쳐드렸다고 소심해져서 어쩔바를 몰라했던것만큼 그이의 과분한 치하의 말씀이 너무나 뜻밖이였던것이다. 후에 안 일이지만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기악과 노래 《고난의 행군》이 끝났을 때 잊지 못할 력사의 나날을 회고하시는듯 깊은 감회에 잠기시여 작품이 시도가 대담하고 형식이 새롭다고 분에 넘치는 치하의 말씀을 해주시였던것이다. 어버이수령님께서 아쉬워하신것은 작품이 너무 짧은것때문이였다.

어버이수령님께서는 노래도 좋고 구상도 좋고 반주도 다 좋다, 그런데 내용이 많기때문에 짧은 시간에 그것을 다 담을수 없다고 하시면서 3시간정도 공연할수 있는 음악과 무용이 배합된 서사시극의 새로운 무대예술형식을 창조할데 대하여 밝혀주시였다.

어버이수령님의 이 가르치심을 새겨듣는 나는 가슴이 후련해지는것을 느꼈다. 음악무용서사시극! 나는 수첩우를 달리던 만년필을 멈추고 경건한 마음으로 어버이수령님을 우러러보았다. 그리고 생각하였다.

무대예술이 이 세상에 태여난후 장구한 세월이 흘

렸다. 그러나 대합창과 집단적인 군무, 관현악, 시랑송을 배합하여 하나의 사상주제적과제를 해결할수 있는 전혀 새롭고 독창적인 음악무용서사시극이라는 예술형식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던것이다. 실로 그것은 예술의 영재이신 어버이수령님께서만이 불과 20분밖에 안되는 짧은 기악과 노래공연을 보시고 그렇듯 예술사에서 찬연한 빛을 뿌릴 위대한 발견을 하신것이다.

이날 어버이수령님께서는 새로운 무대예술형식인 음악무용서사시극의 종류적특성과 그 형상방도를 하나하나 일깨워주시였다. 그러시고도 마음이 놓이시지 않으신듯 공연도중의 짧은 막간사이에도 창조사업에서 지침으로 될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였다. 뿐만아니라 음악무용서사시극 《고난의 행군》을 창조할수 있는 유능한 창작집단과 경험있는 배우들로 협주단대렬을 보강해주시는 조치까지 취해주시였다.

다음날부터 우리 협주단에서는 새로운 창작적열정과 흥분 속에서 음악무용서사시극 《고난의 행군》 창조사업에 달라붙었다.

협주단은 당조직의 지도밑에 궐기모임을 가지고 모든것을 5월 7일에 주신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관철에로 당원들과 예술인들을 조직동원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지교시를 철저히 관철하자!》

회관 도처에는 이런 힘있는 글발들이 수없이 나붙

었다.

한편 고난의 행군 자료를 깊이 연구하는 사업도 진행하였다. 연습장에는 남패자로부터 북대정자에 이르는 항일투사들의 행군로가 나붙었으며 당원들과 사로청원들의 결의들이 속보판에 련속 소개되였다. 창조집단의 모든 성원들이 창작가였으며 연기를 하는 배우였으며 그들자신이 분장과 의상을 책임졌다. 잠자리는 아예 연습장으로 옮겼다. 그야말로 허리치는 생눈길을 뚫고 겹쌓인 난관을 이겨내면서 고난의 행군을 하는 항일투사들의 마음이 되여 모두가 창조의 나날을 이어갔다. 그러나 애로는 한두가지가 아니였다.

무엇보다도 아직 그 어디에서도 보지 못한 음악무용서사시극의 종류적특성에 대한 리해부터가 부족했다. 어떤 동무들은 음악무용서사시극도 역시 노래와 춤, 관현악이 기본을 이루는것만큼 가극과 같은 형식을 취하는것이 옳을것이라고 주장했고 다른 동무들은 력사물을 취급하는것만큼 음악무용서사시의 형식에 가깝게 해야 한다고 고집했다.

그리하여 처음에는 가극에서처럼 한 주인공을 설정하고 그의 구체적인 생활과 행동, 성격발전을 기본으로 하고 여기에다 가극에는 없는 시랑송을 배합하는 방법으로 사상주제적과제를 해명하는 방향에서 창조사업이 진행되였다. 그런데 작품을 만들고보니 형상창조의 중심에 위대한 수령님의 영상을 모시지 못했으며 그이께서 조직령도하신 고난의 행군의 거대한

력사적의의를 전면적으로 밝힐수 없었다.

창조집단에서는 이렇게도 작품을 써보고 저렇게도 써보면서 무대에 형상해보았지만 가극도 아니고 그렇다고 음악무용서사시도 아닌 혼탕의 작품이 되고말았다.

남패자로부터 북대정자에 이르는 고난의 행군로정을 따라 이 이야기 저 이야기를 엮어나가는 방법으로 3시간이라는 긴 시간을 메꾸어놓다보니 예술작품이라기보다는 하나의 력사적사실을 분장한 배우들이 소개하는 정도에 불과했다. 따라서 작품은 견인력이 없어 따분하고 지루하였다.

과연 무대예술창조경험이 어린 우리 협주단에서 그 누구도 해보지 못한 음악무용서사시극을 해낼수 있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였다. 그러나 우리는 물러설수 없었다.

어버이수령님께서는 우리 협주단을 믿으시고 그처럼 중요한 과업을 주시였는데 그것을 해내지 못한다면 그것은 곧 어버이수령님의 크나큰 신임을 저버리는것으로 되지 않겠는가.

우리는 다시금 고난의 행군을 음악무용서사시극으로 형상할데 대한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를 깊이 연구하여나갔다.

어버이수령님께서 바라시는 음악무용서사시극은 가극이나 음악무용서사시와는 다른 자기의 특성을 가진것이였다.

우리는 어버이수령님의 교시를 연구하는 과정에 우리가 창작에서 실패한 원인을 차츰 알기 시작했다.

사실 우리는 대작을 만든다고 하여 낡은 가극이나 음악무용서사시와 같은 기존작품에서 그 어떤 묘술과 방도를 찾으려고 했지 어버이수령님께서 시도가 대담하고 형식이 새롭다고 높이 평가해주신 기악과 노래를 기초로 하여 그것을 발전시킬 생각은 하지 못했던것이다.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를 철저히 관철하기 위한 새로운 전투가 벌어졌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맡겨주신 음악무용서사시극 《고난의 행군》을 성과적으로 창작하기 위하여서는 또한 창작가들자신이 어버이수령님께 무한히 충직하였던 항일혁명투사들의 높은 정신세계를 체득하는것이 중요하였다.

작품창작이 잘 진척되지 못한데는 새로운 예술형식에 대한 파악이 부족한데도 있었겠지만 중요하게는 창작가들자신이 항일혁명투사들처럼 고난의 행군과 같은 엄혹한 현실을 체험해보지 못한데 있는것이였다. 그리하여 협주단에서는 혁명전통교양자료들을 보다 깊이 연구하는 한편 항일혁명투사들을 찾아가 고난의 행군당시에 있었던 산 자료들을 취재하여 작품에 보충하는 사업을 진행하였다.

작품은 일정하게 대가 서갔다.

그런데 결함은 작품전반이 온통 전투판으로 꽉 차

버린듯한감이 드는것이였다.

우리는 이런 결함을 극복하기 위한 작업을 마친후 고난의 행군에 참가하였던 항일혁명투사들에게도 작품을 보였고 여러 차례의 합평회도 가졌다.

그러나 우리가 해놓은 음악무용서사시극이 과연 어버이수령님께서 바라시는 그런 작품으로 되였겠는가 하는것은 누구도 단정할수 없었다.

창조집단이 이렇게 모대기고있을 때 당에서는 《고난의 행군》 작품줄거리를 지도해주면서 위대한 수령님의 영광찬란한 혁명력사를 예술화하는 음악무용서사시극에서는 가극, 연극과는 달리 종합예술의 형식을 취하는만치 종류적특성을 잘 살리며 내용에서 위대한 수령님의 령도와 덕성선을 잘 부각하고 조선인민혁명군의 다양한 실생활을 잘 그려야 한다는것을 밝혀주었다.

당의 현명한 지도를 받은 우리는 왕성한 의욕과 패기에 넘쳐 작품과 무대형상을 수정완성해나갔다.

그러던 1973년 2월 14일, 우리 협주단에서는 또다시 어버이수령님을 몸가까이 모시고 귀중한 가르치심을 받는 영광을 지니였다.

그날은 종일 눈이 많이 왔다. 아침녘에는 싸락눈이 내리더니 한낮부터는 꽃잎같은 소담한 눈이 펑펑 쏟아져 삽시에 온 세상이 눈천지로 변해버렸다.

그때가 아마 저녁 6시경이라고 짐작된다. 어버이수령님께서 타신 승용차가 협주단이 자리잡은

청사앞에 와서 멎었다. 나는 꽃다발을 든 녀성군인과 함께 어버이수령님 앞으로 다가가 정중히 인사를 올렸다. 정문앞에 줄지어 서있던 예술인들속에서 만세의 환호성이 터져올랐다.

어버이수령님께서는 손을 높이 드시여 그들모두에게 답례를 보내시고는 한사람 한사람의 손을 뜨겁게 잡아주시였다.

어버이수령님께서는 무대에 잠간 나와 노래나 한두곡씩 부른데 불과한 예술인들까지도 잊지 않으시고 기억에 새겨두셨다가 수행한 일군들에게 소개를 해주시는가 하면 어떤 예술인들을 보시고는 작년보다 키가 더 크고 몸도 좋아졌다고 하시며 못내 기뻐하시였다.

어버이수령님께서는 먼저 휴계실에 들리시여 한 일군으로부터 작품의 줄거리를 들으신 다음 공연을 관람하시려 객석으로 나오시였다.

나는 처음부터 긴장해졌다. 어느 예술단체에서도 형상해보지 못한 음악무용서사시극이라는 새로운 무대예술을 창조한것만큼 작품이 어버이수령님께서 바라시는 사상예술적깊이를 보장했는지, 또 어버이수령님께서 구상하시고 의도하신대로 새로운 예술형식이 갖는 독특한 양상이 충분히 살았는지 우리로서는 정확한 판단을 할수 없었던것이다. 이때 우리들의 솔직한 심정을 말한다면 시원치 못한 답안지를 써놓고 선생님의 채점을 기다리는 나어린 학생의 조마조마한 심정 그대로였다.

드디여 공연이 시작되였다.

음악무용서사시극 《고난의 행군》은 남패자회의를 소집하신 조선인민혁명군 사령관 **김일성**동지께서 위기에 처한 조선혁명을 구원하시고 새로운 앙양에로 추켜세우실 주체적인 전략전술적방침을 제시하시는 때로부터 시작하여 앞을 가로막는 수천수만의 적들과의 가렬처절한 전투, 살을 에이는 사나운 눈보라, 막아서는 험산준령, 사정없이 위협하는 식량난, 형체없이 찢기운 대원들의 군복, 실로 간고성에서 그 류례를 찾아볼수 없었던 고난의 행군 100여일에 있었던 수많은 이야기를 그대로 무대우에 옮겨놓았다.

나는 무대가 바뀌여질 때마다 어버이수령님께서 앉아계시는 객석쪽을 자주 바라보았다. 그러나 어버이수령님께서는 거의 두시간에 달하는 제1부공연전기간에 아무 말씀도 없으시였다.

(왜 말씀이 없으실가?) 나는 더욱 마음이 조마조마하였다.

어버이수령님께서는 항일무장투쟁의 나날을 감회깊이 더듬어보시는듯 깊은 생각에 잠겨계시였다. 그이께서는 제1부공연이 끝나고 휴게실에 들어가신 다음에도 한동안 말씀없이 방안을 거니시였다. 사색에 잠기시여 가볍게 거니시던 어버이수령님께서는 우리들이 그렇듯 기다리던 공연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것이였다.

《아주 좋습니다. 잘되였습니다.》

그이께서는 계속하시여 반주도 잘하고 방창, 무대미술도 잘하였다고 높이 평가하시면서 이것은 그대로 산현실이라고 힘주어 말씀하시는것이였다.

그이께서는 거듭 잘되였다고 치하하시고 영화같으면서도 영화보다 낫다고 말씀하시였다.

그이의 치하의 말씀을 듣는 순간 나의 온몸은 그대로 불덩어리처럼 달아올랐다. 당장 예술인들에게 달려가고싶은 마음을 걷잡을수 없었다. 왜냐 하면 그들모두가 나처럼 가슴들먹이며 어버이수령님의 가르치심을 기다리고있을것이기때문이였다. 그러나 나는 자신의 흥분을 가라앉히려고 애를 썼다. 아직은 어버이수령님께 기쁨을 드릴만한 작품을 만들었다고 단정하기에는 때가 일렀다. 우리가 창조과정에 밤을 밝히면서 론전을 거듭하였으나 끝내 해결을 보지 못한 문제들이 대부분 후반부인 제2부에 있었기때문이다.

내가 제2부공연준비정형을 알아보려고 나왔다가 다시 휴계실에 들어가니 어버이수령님께서는 시련으로 가득찼던 고난의 행군때를 이모저모로 회상하고계시였다.

그이께서는 대부대를 보내고 사령부가 적은 력량으로 고난을 겪은데 대해서, 그후 대부대를 편성하여가지고 놈들을 답새기면서 선회작전을 벌린데 대하여 감회깊이 회고하시였다.

이어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나어린 대원들에게 돌려주신 사랑의 이야기도 해주시여 우리모두의 가슴을

뜨겁게 하여주시였다.

어버이수령님께서는 그때 한 어린 대원이 부상당하여 할수없이 자신께서 약도 발라주시고 소독도 해주시면서 의사노릇을 하였다고 하시면서 그때 약은 콩기름을 달여서 아연화에 섞어 만들었는데 그것을 붙이면 상처가 인차 아물군하였다고 말씀하시였다.

어버이수령님의 이 사랑어린 말씀은 우리모두의 가슴을 뜨겁게 하여주었다. 잉걸불에 손수 콩기름을 달이시고 약을 만드시여 그것을 대원들에게 발라주시는 어버이수령님의 한없이 인자하시고 너그러우신 모습이 우렷이 떠올랐기때문이다.

이날 어버이수령님께서는 항일무장투쟁의 나날 대원들에게 부어주신 그 사랑으로 우리 작품에 있는 결함들도 하나하나 일깨워주시였다.

《전투가 좀 많습니다.》

제2부공연을 보시고 다시 휴계실에 나오신 어버이수령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였다.

나는 이 순간 론의의 대상가운데 하나였던 전투문제가 끝내 어버이수령님께 심려를 끼쳐드렸다고 생각하며 몸둘바를 몰랐다. 그러나 어버이수령님께서는 저희들을 탓하실 대신에 오히려 장한 일을 하느라고 애를 쓰다가 실수를 저지른 자식을 생각하는 부모의 심정이 되시여 그 수정방도를 차근차근 가르쳐주시였다.

어버이수령님께서는 전투가 많은데는 화제와 웃음거리도 있고 곤난도 있어야 하는데 동무들이 잘한것은

만경대를 회상하는 장면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거기에서 춤도 추고 기운을 얻게 한 장면이 잘되였다고 치하하여주시였다.

그이께서는 이어 유격대원들이 행군하면서 생활하는것을 좀 더 넣을데 대하여 가르쳐주시였다.

어버이수령님의 사랑어린 이 가르치심은 우리가 풀려고 밤을 밝혀가면서 모대기였으나 끝내 풀지 못한채 남겨두었던 문제에 대한 명철하신 해답이였다.

전투와 생활! 우리는 서로 다른 별개의 문제이면서도 하나의 통일적인 련관속에 있는 이 문제를 잘못 인식하고있었다. 시련많던 엄혹한 시기를 그대로 반영하자니 자연히 전투가 많아질수밖에 없다고 생각하였었다. 그러다보니 웃음장면같은것은 넣을 궁리도 하지 못했던것이다. 이것은 엄혹한 정황속에서도 실망하거나 동요함이 없이 오직 혁명적락관주의정신으로 살며 싸우는 항일혁명투사들의 참된 생활을 옳게 파악하지 못한데로부터 오는 결함이였으며 더우기는 투쟁속에 생활이 있고 생활속에 투쟁이 있다고 하신 어버이수령님의 강령적교시를 심장으로 받아안지 못한데서 범한 창작실천상의 잘못이였다.

어버이수령님께서는 우리가 풀지 못해 모대기고있던 작품의 마감처리문제에 대해서도 명확한 가르치심을 주시였다.

어버이수령님께서는 마지막장면은 《고난의 행군》을 무산지구전투에서 마치게 한 다음 대홍단기념비가 크

게 나오게하고 여기에 호위병들과 인민들, 청년들, 인민군대들이 다 나오도록 하여야 하겠다고 하시면서 《고난의 행군》은 조선땅에 와서 끝나게 하는것이 좋다고 가르쳐주시였다.

어버이수령님께서는 이날 작품을 수정할 방향뿐만 아니라 그의 수정방도까지 세심히 가르쳐주시고 밤이 퍽그나 깊어서야 자리를 뜨시였다. 그런데 정문을 지나던 승용차가 급히 멎는것이였다.

나는 웬일인가싶어 동무들과 함께 승용차 있는데로 달려갔다. 우리가 승용차 가까이에 다가갔을 때에 어버이수령님께서는 벌써 차문을 여시고 밖에 나오시여 수북이 쌓인 눈우에 서계시였다.

어버이수령님께서는 저와 창작가동무들을 가까이 오라고 손짓으로 부르시더니 약을 만들어가지고 부상자들을 치료하는 장면을 더 넣으면 좋겠다고 조용히 말씀하시였다.

흰눈이 송이송이 내려 어버이수령님의 어깨우에 차분히 앉는것이였다. 바람은 없었으나 2월의 밤날씨는 여간만 차지 않았다.

(수령님 날씨가 찹니다!) 나는 이 말씀을 올리려 했으나 뜨거운것이 목을 꽉 메워 끝내 아무 말씀도 올리지 못했다. 어버이수령님께서는 저희들의 간절한 심중을 헤아리신듯 자신께서는 일없는데 모자도 쓰지 않고 이렇게 눈을 맞으면 감기에 걸릴수 있으니 어서 들어가라고 하시며 우리들의 어깨우의 눈을 털어주시였다.

어버이수령님께서 우리에게 돌려주신 이 사랑, 이 은정은 그야말로 우리들모두의 가슴속에서 충성의 피를 끓게 하였으며 창조와 지혜를 낳게 해주시였다. 우리 전체 협주단창조집단과 예술인들은 어버이수령님께서 안겨주신 높은 정치적안목과 끝없는 창조와 환상의 날개를 펼쳐들고 음악무용서사시극 《고난의 행군》을 완성해나갔다.

우리는 어버이수령님의 교시를 하나하나 작품창작에 구현해나감으로써 작품을 사상예술적으로 높은 경지에 끌어올릴수 있었다.

그러던 어느날이였다. 부대의 책임일군이 나와 한 작가를 급히 찾았다. 나는 그를 만나는 순간 그가 몹시 흥분하고있다는것을 알았다.

그런데 그는 웬일인지 자기의 흥분된 심정을 감추지 못하고있다가 우리들을 보자 나와 작가동무의 손을 꽉 쥐는것이였다.

《동무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가까스로 이렇게 입을 열었다.

《어버이수령님께서 우리 협주단에서 만든 음악무용서사시극 〈고난의 행군〉에 인민상을 수여하도록 배려하여주시였습니다.》

《어버이수령님께서요?!…》

우리 두사람은 다같이 놀란 목소리로 이렇게 부르짖으며 그에게로 다가섰다.

《그렇소. 어버이수령님께서… 인민상을… 배려하

여주시였습니다!》

어버이수령님의 교시를 전달하는 그 일군이나 그것을 전달받는 우리 두사람이나 다 같이 한가슴에 받아안기에는 너무나 크고 벅찬 감동이여서 한동안 어쩔줄 몰랐다. 그러나 한순간이 지나자 우리는 전신을 휩싸는 격정을 누를길 없어 마침내 온몸을 떨며 흐느끼고말았다.

눈오는 깊은 밤, 한지에 서시여 오히려 우리들의 건강을 념려하시며 어깨우의 눈을 털어주시던 어버이수령님의 한없이 인자하신 모습이 우렷이 떠올랐다.

참으로 이 세상에 사랑의 이야기는 수없이 많아도 예술소조에 불과하였던 자그마한 집단에서 만든 음악무용소품을 무대예술사상 일찌기 없었던 음악무용서사시극으로 만들어주시고 나아가서 그 작품이 인민상을 받도록 이끌어주신 사랑의 이야기는 없을것이다.

음악무용서사시극 《고난의 행군》은 이렇게 이 세상에 태여났다.

어버이수령님의 이러한 사랑속에 우리 창조집단에서는 그후 불과 5~6년이란 짧은 기간에 여러편의 혁명적대작을 만들어 세상에 내놓을수 있었다.

어버이수령님께서는 그 바쁘신 가운데서도 우리 협주단에서 새 작품을 만들 때마다 모든 일을 뒤로 미루시고 공연을 보아주시고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였다.

우리는 첫 음악무용서사시극 《고난의 행군》을 완성하여 세상에 내놓은 다음 보다 큰 창작적흥분속에서 두번째작품인 《두만강반에서의 한해여름》을 준비하였다.

당에서는 창작경험이 많은 창작가들을 보내여 방조케 하였으며 우리 협주단동무들도 이미 경험을 쌓은지라 신심을 가지고 창조사업에 들어섰다. 그러나 솔직히 말해서 그때까지도 우리는 음악무용서사시극에 대한 어버이수령님의 문예 사상과 리론의 진수를 다는 파악하지 못하고있었다. 그렇기때문에 두번째작품인 《두만강반에서의 한해여름》도 첫번째작품인 《고난의 행군》 창작초기에서와 같이 력사적사실에 충실하는 문제, 전투장면을 비약 함축하면서 유격대원들의 생활을 보다 풍부하게 반영하는 문제 등 본질적인 문제들에서 동질의 결함을 발로시켰던것이다. 이에 대하여 어버이수령님께서는 우리들을 탓하실 대신에 걸음마를 타는 어린 자식을 한걸음한걸음 이끌어주시는 심정으로 일깨워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군대에서의 군인들에 대한 교양은 력사를 회고하는 이런 음악무용서사시극식으로 해야 비약이 되면서도 옳게 되지 단순하게 한가지로 된 몇개 극을 해서는 안된다고 하시면서 력사극을 하려면 이런식으로 하는것이 나쁘지 않으며 한개의 좋은 형식이라고 가르쳐주시였다.

어버이수령님의 이 강령적교시는 력사극으로서의 음악무용서사시극에 대한 고전적인 정식화였으며 그가

가지고있는 독특한 양상적특성과 그 형상방도를 천명하신 탁월한 명제였다.

우리는 항일무장투쟁의 거대한 력사적화폭을 형상할수 있는 형식과 내용에서 전혀 새로운 무대예술을 창조해주시고 그 완성에로 이끌어주신 어버이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를 또다시 가슴뜨겁게 느낄수 있었다.

사실 항일무장투쟁의 어느 한 거대한 력사적사실을 3시간동안에 이야기한다는것은 그리 쉬운 문제가 아닌것이다. 이것을 시공간적제한성을 가지고있는 가극이나 연극은 물론 음악무용서사시에서도 해결하기 어려운것이다. 그리하여 항일무장투쟁시기에 있은 거대한 력사적사실들을 폭넓게 무대예술로 형상하지 못하고 극히 제한된 주인공들의 성격발전을 통해 당대의 시대상을 일부만 보여주는데 그쳤던것이다.

이것은 군인들과 인민들을 우리 당의 빛나는 혁명전통으로 교양하기 위한 무대예술활동에서 꼭 풀어야할 문제였다.

이런 때 혁명의 영재이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자그마한 음악무용소품을 보시고 그렇듯 귀중한 싹을 발견하시고 비약과 함축을 자유자재로 하면서도 력사적사실에 충실할수 있는 새로운 무대예술—음악무용서사시극이라는 독특한 예술적형식을 창조해주시고 그것을 완벽한 사상예술적경지에서 완성시키도록 우리들을 손잡아 이끌어주시였으며 그 작품들을 영화

로 옮기여 광범한 대중속에 널리 보급할수 있도록 크나큰 배려를 베풀어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하나에서 열까지 모두 가르쳐주시고도 새 음악무용서사시극이 나올 때마다 분에 넘치는 치하를 주시고 그 모든 성과를 우리들에게 돌려주시였다.

우리들이 네번째로 음악무용서사시극을 창조하였을 때도 바로 그러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음악무용서사시극 《압록강반의 홰불》은 혁명전통을 주제로 한 작품이기때문에 후대들을 혁명적세계관으로 무장시키는데도 좋고 그들이 일본제국주의자들이 어떤놈들인가를 똑똑히 알고 투쟁하도록 반일사상교양사업을 강화하는데서도 아주 중요한것이라고 하시면서 배우들에게 공연을 잘하였다고 자신의 감사를 전해줄데 대해 말씀하시였다.

어버이수령님의 이 교시를 전달받는 날 우리 협주단의 전체 지휘성원들, 창작가들, 배우들은 한사람같이 흐느껴울었으며 목메여 만세의 환호성을 올리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 만세!》 《만세!》

충성의 환호성은 끝없이 울렸다. 어찌 그렇지 않으랴. 어버이수령님께서는 예술소조원들이 만든 자그마한 소품에서 그렇듯 귀중한 싹을 발견하여주시고 그것을 활짝 꽃피워나가도록 온갖 배려를 돌려주시였다. 뿐만아니라 어버이수령님께서는 우리가 예술소조에 불과하다는것을 헤아리시고는 댁에서 쓰시던 피아

노와 수백점의 사랑어린 악기를 보내주시였다. 그러시고도 무언가 더 보탬을 주시지 못해 심려하시는 어버이수령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귀중한 선물을 보내주시였으며 기회가 있을 때마다 높은 국가수훈의 영예를 지니도록 배려해주시였다.

그 은혜로운 사랑의 해발속에서 우리 협주단은 오늘 수백명의 창작가, 배우의 대부대를 가진 협주단으로 자라나 인민상계관작품을 비롯하여 혁명적대작을 련이어 만들어내게 되였으며 어제날의 예술소조원이였던 군인들, 교환수와 간호원이 오늘은 인민의 존경과 사랑을 받는 음악무용서사시극의 주인공으로, 공훈배우, 공훈예술가로 자라났다.

나는 음악무용서사시극창조의 나날을 감회깊이 더듬어볼 때마다 그리고 우리의 공연을 보고 아낌없는 찬사를 보내는 관중들을 대할 때마다 한없이 따사로운 어버이수령님의 사랑을 가슴뜨겁게 느끼군한다. 그리고 끝없는 그 사랑에 보답하지 못한것으로 하여 안타까움을 금할수가 없다.

우리는 앞으로도 계속 어버이수령님의 영광찬란한 혁명력사를 더 많은 음악무용서사시극에 형상함으로써 음악무용서사시극의 새 기원을 열어주신 위대한 수령님의 영생불멸의 업적을 후손만대에 길이길이 빛내이는데 한몸 바칠 불타는 충성의 맹세를 굳게 다진다.

1980년 2월

혁명적문예잡지 《문화전선》 창간호에 깃든 이야기

허 정 숙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습니다.

《출판물은 당과 대중을 련결시키는 중요한 수단이며 당이 내세운 정치, 경제, 문화 건설의 과업실천에로 근로대중을 조직동원하는 힘있는 무기입니다.》

오늘 우리의 혁명적문예출판물은 당의 수중에 장악된 다른 모든 출판물과 함께 근로자들을 혁명과 건설에로 힘있게 조직동원하는 힘있는 무기로 되고있습니다.

나는 오늘 광범한 독자대중의 사랑을 받으며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위업에 힘있게 이바지하고있는 《조선문학》을 비롯한 우리의 수많은 문예잡지들과 도서들을 대할 때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혁명적문예잡지 《문화전선》과 문예도서 발행사업을 몸소 지도

하여주신 뜻깊은 나날을 감회깊이 돌이켜보게 됩니다.

기억도 새로운 1946년 9월 2일!

저는 전설적영웅이시며 우리 당과 인민의 경애하는 수령이신 **김일성**장군님의 부르심을 받는 영광을 지니게 되였습니다.

당시 저는 위대한 수령님을 몸가까이 모시고 그 누구보다 그이의 가르치심을 많이 받으며 일하는 영광과 행복을 누리고있었지만 만민이 우러러뵙고싶어하는 장군님의 부르심을 받게 될 때마다 진정못할 기쁨과 흥분이 앞서군하였습니다.

언제 뵈와도 인자하시고 소탈하시여 어버이를 대하는듯 모든것을 말씀드리고싶었고 깊은 통찰력과 빛나는 예지를 한몸에 체현하시고계시는 그이의 가르치심을 한번 받고나면 갈피를 잡을수 없이 복잡하던 일도 명백해졌고 모든 사업에서 신심과 용기가 생기군하였습니다.

이날도 저는 장군님께서 친히 부르신다는 말을 전해들은 순간부터 몹시 흥분되여 좀처럼 마음을 진정시킬수가 없었습니다.

인자하신 그이의 영상을 그리며 급히 걸음을 옮기는 저의 머리속에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우리 문학예술부문사업을 이끌어주시기 위하여 심려하여오신 일들이 하나하나 떠오르는것이였습니다.

어버이수령님께서는 해방직후 그처럼 어렵고 복잡한 환경속에서도 우리 나라의 민족문화발전을 위하여

항상 깊은 관심과 배려를 돌려주시면서 몸소 이 사업을 하나하나 조직령도하시였습니다.

그이께서는 민족문화건설사업을 새 조국 건설의 중요한 부문의 하나로 보시고 전국각지에 흩어져있는 작가, 예술인들을 친어버이사랑으로 한품에 안으시여 1946년 3월 25일에는 우리 나라 문학예술운동사에서 큰 의의를 가지는 북조선예술총련맹을 몸소 무어주시였던것입니다.

그리하여 나라 없는 설음을 안고 살아오던 우리 작가, 예술인들은 통일적인 조직에 뭉치여 당의 기치 따라 새 조국 건설을 위한 문화전선의 투사로 나설수 있게 되였습니다.

어찌 그뿐이겠습니까.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갓 태여난 북조선예술총련맹의 사업방향과 그 수행방도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으로 밝혀주시였으며 련맹기관잡지로서 《문화전선》을 발간하도록 하여주시고 그 사업을 계속 밀고나갈수 있는 출판사까지 내오도록 하여주시는 크나큰 배려를 돌려주시였던것입니다.

아무리 재능있는 작가라 할지라도 작품이 실릴 지면을 가지고있지 못하다면 그의 창작활동은 생각할수 없는것입니다.

해방전 우리 작가들은 자기의 글에 정의와 진실을 담을수가 없었고 발표할 지면도 없었던것입니다.

민족적지조를 버리지 않은 문인들끼리 잡지를 내

보자고 입었던 옷까지 벗어 전당포에 맡기면서 푼전을 모아도 보았지만 뜻을 이루지 못하고 빚더미우에 올라앉거나 설사 첫 잡지를 내는 경우에도 일제의 검열과 총칼의 탄압으로 말미암아 창간호자 폐간호로 되여버리였던것입니다.

희망도, 신념도, 쓰고 살 단 한칸의 집도 없이 헤매던 우리 작가, 예술인들을 위대하신 한품에 안으시여 조직을 무어주시고 기관지를 마련해주시는 어버이수령님의 그 사랑과 배려 속에는 지난날 식민지망국노의 설음과 울분에 가슴을 치던 이 나라의 모든 작가들과 예술인들에 대한 크나큰 정치적신임과 기대가 스며있었으며 해방된 우리 인민에게 하루빨리 참다운 인민의 문학예술, 혁명적인 문예출판물을 보여주시려는 한량없이 깊은 뜻이 깃들어있는것이였습니다.

우리 작가들은 위대한 수령님의 하늘같은 은덕에 의하여 비로소 떳떳한 인민의 문필가로 되여 해방의 감격, 새 조국 건설의 기쁨을 마음껏 노래할수 있게 되였으며 자신들의 활무대인 기관지를 가지게 되였습니다.

나는 세차게 들먹거리는 가슴을 진정시키며 경건한 마음으로 위대한 수령님께서 계시는 방에 들어섰습니다.

정갈하고 검소한 방, 여러가지 책들과 서류들이 쌓여있는 책상앞에 앉으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무슨 책을 보시고계시였습니다.

제가 허리를 굽혀 인사를 드리자 그이께서는 자리에서 일어서시여 만면에 웃음을 지으시며 마주 걸어나오시였습니다.

어버이수령님께서는 저의 손을 따뜻이 잡아주시면서 앞상결에 놓여있는 결상으로 이끌어주시였습니다. 그이의 은정깊은 손길에서는 혁명전사들에 대한 뜨거운 사랑과 믿음이 후더웁게 느껴지는것이였습니다.

의자에 조용히 앉던 저는 수령님께서 보시다가 책상우에 놓으신 책에 눈길이 미치는 순간 놀라지 않을수 없었습니다.

펴놓은채로 있는 그 책은 다름아닌 《문화전선》 창간호였습니다.

저는 가슴이 후더워올랐습니다.

문학예술부문사업을 전문으로 지도하는 일군들도 아직 다 보지 못한 책을 어버이수령님께서 먼저 보시고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려 저를 부르시였다고 생각하니 저의 가슴은 한없는 격동으로 설레였습니다.

새 조국 건설의 중하를 한몸에 지니시고 분초를 쪼개여 일하시는 그 바쁘신속에서도 시간을 내시여 우리의 문학예술발전을 위하여 심혈을 기울이시고계시는 수령님을 우러르니 뜨거운것이 목을 메웠습니다.

이윽고 어버이수령님께서는 책상우에 놓여있던 잡지 《문화전선》을 손에 드시고 기쁨어린 음성으로 말씀하시였습니다.

《〈문화전선〉 창간호가 나온것을 보았습니까?》

저는 그 책을 원고단계에서만 보고 출판된후에 다시 다 읽지 못한 형편이여서 몸둘곳을 찾을수가 없었습니다.

어버이수령님께서는 얼굴이 붉어져서 머뭇거리는 저를 너그러우신 웃음으로 대하시면서 그만하면 내용도 괜찮게 된것 같다고 과분한 치하의 말씀을 하시였습니다. 그러시면서 창간호의 부족점에 대해서도 명철하게 지적해주시였습니다.

그이께서는 창간호로서는 책이 좀 작은감이 있는데 글쓰는 사람이 적어서 그랬는지 그렇지 않으면 무슨 애로가 있어서인지 좀 알아보아야 하겠다고 하시면서 책이 작은것이 좀 유감이지만 이제부터 잡지가 나오기 시작했으니 앞으로 잘 만들수 있을것이라고 고무의 말씀까지 주시였습니다.

어버이수령님의 그 말씀을 받아안는 순간 저는 문학예술부문에 돌려주시는 그이의 극진한 사랑과 배려가 얼마나 큰것인가를 더욱 가슴깊이 느끼였습니다.

나라 없던 지난날 곳곳에 흩어져 붓을 꺾고 가슴을 치던 작가들을 그 넓은 품에 안아주시고 붓과 지면을 마련해주시더니 오늘은 그 작가, 예술인들이 쓴 책을 보아주시며 누구보다도 기뻐해주시는 어버이수령님!

북조선예술총련맹을 무어주신 그날, 일군들을 친히 부르시여 앞으로 문학예술창조사업에서 강령적지침으로 되는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더니 오늘은 이렇듯

관계부문일군들도 다 읽지 못한 잡지를 남먼저 보아주시며 앞으로는 책을 더 잘 만들수 있을것이라고 크나큰 믿음과 힘을 안겨주시는 어버이수령님!

진정 그 한권의 책은 위대한 수령님의 탁월한 령도와 크나큰 배려 속에서 태여난 혁명적문예잡지였으며 당의 빛발아래 힘찬 진군을 시작한 우리 문학의 귀중한 열매였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잡지가 나오기까지의 작가들과 편집원들의 수고를 헤아려보시는듯 잠시 책을 바라보시다가 저에게 문화전선사를 다 꾸려놓았는가고 물으시는것이였습니다.

저는 어버이수령님께 선뜻 대답을 올리지 못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여러가지 곤난한 문제들이 겹치여 기구편제에 의한 인원을 다 채우지 못하고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사정을 헤아리신 어버이수령님께서는 이날 출판사의 편집력량을 잘 꾸려주도록 대책을 세워주시였으며 잡지의 운영방법과 잡지의 형식을 발전시켜나갈데 대하여서도 구체적으로 가르쳐주시였습니다.

어버이수령님께서는 잡지를 매달 정기적으로 출판해서 인민들에게 보내줄데 대해서와 내용이 풍부하게 글을 잘 쓰고 편집을 다양하게 하여 독자들의 기대와 흥미에 맞게 출판할데 대하여 강조하시면서 특히 출판기일을 어기는 일이 없도록 할데 대하여 말씀하시였습

니다.

그이의 가르치심을 새겨가는 저의 가슴속에는 또다시 커다란 감동의 파도가 일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저희들은 이제는 기관지를 가지게 되였다는 기쁨으로 만족해있었을뿐 그 잡지를 받아볼 인민들의 기호와 기대에 대해서는 미처 생각지 못했던것입니다.

진정 어버이수령님의 그 말씀속에는 인민을 위하시는 깊은 은정이 뜨겁게 깃들어있는것이였습니다.

계속하시여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잡지의 편집방향과 그 내용에 대하여 강령적인 교시를 주시였습니다.

어버이수령님께서는 잡지 《문화전선》을 문예작품을 통하여 우리 당 정책을 독자들에게 알려주는데 중점을 두고 편집할데 대하여 밝혀주시였으며 잡지가 나오기 시작했으니 이제는 내용과 형식을 발전시켜나갈수 있도록 당에서 방조를 주는것이 좋겠다고 간곡히 말씀하시였습니다.

그이의 가르치심을 적어나가던 저는 가슴이 후련해지고 눈앞이 확 트이는것 같았습니다.

사실 잡지를 내면서 편집일군들속에서는 잡지의 성격과 편집방향에 대해서 론의가 많았습니다.

북조선예술총련맹의 기관지로서 맹원들의 생활과 기량제고 문제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는 주장이 있는가하면 순수 문학잡지로 되여야 한다고 하는 분분한 토론과 의견들이 제기되였던것입니다.

그러나 누구도 이 문제에 대한 명백한 대답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어버이수령님께서 그 모든것을 명백히 밝혀주시였으니 그때 저의 기쁨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어버이수령님께서는 저희들이 밤을 거듭하는 론쟁속에서도 찾지 못하던 문제들을 하나하나 명철하게 가르쳐주시면서 문학의 사명과 잡지의 성격 그리고 문예작품창작의 방향과 방도에서부터 편집, 출판, 배포에 이르기까지 모든 문제들을 명확히 밝혀주시였던것입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이처럼 우리의 혁명적문예출판물이 지니고있는 당정책의 선전자, 옹호자로서의 임무와 근로대중을 새 조국 건설에로 불러일으켜야 할 우리 당의 사상적무기로서의 영예로운 사명을 깨우쳐주시면서 작가, 예술인들의 자질을 높여주어 그들의 사상생활과 창조활동에서 결정적인 전환을 가져올데 대하여 구체적으로 밝혀주시였습니다.

어버이수령님께서는 작가들이란 감정이 예민하고 새것에 대하여 민감하고 지식에 대한 욕망이 큰만큼 그들에게 교양사업을 잘하면 빨리 발전할수 있을것이라고 가르치시면서 작가, 예술인들이 창조사업에서 지켜야 할 원칙적문제들을 밝혀주시였습니다.

저는 위대한 수령님의 뜻을 받들어 문학예술사업을 옳게 해나가지 못한 자책감으로 하여 머리가 깊이 숙어졌습니다.

책을 보시며 어버이수령님께서 심려하신것은 바로 《문화전선》 창간호가 우리 당 정책의 위대성과 정당성을 확증하며 그 관철에로 근로대중을 불러일으켜야 할 기본사명으로부터 아직 먼거리에 있은 바로 그점이였던것입니다.

그것은 이 잡지의 창간호가 가지고있는 기본결함인 동시에 이 부문사업을 맡아보고있는 저희들의 사업의 본질적인 약점이였던것입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문학예술부문사업을 지도한다는 우리 일군들과 작가들은 우리 문학을 당적이며 로동계급적인 문학으로 발전시키시려는 위대한 수령님의 높은 뜻을 깊이 체득하지 못한탓으로 하여 한편의 글을 쓰고 한권의 책을 내놓아도 그것이 혁명의 요구에 맞게 창작되여야 한다는 자각을 가지지 못했던것입니다.

문예작품을 통하여 우리 당 정책을 독자들에게 알려주는데 중점을 두고 편집하여야 하며 잡지의 내용과 형식을 발전시켜나갈수 있도록 당에서 방조를 주어야 한다고 하신 어버이수령님의 가르치심은 온갖 낡은 잡사상을 배격하고 우리의 문예작품들에 철저히 당성, 로동계급성, 인민성을 구현해나갈수 있는 확고한 길을 밝혀주신 참으로 현명한 방침이였던것입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감격과 흥분에 휩싸여있는 저를 미소어린 눈길로 지켜보시다가 또다시 크나큰 배려를 돌려주시는것이였습니다.

어버이수령님께서는 앞으로 잡지의 부수와 페지수

도 늘이고 책장정도 잘해서 인민들의 관심이 높도록 만들어야 하겠다고 하시면서 그렇게 하자면 이에 대한 연구가 있어야 한다고 일깨워주시였습니다. 계속하여 그이께서는 앞으로 잡지만 내지 말고 소설, 시집 등 단행본들도 출판하도록 하는것이 좋겠다고 말씀하시였습니다.

그때까지 저희들은 첫 잡지를 내놓았다는 안도감에 젖어있었고 기껏 생각한다는것이 다음호의 편집을 준비해야 하겠다는 생각뿐 출판사업을 폭넓게 전개해나갈데 대해서는 감히 엄두도 내지 못하고있었던것입니다.

당시 우리 나라 경제형편은 매우 어려웠으므로 소설집과 시집을 출판한다는것은 용이한 일이 아니였습니다.

그러나 어버이수령님께서는 문학예술발전에서 없어서는 안될 출판사업에 거대한 의의를 부여하시고 이 사업을 새 조국 건설의 한부문으로 떠밀어주시고 이끌어주시는것이였습니다.

어버이수령님께서는 잡지 《문화전선》을 손에 드시고 표지로부터 내용편집에 이르기까지 다시한번 유심히 훑어보시며 생각 깊으신 음성으로 말씀하시였습니다.

《그런데 처음 나온 잡지를 보니 그들에게 무슨 애로가 있는것 같습니다.》

저는 너그러우신 그이 앞에서 스스러움을 잊고

《문화전선》 편집과 출판사업에서 걸리고있던 문제들과 앞으로 단행본들을 출판하자면 경제적으로도 어려운 점들이 있다는것까지 솔직하게 보고드렸습니다. 사실 그때 모든 일을 처음으로 시작하자니 걸리는 문제들이 적지 않았습니다. 경험있는 편집일군들도 부족했고 인쇄도 개인업자의 손을 거쳐 실현되였던만큼 많은 대금을 지불하여야 하였습니다.

어버이수령님께서는 저의 보고를 주의깊이 들으시고나서 문화전선사가 갓 나온것만큼 경제적으로 곤난이 있을것은 사실이라고 하시면서 왜 진작 그런 문제를 이야기하지 않았는가고 말씀하시였습니다.

저는 그이께 아무 말씀도 올리지 못한채 몸둘바를 모르고 서있었습니다.

새 조국건설의 중하를 한몸에 지니시고 분망한 나날을 보내시는 어버이수령님께 이런 문제까지 보고드리기를 주저했던것인데 오히려 그이께 더 큰 심려를 끼쳐드린것만 같아 마음을 진정시킬수가 없었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저의 이런 심정을 헤아리시는듯 잠시 말씀이 없으시다가 힘있는 음성으로 《문화전선사에 경제적으로 방조를 주는것이 좋겠습니다.》라고 말씀하시였습니다.

그이께서는 우선 당에서 도움을 주도록 하자고 하신후 이어 인민위원회 재정국에 말해서 문화전선사의 토대가 잡힐 때까지 경제적으로 방조를 주도록 조치를 취해놓는것이 좋겠다는 크나큰 배려의 말씀을 주시였

습니다. 그러시면서 그이께서는 문화전선사동무들이 사업에서 열정과 의욕을 높이며 약간의 곤난이 있더라도 강의한 의지로 극복해나가도록 교양사업을 하는것이 꼭 필요하다고 하시며 당시 우리 나라 경제형편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려주시였습니다.

어버이수령님께서는 해방된지 얼마 안되고 또 일제가 다 파괴한 공장들과 황폐화된 농촌을 물려받은 조건하에서 우리 인민들의 생활도 넉넉치 못하고 국가살림살이도 어려운것만은 사실이며 특히 미제의 남조선강점으로 조국이 량단된 조건하에서 우리의 경제발전에 큰 지장을 받고있다고 강조하시였습니다.

그렇기때문에 문화건설사업에서도 많은 곤난이 있다는것을 말씀하시면서 당면하게 제기되고있는 이런 모든 곤난을 투쟁으로 극복하고 우리의 민주주의적민족문화건설을 위하여 모든 정열을 다바쳐 투쟁하여야 한다고 간곡하게 가르치시였습니다.

저는 장군님의 가르치심을 받아안을수록 그이의 높으신 뜻대로 일하지 못하고있는 자신을 뼈저리게 뉘우치지 않을수 없었습니다.

제기된 문제들을 자기 힘으로 풀기 위해 아글타글 애쓰며 혁명적으로 투쟁해나갈 대신 모든 문제를 나라에만 의탁하고 해결될 때를 기다리는 식으로 일해왔던것입니다.

잠시 말씀을 끊으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자리에서 일어서시여 천천히 창가로 다가가시였습니다.

그이께서는 깊은 생각에 잠기시여 새생활창조의 힘찬 첫걸음을 내딛고있는 거리에 눈길을 주셨다가 다시 걸음을 옮기시였습니다. 위대한 수령님의 안광에는 깊은 감회가 어리시였습니다.

이윽고 그이께서는 간고한 항일혁명투쟁의 불길속에서 몸소 문예활동을 벌리시는 한편 혁명적출판물들을 내시던 그때를 감회깊이 회상하시였습니다.

어버이수령님께서는 그전에 우리가 항일무장투쟁을 진행할 때에는 작가도 작곡가도 없었지만 모두가 힘을 합쳐서 집체적노력으로 신문도 내고 선전문도 쓰고 각본도 쓰고 노래도 지었다고 말씀하시였습니다. 그이께서는 또한 그때에는 종이도 없었고 등사판도 등사잉크도 없어서 피나무껍질 등을 태워서 등사먹 대신으로 쓰기도 하고 여러가지 방법으로 출판사업을 보장하였는데 그것도 설한풍이 불고 키넘는 눈속에서 원쑤와 싸우면서 하였다고 말씀하시는것이였습니다. 이어 그이께서는 그렇게 만든 신문과 선전문들이 왜놈들을 때려부시고 인민들을 혁명투쟁에로 불러일으키는데서 얼마나 큰 위력을 발휘했는지 모른다고 말씀하시였고 글이란 잘 쓰면 참으로 위력이 있는것이라고 하시면서 그것은 대포나 폭탄보다도 더 큰 위력을 가지고있다고 가르쳐주시였습니다.

이 얼마나 심장을 격동시키는 말씀입니까!

이렇듯 우리의 혁명적문학예술과 출판물의 빛나는 전통을 마련할수 있은것은 오로지 혁명의

위대한 수령이시며 백전백승의 강철의 령장이신 **김일성**장군님께서 몸소 혁명의 필봉을 높이 드시고 불후의 고전적명작들을 집필하시는 한편 혁명적출판물 《3.1월간》을 비롯한 수많은 출판물발행사업을 현명하게 조직지도하시였기때문입니다.

진정 한 대원이 쓴 원고를 지도하시는것으로부터 아동단원들의 연예활동을 보살펴주시는데 이르기까지 실로 혁명적문예활동과 출판사업에 기울여오신 그이의 심혈과 로고에 대하여 무슨 말로 다 이야기할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창작출판된 책과 신문잡지들은 조선인민혁명군대원들과 인민들을 일제를 격멸소탕하는 혁명투쟁에로 힘있게 불러일으켰던것입니다.

일찌기 인류전쟁사에 있어보지 못한 간고하고도 장구한 항일혁명투쟁의 나날 나라와 민족의 운명을 판가리하는 가렬처절한 싸움속에서 친히 혁명적문예활동과 출판물발행사업을 조직지도하신 위대한 수령님!

광복된 이 땅우에 진정한 인민의 나라, 새 조선을 일떠세우시기 위하여 하나에서부터 열까지 모든것을 새롭게 창조하고 새롭게 건설해야 하는 어렵고 복잡한 건국의 나날에 간고분투,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으로 인민을 불러일으키시며 《무》에서 《유》를 창조해나가시는 위대한 수령님!

겹쌓인 난관을 한몸으로 헤쳐나가시며 우리 혁명의 뿌리를 마련하시고 인민의 해방을 안아오신

어버이수령님 앞에서 저는 진정 머리를 들수가 없었습니다.

물론 해방후 빈터우에서 우리 힘으로 혁명적 문예잡지를 내고 문예도서를 출판하자니 곤난한 사정이 한두가지가 아니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항일혁명투쟁시기의 그처럼 간고한 환경에 비해볼 때 난관으로 될수도 없는 문제들이였습니다.

문제는 저를 비롯한 이 부문 일군들에게 혁명적 열정과 의지가 부족한데 있었으며 시대와 혁명의 요구에 맞게 일을 해나가는 혁명가적기풍이 없는탓이였습니다.

저는 바쁘신 낮과 밤을 이어가시는 어버이수령님께 기쁨을 드리지는 못할망정 이렇게 심려만을 끼쳐드린 자책감으로 하여 가슴이 터지는듯하였고 눈앞이 그냥 흐려져서 얼굴을 들수가 없었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이어 저에게 힘을 주시며 곤난이란 투쟁으로 극복해야 한다고 하시면서 앞으로 우리의 사업과 생활에서 지침으로 삼아야 할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는것이였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투쟁이 없는곳에 승리가 저절로 오지 않는 법이라고 하시며 승리는 투쟁으로 쟁취해야 한다는 귀중한 말씀을 주시면서 작가동무들에게 혁명적투지를 길러주어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완강하게 투쟁하는 투사가 되도록 항상 교양하고 고무해줄데 대하여 가르쳐주시였습니다.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완강하게 싸우는 투사!

이 얼마나 고귀한 칭호이며 높은 신임입니까! 그 언제 우리 작가, 예술인들이 문화전선의 투사로 불리운적이 있었습니까.

이 영예, 이 행복은 오로지 우리 작가, 예술인들을 귀중히 여기시며 자애로운 한품에 안아주시는 어버이수령님의 은혜로운 손길아래서만 차례질수 있었습니다.

어버이수령님께서 밝혀주신 문학예술사업에 대한 당적령도를 강화할데 대한 사상과 작가, 예술인 부대를 우리 당 사상전선의 투사들로 키울데 대한 현명한 방침으로 하여 혁명적문학예술의 앞길은 보다 휘황하게 펼쳐지게 되였던것입니다.

(그이께서 펼쳐주신 이 길을 따라 문화전선의 투사—작가, 예술인 부대는 힘차게 전진할것이며 그 길우에 혁명적문학예술은 아름답게 꽃펴나리라!)

저는 위대한 수령님의 강령적인 가르치심을 마음속에 다시금 깊이 새기며 꼭 그이의 높으신 뜻을 받들어 사업해나갈 새로운 결의를 다지면서 어버이장군님의 위대한 모습을 경건한 마음으로 우러렀습니다.

다음날이였습니다.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를 전달받은 문화전선사 일군들을 비롯한 전체 작가, 예술인들은 또다시 커다란 감격과 흥분에 휩싸여 뜨거운 눈물을 금치 못하였습니다.

어버이수령님께서는 문화전선사에 대한 방조문제를 친히 재정국에 위임하시고도 마음놓이시지 않으시여 문화전선사 구좌에 10만원을 등기로 보내주도록 하시는 크나큰 배려를 베풀어주셨던것입니다.

10만원! 그것은 당시 형편에서 눈물 없이는 받을수 없는 귀중한 자금이였습니다.

새 조국 건설을 위한 초소마다에서 막대한 재정이 요구되고 인민생활도 아직은 어려운 점이 많아 푼전을 쪼개여쓰던 그 시기에 친히 혁명적문학예술출판기지를 튼튼히 꾸려주시고 우리 인민들에게 더 많은 책을 보내주시려고 돌려주신 어버이수령님의 그 사랑, 그 은정을 두고 저는 북받치는 격정을 누를길 없었습니다. 이 격동적인 소식에 접한 모든 일군들과 작가, 예술인들은 뜨겁게 눈굽을 적시며 《**김일성**장군님 만세!》를 목메여 불렀고 다함없는 감사와 충성의 맹세로 가슴을 불태웠습니다.

그들모두는 위대한 수령님의 크나큰 정치적신임과 끝없는 배려에 보답하기 위하여 새 조국 건설과 혁명적문학예술건설에 한몸 바칠 결의를 다지고 또 다지였던것입니다.

그날 저녁, 저는 다함없는 감사와 열화같은 충성심으로 불타는 문화전선사 일군들과 우리 작가, 예술인들의 한결같은 마음을 담아 또다시 어버이수령님을 찾아뵙고 그들의 새로운 결의를 보고드렸습니다.

어버이수령님께서는 저의 보고를 들으시고 매우

만족해하시였습니다.

이날 어버이수령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그것이 얼마 되지 않는 돈이지만 우선 단행본을 출판하는데 쓰도록 하라고 하시였습니다.

그리고 그이께서는 앞으로 국가에서 좀 더 방조를 주도록 하시겠다는 가슴뜨거운 말씀을 주시였으며 작가들과 출판일군들의 사업에서 새로운 성과가 있을것을 바란다고 고무의 말씀까지 주시였습니다.

어버이수령님의 이 말씀을 전달받은 작가, 예술인들은 더욱 기세충천하여 눈부신 창작전투를 벌렸고 출판일군들도 밤을 밝혀가며 수많은 문예서적을 편집하는 길에 들어섰습니다.

위대한 사랑은 크나큰 결실을 가져오기마련입니다.

은혜로운 해발이 무수한 싹들을 움틔워주듯이 어버이수령님의 탁월한 령도와 위대한 사랑은 문화의 터전우에 빛발이 되고 자양이 되여 마침내 혁명적문학예술작품들이 수많이 창작되여 인민들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하여 다음해인 1947년 한해만 하여도 수십편의 단행본들을 출판하여 세상에 내놓을수 있게 되였으며 잡지 《문화전선》도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대로 형식과 내용이 발전되여 그 질이 한계단 더 높아졌으며 제기일내에 출판되여 독자들속에서 애독되였습니다.

이렇듯 장엄한 걸음을 내디딘 우리 혁명적문학예

술출판사업은 그후에도 위대한 수령님의 끊임없는 배려속에 날을 따라 발전하였습니다.

가렬처절한 지난 조국해방전쟁시기에도 우리의 혁명적문예출판물 발행은 중단되지 않았을뿐아니라 그 종류와 부수에서 평화적건설시기보다 오히려 몇배나 더 많았다는 사실 하나만 가지고도 어버이수령님께서 혁명적문예출판물발행사업에 얼마나 크나큰 배려를 돌려주시였는가를 가슴뜨겁게 돌이켜보게 됩니다.

물론 전후복구건설시기를 거쳐 오늘에 이르기까지 어버이수령님의 크나큰 관심과 배려 속에 우리의 혁명적문예출판물이 끊임없이 발전하여온것은 두말할것도 없습니다.

이 혁명적문예출판물은 혁명의 매 시기 매 단계마다 근로자들을 당의 로선과 정책 관철에로 힘있게 불러일으켰으며 혁명투쟁의 무기, 생활의 교과서로 자기의 영예로운 사명을 빛나게 수행하였습니다.

잡지 《문화전선》이 발행된 때로부터 어언 30여년이 흘렀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과 당의 령도밑에 위력한 혁명적문예출판물발행의 거점인 문예출판사에서는 오늘 《조선문학》, 《조선예술》, 《천리마》, 《청년문학》, 《아동문학》 《영화문학》 등 수많은 잡지들이 발행되고있으며 총서 《불멸의 력사》를 비롯한 장편소설들과 중편소설들, 단편소설집, 시집들, 혁명가극의 총보들과 혁명적인 노래집 등 수많은 문예도서들이 출판되여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위업에 힘있게 이바지하고있습니다.

실로 우리의 모든 혁명적문예출판물들 치고 위대한 수령님과 당의 크나큰 사랑과 은덕이 깃들어있지 않는것이란 하나도 없습니다.

하기에 우리의 전체 작가, 예술인들과 문예부문편집일군들은 언제나 위대한 수령님과 당의 그 사랑, 그 은덕을 가슴깊이 간직하고 주체적문학예술건설의 투사로서 대를 이어 위대한 수령님께와 당에 충성을 다 바쳐나아가야 할것입니다.

연극 《백두산》 창조의 나날을 돌이켜보며

국립연극단

옛날부터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고 하였다. 세월의 흐름과 함께 한때 젊었던 사람들은 늙은이로 되고 가슴을 격동시키던 수많은 추억들도 점차 기억에서 사라져가기마련이다.

그러나 우리들의 가슴속에는 영원토록 잊지 못할 어버이수령님의 은정에 대한 이야기가 간직되여있다. 바로 그것은 우리 연극사에서 빛나는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연극 《백두산》이 세상에 태여나던 때의 이야기이다.

해방의 구성이시며 절세의 애국자이신 **김일성**장군님께서 일제를 무찌르시고 조국에 개선하심으로써 우리 나라는 자유와 독립의 새날을 맞았다.

민족의 태양이신 **김일성**장군님의 손길따라 새 조국건설에 일떠선 우리 인민의 열정은 불도가니처럼 들끓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토지개혁을 비롯한 제반 민

주개혁을 실시하심으로써 새 민주조선 건설의 튼튼한 터전을 마련하여주시였다.

조선에서 쫓겨가면서 우리 나라의 산업과 운수는 모두 마비될것이라고 떠벌였던 일제의 망발도, 조선은 자치할 능력이 없으므로 국제적후견을 받아야 한다던 미제의 궤변도 우리 인민은 첫 인민경제계획수행의 불길속에 여지없이 불태워버렸다.

바로 그것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우리 인민에게 안겨주신 무궁무진한 힘의 시위였으며 새생활을 창조해나가는 끝없는 기쁨의 노래였다. 공장에 가도 농촌에 가도 절세의 애국자이신 장군님에 대한 한없는 감사와 영명하신 수령님을 우러러모시고 살게 된 한량없는 행복으로 설레였다.

우리 예술인들이 공연활동을 벌리기 위하여 찾아간 모든곳에서 사람들은 자기들을 공장과 땅의 주인으로 내세워주신 위대한 수령님의 은덕을 노래하여줄것을 절절하게 요구하였다.

이처럼 감격과 환희의 벅찬 시대는 우리 작가, 예술인들에게 실로 무겁고도 책임적인 과제를 지워주었다. 그것은 바로 민족의 위대한 태양이신 **김일성**장군님을 만대에 길이 칭송하며 우러러모시려는 우리 인민의 간절한 열망을 문학예술작품에 실현하는 것이였다.

드디여 불멸의 혁명송가 《**김일성**장군의 노래》가 온 세상에 울려퍼졌다. 곧 뒤를 이어 영광스러운 항일

혁명투쟁을 승리에로 이끄시여 조국광복의 위업을 이룩하신 절세의 애국자이시며 민족적영웅이시며 강철의 령장이신 **김일성**장군님의 영광찬란한 혁명투쟁력사를 반영한 서사시 《백두산》도 태여났다.

이런 시기에 우리 연극예술인들은 력사가 지워준 이 과제를 실현하기 위하여 서사시 《백두산》을 연극으로 옮기기 위한 사업에 착수하였다.

그러나 우리들은 첫걸음부터 난관에 봉착하였다. 그처럼 거창하고 영웅적인 화폭을 연극에 담는다는것은 우리들에게 있어서 너무나도 아름찬 일이였기때문이다.

사실 그 당시 우리 극장성원들의 준비는 매우 미약하였다. 온전한 연극예술리론을 소유하지 못하였고 가진것이 있다면 기껏해야 《신파극》이나 만들던 낡은 극작술뿐이였다.

배우들 역시 옛날 《흥행극단》을 따라다니거나 무성영화의 변사노릇을 하던 사람들이였으므로 예술적기량이 매우 낮은 형편이였다. 또한 무대기술설비들도 말하기 어려울 정도로 락후하였다.

이런 형편에서 서사시 《백두산》을 무대우에 제대로 형상해낼수 있으리라고는 그 누구도 장담하지 못하였다.

우리 창조성원들은 연극 《백두산》의 창조문제를 놓고 매일같이 론쟁을 거듭했지만 서로 주관적인 견해만을 고집했을뿐 해결방도를 찾지 못한채 날을 보내고

있었다.

그러던 1948년 3월 초순 어느날, 당중앙위원회의 한 일군이 우리들을 찾아왔다. 그 일군은 **김일성**장군님께서 연극창조성원들을 부르신다는 뜻밖의 놀라운 소식을 전해주었다.

그 순간 우리들의 가슴속에서는 격정이 솟구쳐올랐다. 백두산에 높이 솟은 장군별에 대한 전설이 생겨난 그때로부터 온 겨레가 그처럼 우러르던 위대한 장군님을 한번만이라도 뵈옵게 되였으면 하는것이 우리모두의 열렬한 희망이였던것이다.

일찌기 항일혁명투쟁의 불길속에서 우리 연극의 고귀한 혁명전통을 세워주신 어버이수령님께서는 해방후 연극예술의 발전에 깊은 관심을 기울이시였다.

우리 연극인들을 한품에 안으시여 새조선의 문학예술인대오에 떳떳이 내세워주시는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이번엔 우리모두를 몸가까이 불러주시였으니 그 믿음 그 사랑에 우리 어찌 감격하지 않을수 있었겠는가.

우리들은 한없이 설레이는 가슴을 안고 당중앙위원회청사로 향하였다.

우리들이 청사 2층 동쪽에 있는 방으로 들어섰을때였다.

《어서들 오십시오.》

어버이수령님께서는 만면에 환하신 웃음을 담으시고 우리들앞으로 걸어나오시였다.

《몹시 바쁠텐데 이렇게 오느라고 수고들 했습니다.》

그이께서는 우리들의 손을 하나하나 따뜻하게 잡아주시였다.

우리들이 너무도 감격하여 어쩔줄을 모르고 서있는것을 보신 장군님께서는 몸소 의자를 놓아주시며 손목을 잡아 앉혀주시기도 하시였다.

어버이수령님께서는 우리들이 모두 자리에 앉은 다음에야 친근하신 음성으로 이렇게 말씀하시였다.

《동무들이 지금 만들고있는 연극의 내용을 들어보려고 오라고 했습니다.》

그때야 비로소 우리들은 그이께서 이렇게 불러주신 까닭을 알아차렸다.

그이께서는 우리들의 연극창조사업을 념려하시여 그처럼 귀중한 시간을 내신것이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자애깊은 사랑을 한몸에 받아안은 우리들은 또다시 뜨거운 격정에 휩싸였다.

이때 서사시 《백두산》의 작자인 조기천동무가 몹시 흥분하여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는 격동된 목소리로 시랑송까지 하면서 연극의 줄거리를 그이께 말씀올리기 시작하였다.

그이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시여 방안을 조용히 거니시기도 하시고 잠시 걸음을 멈추시고 깊은 생각에 잠기시기도 하시며 작품의 줄거리를 주의깊이 들어주시였다.

시간은 퍼그나 흘렀다.

이윽고 작품의 줄거리를 마지막까지 말씀올린 조기천동무는 땀을 닦으며 자리에 앉았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너그러우신 웃음을 띠우시며 그만하면 이야기가 되겠다고 말씀하시였다.

그러신후 그이께서는 창문너머 먼 하늘로 시선을 옮기시였다. 그이께서는 한자루의 무기를 얻으려고 목숨까지 바쳐야 했던 간고한 투쟁으로부터 시작하여 갈수록 막아서는 곤난을 넘고헤치며 혁명승리를 확대해나가시던 이야기를 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말씀하시였다.

그때 조선녀성들이 빨찌산을 지원하여 이불을 뜯어서 군복과 버선, 장갑 등을 지어 보내주었습니다. 이와 같은 내용을 더 넣는것이 좋겠습니다.

우리들의 가슴은 창작적인 흥분으로 세차게 높뛰였다. 눈앞에는 눈보라 휘몰아치는 혈전장, 항일혁명투쟁의 간고한 나날들이 현실로 펼쳐지는것이였다. 필승의 신념을 안고 싸우는 조선인민혁명군대원들, 일제군경놈들과 밀정의 살벌한 경계망을 뚫고 지원물자를 지고 조선인민혁명군을 찾아온 인민들의 군상이 화폭처럼 안겨오기도 하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말씀을 가슴깊이 새겨가는 우리들은 크나큰 감동에 휩싸여있었다. 우리들은 이때까지 항일무장투쟁을 예술작품에 반영하기 위해서는 《축지

법》이나 《변신술》 같은 전설적인 이야기를 기본으로 엮어나가야 한다고 생각하고있었던것이다.

실로 위대한 수령님의 가르치심은 연극이 항일혁명투쟁의 거류속에서 시련을 이겨내며 싸워나가는 조선인민혁명군과 인민들의 생활을 그릴데 대한 형상방도를 밝혀주신것이였다.

생활을 진실하게 그릴데 대한 문제는 사회주의적 사실주의창작방법의 기본요구의 하나였으나 당시 우리 연극인들은 그를 리해하지 못하고있었다.

그때 우리들이 깨닫지 못한 다른 하나의 부족점은 현실을 직선적으로 무대우에 재현시키는것이 사회주의적사실주의창작방법인것처럼 그릇되게 생각함으로써 연극창조에서 자연주의를 범하고있었다.

어느 지방극단에서는 많은 물자를 랑비하면서 필요이상의 공장건물을 무대우에 세워놓고 진짜 선반기를 돌리는가 하면 농촌을 그린 어떤 연극에서는 황소를 세까지 내여다 공연하던 도중 조명에 놀란 황소가 관중석으로 뛰여나가는바람에 소동을 일으키는 웃지 못할 사태를 빚어내기도 하였다.

이처럼 우리들은 수령님의 크나큰 사랑과 믿음에 천만분의 일이라도 보답해드릴 대신 오히려 그이께 심려만을 끼쳐드린 자책감으로 하여 머리를 들수가 없었다.

하건만 경애하는 수령님께서는 우리들을 새조국의 혁명적예술인으로 키워주시려고 그렇듯 귀중한 시간을

내시여 하나하나 일깨워주시는 크나큰 은정을 베풀어주시였다.

정녕 그이는 우리모두를 키워주시는 친어버이이시며 우리 인민들에게 정신문화적재부를 안겨주시기 위하여 문학예술창조사업을 혁명사업의 중요한 한부분으로 보시고 현명하게 이끌어주시는 예술의 영재이시다.

우리들의 가슴은 한없는 행복으로 하여 마냥 부풀어올랐다.

저녁이 가까와와서야 우리들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몸소 복도에까지 나오시여 우리들을 바래주시면서

《신심을 가지고 창조하십시오. 꼭 성공을 바랍니다.》라고 격려의 말씀을 주시였다.

극장으로 걸음을 옮기는 우리들의 가슴은 진정할줄 몰랐다. 그처럼 막막하고 얽혔던 모든 문제들이 일목료연해졌다. 마치 밤길을 헤매다가 드디여 동트는 새벽을 맞은것 같았다.

그날부터 우리들은 창작적인 열정으로 가슴을 불태우며 연극 《백두산》의 창조에 달라붙었다. 위대한 수령님의 가르치심에 기초하여 작품에 반영된 생활들을 다시 깊이 연구하고 항일혁명투사들과 인민들의 투쟁모습을 다양한 개성적형상으로 창조하는데 모든 정열을 쏟아부었다.

우리들은 연극 《백두산》을 우리 당 제2차대회에

드리는 기념공연작품으로 만들자고 결의하였다. 창작가들과 배우들은 침식을 극장으로 옮기고 밤을 새우며 맹렬한 연습을 벌렸다.

우리들은 이때처럼 참된 삶의 보람을 느껴본적은 일찌기 없었다. 연극창조과정을 통하여 우리들의 사상정치적수준과 예술적기량은 놀라리만큼 자라났다.

드디여 연극 《백두산》이 완성단계에 들어서게 되였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 도처에서 민족의 태양이신 **김일성**장군님의 영광스러운 혁명투쟁력사를 반영한 연극 《백두산》의 공연의 막을 열어달라는 불같은 요청도 매일같이 들어왔다. 우리들은 시연회준비를 다그쳤다.

1948년 3월 20일이였다.

이날 뜻밖에도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장군님께서 우리 극장을 찾아오시였다. 그이를 또다시 뵙게 된 우리들의 감격은 세차게 끓어올랐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우리들의 손을 뜨겁게 잡아주시며 수고들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이날 우리들은 장군님께서 연극 《백두산》의 시연회를 보아주셨으면 하는 한결같은 소원을 말씀올렸다. 그이께서는 너그럽게 웃으시며 우리들의 소원을 풀어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관람석 한가운데 놓인 좌석에 허물없이 앉으시며 친히 연극창조성원들을 옆자리에 와앉으라고 불러주시였다.

우리들은 한없이 따사로운 육친의 정을 가슴뜨겁게 느끼며 수령님께서 정하여주신 자리에 앉았다.

드디여 첫시연회의 막이 올랐다.

당시 우리 극장의 무대설비수준은 매우 낮았다. 면막을 수동식으로 움직이였으며 공연전에는 장내가 장치물들을 설치하는 잡음으로 소란하였다. 뿐만아니라 막을 전환하는 시간도 빠르지 못하였다.

그렇지만 어버이수령님께서는 처음부터 매우 흥미있고 심중하신 안색으로 연극의 매 장면들을 보아주시였다.

우리들은 모두 긴장되여있었다. 출연하는 배우들이 대사나 연기에서 실수라도 할가봐 잠시도 마음을 놓을수가 없었다.

밤이 꽤그나 깊어 연극은 끝났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인자하신 미소를 띠우시며 이렇게 말씀하시였다.

《수고들 하였습니다.》

우리들은 수령님께서 연극시연회에 대한 중요한 말씀을 주시리라는 기대를 가지고 그이 앞에 모여서있었다.

그런데 그이께서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서시더니 우리들을 둘러보시며 래일이 일요일이지만 모여서 한번 토의하자고 말씀하시였다.

그이께서는 연극시연회에 대한 말씀은 조금도 주시지 않으시고 극장을 떠나시였다.

우리들은 그만 한자리에 굳어져 오래동안 움직이지 못했다. 그이의 말씀을 받지 못한 우리들은 자연 생각이 깊어졌다.

이튿날이였다.

우리 창조성원들은 위대한 수령님의 부르심을 받고 당중앙위원회청사로 향하였다.

일요일의 거리는 새생활에 대한 기쁨과 희망에 차넘쳤다. 뗑— 뗑— 경종을 울리며 오고가는 전차들, 점포에서 물건을 사는 사람들, 깔깔대며 달려가는 학생들… 어디를 보나 행복한 모습들이였다.

우리들은 총총히 걸음을 옮겼다.

우리들이 수령님께서 계시는 방으로 들어섰을 때였다.

책상을 마주하시고 글을 쓰시던 어버이수령님께서는 우리들을 보시자 만면에 환한 웃음을 띠우시며 자리에서 일어서시였다.

《아, 벌써들 왔구만.》

그이께서는 반가이 맞아주시며 우리들의 손을 따뜻이 잡아주시였다.

우리들은 그만 눈굽이 후더워오르고 머리가 절로 숙어지는것을 어쩔수 없었다. 우리들때문에 위대한 수령님께서 하루의 휴식일마저 편히 쉬시지 못하시는구나 하는 죄스러움이 가슴에 마쳐왔던것이다.

그러나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여전히 너그러우신 웃음을 띠우신채 우리들앞에 의자를 놓아주시기도 하

시고 담배함을 열어 권하시기도 하시였다. 그이께서는 우리들과 마주앉으시며 이렇게 말씀하시였다.

《어제는 밤이 깊어 동무들이 피곤하겠기에 오늘 오라고 한것이니 어제 본 연극에 대하여 이야기합시다.》

이때야 비로소 우리들은 무엇때문에 수령님께서 어제밤 시연회에 대하여 한마디의 말씀도 주시지 않으셨는가를 알게 되였다. 그 순간 우리들은 목이 꽉 메여올랐다.

(수령님! 우리들이 무엇이길래 이처럼 아껴주십니까!)

우리들은 이 세상 그 누구도 받아보지 못한 가장 크고 자애로운 사랑앞에 종시 눈물을 흘리고야말았다. 순간 우리들에게는 천대와 모멸 속에서 짓밟히던 지난날이 떠올랐다. 나라없는 설음과 민족적인 멸시속에 기쁨과 희망을 잃어버린 그 세월이였다. 눈물과 웃음을 팔기 위해 찬비 내리는 거리를 방황하며 관객을 찾던 서글픔, 주린 창자를 부여안고 남의 집 세방에서 눈물로 지새운 밤은 또 얼마나 많았던가. 빚때문에 녀배우가 인질로 끌려갔고 《수지》가 맞지 않아 《극단》이 하루아침에 해산되여 정처없이 떠나던 가련한 인생들이였다. 부자놈들이나 극장주놈의 돈주머니를 불리기 위해 인간과 예술이 롱락당하던 저주로운 사회였다.

이렇게 비참한 처지에서 헤매던 우리들이 오늘은

어떻게 되였는가!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광복된 조국을 안겨주시고 노예살이의 멍에를 벗겨주시여 자기 운명의 주인으로 소생시켜주시였을뿐만아니라 새 조선의 예술인이라는 높은 영예와 긍지를 안겨주시였으니 우리들이 어찌 감격의 눈물을 흘리지 않을수 있었으랴!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자애깊은 시선으로 우리들을 둘러보시며 분에 넘치게도 연극 《백두산》의 서막이 아주 좋으며 연극에서 전투장면을 잘 형상하였다고 치하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이날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교시하시였다.

나는 보천보전투를 앞두고 빨찌산들이 영남이의 죽음을 슬퍼하며 눈물을 흘리는 장면과 조국의 물을 마시면서 이야기하는 감동적인 장면을 보고 많이 생각해보았습니다.

어버이수령님께서는 이날 연극의 부족점에 대하여서도 깨우쳐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말씀하시였다.

보천보전투를 앞두고 적에 대한 적개심에 불타고 있는 투사들의 형상을 더 강하게 보여주는것이 중요합니다.

그이의 가르치심을 받고보니 우리들이 형상한 투사들의 형상은 뜨겁지 못하고 그 성격들이 뚜렷하지 못하였다.

우리들은 지난날 세태륜리적인 작품이나 다루어본 낡은 극작술에 포로되여 위대한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무장투쟁로선이 빛나게 실현된 항일무장투쟁의 력사적 사실들을 심오한 예술적형상으로 창조하지 못했던것이다. 때문에 연극창조에서 중요한 문제인 투사들의 형상창조에서 결함이 많았던것이다.

연극 《백두산》은 응당 위대한 수령님께 무한히 충직하였던 항일혁명투사들의 전형을 생동하고 뜨겁게 창조하여야 할것이였으나 우리는 낡은 극작술에 매달려 희귀한 사실만을 엮어놓으려고 하였기때문에 투사들의 성격과 생활을 진실하게 반영할수 없었던것이다.

뿐만이 아니라 우리들은 연극형식에서도 이전시기 연극예술의 고식적인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있었다. 연극의 장면구성만을 놓고보아도 종래의 낡은 연극의 틀과 도식에 생활을 일률적으로 들여맞추었기때문에 영웅적인 사변으로 가득찬 혁명적인 시대를 도저히 진실하게 반영할수 없었던것이다.

위대한 수령님의 가르치심을 받아안을수록 우리들은 자신들의 정치실무적자질과 미학정서적수준이 얼마나 낮은가를 다시금 통절하게 느끼였으며 새로운 창조적열의로 가슴이 불타올랐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장시간에 걸쳐 우리들에게 밝혀주신 연극예술창조의 원칙과 방도들은 오랜 력사를 가진 연극예술이 지금까지 알지 못하던 새롭고도 독창

적인 리론실천적인 문제들이였다. 진정 그이는 비범한 예지와 창조력을 지니신 위대한 예술의 영재이시다.

돌이켜보면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간고한 항일혁명투쟁의 나날 숙영지의 우등불가에서 밤을 지새워가시며 불후의 고전적명작들을 몸소 창작하시고 그 창조과정을 지도하시여 혁명연극의 빛나는 전통을 이룩하시였다. 바로 이것은 연극 《백두산》이 이어받아야 할 귀중한 재부였으며 그 길우에 우리 연극예술의 휘황한 미래가 있었다.

우리들의 가슴은 항일혁명투쟁의 불길속에서 혁명연극의 빛나는 전통을 이룩하신 위대한 수령님을 모시고 이 땅우에 혁명적인 문학예술을 건설해나가게 된 긍지로 하여 한껏 부풀어올랐다.

시간은 감격과 흥분 속에 흘러갔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이날 연극 《백두산》에 대한 구체적인 가르치심을 주시면서 동석한 간부들에게 어제 본 연극에 대한 의견이 있으면 내놓으라고 말씀하시였다.

잠시후 한 일군이 조심히 일어서서 김대장역에 교훈적인 대사가 좀 더 많았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말씀올렸다.

우리들은 그것이 아주 정당한 의견이라고 생각하였다. 사실 연극에 모신 장군님의 형상은 동서고금의 그 어떤 위인들에게도 비기지 못할 가장 위대하신분으로 최상의 높이에서 숭엄하게 모셔져야 한다는것을 우

리는 알고있었으나 작품에서 실지 어떻게 형상해야 할 것인지 여러모로 모색하고있었던것이다.

그러나 어버이수령님께서는 가볍게 웃으시며 김대장의 역에서는 대사가 적은것이 아주 좋다고 말씀하시였다.

그이께서는 이어 우리들을 둘러보시면서 김대장의 형상에 대해서는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다고 하시며 너그러이 웃으시였다.

우리들은 그만 눈굽이 뜨거워졌다. 우리들에게 아무리 비범한 재간이 있었다 해도 조국광복의 력사적위업을 이룩하신 위대한 수령님의 그 불멸의 업적을 천만분의 일도 연극에 반영하지 못한것은 너무도 명백한 사실이였다. 그러나 수령님께서는 력사와 시대 앞에, 조국과 인민 앞에 이룩하신 그 모든 불멸의 업적을 인민들에게 돌려주시니 한없이 고결하신 그이의 풍모앞에 어찌 우리들이 감격하지 않을수 있었겠는가!

어느덧 우리들에게는 언제나 대원들과 함께 고락을 같이하시며 검소하게 생활하시는 장군님의 영상이 우렷이 떠올랐다.

인민에 대한 가장 아름답고 숭고한 사랑을 지니신 장군님이시기에 협산준령을 주름잡으시며 원쑤의 머리우에 불벼락을 내리신것이 아닌가! 위대한 수령 **김일성**장군님의 한없이 고결한 풍모! 바로 이것이 연극 《백두산》에 모실·인민의 수령으로서의 김대장의 형상적기초가 아니겠는가!

마침내 우리들은 연극 《백두산》을 사상예술적으로 우수한 작품으로 창조할수 있는 기본열쇠를 찾은 커다란 기쁨과 창작적흥분에 휩싸였다.

이제는 시간이 퍽그나 흘러갔지만 수령님께서는 앞으로 연극을 공연할 장소문제까지 말씀하여주시고나서 부드러우신 음성으로 이렇게 물으시였다.

《동무들에게 애로되는 일은 없습니까?》

우리들은 어떻게 대답을 올렸으면 좋을지 몰라 당황하였다. 사실 우리들에게는 걸리고있는 문제들이 한두가지가 아니였다. 그러나 우리들은 수령님께 심려를 끼쳐드려서는 안된다는 생각으로 아무런 애로도 없다고 말씀올렸다.

그러자 어버이수령님께서는 인자하신 음성으로 애로되는것이 있으면 서슴없이 제기하라고 거듭 말씀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따뜻하고 친근하신 물으심에 그만 어려움을 잊고 한 동무가 자리에서 일어나 극장무대를 좀 넓혔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조심히 말씀올렸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동석한 일군들을 둘러보시며

《이 동무들의 요구를 모두 해결해줍시다. 우리가 이 동무들을 위해서 무엇을 아끼겠습니까.》라고 힘주어 말씀하시면서 해당부문일군들에게 필요한 지시를 주시는것이였다.

우리들은 그만 수령님의 크나큰 믿음과 사랑에 목이 메여올랐다. 위대한 수령님의 은혜로운 품에 안겨사는 끝없는 행복과 긍지를 온 세상에 소리쳐 웨치고싶은 충동이 솟구쳐올랐다.

이날 그이께서는 우리들의 생활바문제에 이르기까지 세심하게 보살펴주시였으며 자그마한 애로도 모두 즉석에서 풀어주시는 은정을 베풀어주시였다.

어느덧 창밖에는 어둠이 깃들기 시작하였다. 그때에야 우리들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수령님께서는 몸소 정문밖까지 나오시여 우리들의 손을 뜨겁게 잡아주시며 바래여주시였다.

우리들은 환희와 행복에 넘쳐 극장으로 향했다. 눈앞이 환히 열리였고 마음도 키도 훨씬 커진것만 같았다.

이튿날이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당과 국가 사업의 중요직책을 맡고있는 김책동지를 우리 극장에 파견하시여 무대확장공사문제를 구체적으로 토론하도록 하여주시였다.

그러던 어느날 우리들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보내주시는 14만원의 무대확장공사비를 받아안게 되였다.

《**김일성**장군님 만세!》

우리들이 목청껏 웨치는 감격의 환호성은 오래도록 울려퍼졌다. 이처럼 어버이수령님께서는 나라사정이 어려웠지만 우리 연극예술의 찬란한 발전을 위하여

귀중한 자금을 돌려주시였던것이다. 그것은 단순한 공사비가 아니였다. 바로 거기에는 새 조국 건설에 떨쳐나선 우리 인민들에게 사상정신적인 재부를 안겨주시려는 어버이수령님의 높은 뜻이 깃들어있었다.

그러던 어느날 우리들은 또다시 커다란 경사를 맞이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우리들의 예술활동을 념려하시여 새 자동차를 보내주신것이였다.

우리들은 아직 라크냄새가 그대로 풍기는 새 화물자동차를 쓸어보며 밤새도록 헤여질줄 몰랐다. 머리우에는 별들이 반짝이는 밤하늘이 끝없이 펼쳐져있었다.

그날부터 우리들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베풀어주신 그 사랑, 그 은정을 가슴에 안고 연극 《백두산》의 매 장면들을 다듬고 거듭 보충하면서 창조의 열정으로 밤을 밝히고 새날을 맞았다.

그러던 1948년 3월말 평양에서는 전체 조선인민의 커다란 관심과 기대 속에서 우리 당 제2차대회가 열렸다.

이때 우리들은 위대한 수령님을 모시고 당대회를 경축하는 연극 《백두산》의 첫공연의 막을 올렸다.

온 나라 방방곡곡에서 모여온 당대회참가자들은 연극 《백두산》이 거둔 사상예술적인 성과를 열광적으로 환영하여주었다.

공연이 끝났을 때 한 일군이 흥분하여 무대로 뛰

여올라와 우리들에게 위대한 수령님께서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하신 교시를 전달하였다.

연극 《백두산》은 잘된 작품입니다. 특히 이 연극은 조선사람들은 죽지 않고 살아있으며 제국주의와 싸우면 승리할수 있다는 신념을 북돋아주는 혁명의 서광을 잘 보여주었습니다.

그 순간 우리들은 눈앞이 갑자기 뿌옇게 흐려지며 뜨거운것이 두볼로 흘러내렸다.

성과작입니다. 동무들이 수고했습니다. 연극 《백두산》을 많이 공연하여 인민들에게 혁명적교양을 주는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방공연도 많이 조직하시오. 모든 동무들에게 수고를 많이 했다고 인사를 전해주십시오.

우리들은 약속이나 한듯 일시에 끓어넘치는 감격의 환호성을 올렸다.

《**김일성**장군님 만세!… 만세!》

(아, 장군님! 장군님께서는 저희들에게 창작적환상의 나래를 달아주시고, 가슴마다 창조의 씨앗을 심어주시더니 오늘은 은혜로운 해빛으로 키워주신 사랑의 열매를 모두 우리들에게 돌려주십니까!)

너무도 행복에 겨워, 감사에 겨워 우리들은 종시 어깨를 떨며 흐느끼고야말았다…

이렇게 하여 광복의 해빛 찬란한 새 조국땅우에 연극 《백두산》이 태여났다.

그후 우리들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주신 교시를 높

이 받들고 연극의 사상예술성을 더욱더 높은 경지에로 다듬어나가면서 중앙공연을 비롯하여 지방 순회공연도 활발하게 전개하였다. 이르는곳마다에서 연극 《백두산》은 인민들의 열렬한 환영과 절찬을 받았다. 이리하여 연극 《백두산》은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을 창시하시고 20여성상 항일혁명투쟁으로 조국과 민족을 구원하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혁명력사를 연극작품에 처음으로 반영함으로써 근로대중을 경애하는 수령님에 대한 충실성으로 교양하는데 크게 이바지하였다.

그때로부터 어언 30여년의 세월이 흘러갔다. 보람찬 나날에 우리들이 받아안은 위대한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하자면 끝이 없을것이다.

우리들은 위대한 수령님의 한량없는 사랑과 믿음속에서 혁명적이며 로동계급적인 연극예술을 발전시키기 위하여 모든 노력을 다하였으며 오늘은 영광스러운 당의 은혜로운 해발아래 《성황당》식 혁명연극을 창조함으로써 연극혁명을 승리적으로 수행하는 자랑을 떨쳤다.

우리들은 앞으로도 위대한 수령님과 영광스러운 당의 령도를 따라 주체적이며 혁명적인 연극예술을 꽃피우는 한길에서 자기들의 모든 지혜와 정력을 다바쳐나갈 충성의 결의를 굳게 다지고있다.

사회주의예술의 위력을 온 세계에 시위하는 길에서

윤 시 철

우리 나라 예술단들이 외국방문공연을 성과적으로 끝마치고 돌아온 보도를 들을 때마다 나는 우리의 주체예술을 세계인민들앞에 당당히 내세워주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와 사랑의 력사를 감회깊이 돌이켜보게 된다.

경애하는 수령님께서 조선혁명을 승리의 한길로 이끄시는 반세기동안 우리의 주체적민족문학예술의 발전을 위해 기울여오신 령도와 사랑의 력사를 짧은 글속에 담는다는것은 어려운 일이다.

나는 이 글에서 경애하는 수령님께서 우리의 민족문학예술을 주체적이며 혁명적인 문학예술로 활짝 꽃피워주시기 위하여 돌려주신 현명한 령도와 뜨거운 사랑에 대한 이야기중에서 하나의 사실만을 전하려고 한다.

지금으로부터 20여년전인 1959년 여름 오지리의 수도 윈나에서 열렸던 제7차세계청년학생축전에 참가할 준비사업이 한창 벌어지고있던 때였다.

나는 축전에 참가할 조선청년학생대표단의 부단장사업을 맡은것으로 하여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있었다.

그런데 오지리의 수도 윈나는 구라파에서도 이른바 《음악의 도시》로 알려져있었으며 세계의 이름난 예술인들과 예술애호가들이 모여드는곳이였다.

그 나라의 예술계와 사회계에 우리 나라의 사회주의적민족예술을 리해시키려면 어떤 준비가 있어야 하며 예술종목은 어떻게 편성해야 하겠는가?…

우리들은 한편으로는 공연종목을 선정하여 연습을 진행하면서도 이 문제를 놓고 거듭되는 론의를 벌리고 있었다.

더우기 세계청년학생축전준비위원회에서 각 나라들에 보낸 한 문건에 쟈즈음악도 국제경연종목으로 정하였다는것을 밝힌것으로 하여 론의가 더욱 복잡하게 되였다.

세계청년학생축전준비위원회에서 쟈즈음악을 경연종목으로 정했다 해도 매 나라들에서 어느 종목의 경연에 참가하는가 하는것은 그 나라들이 자유롭게 선택할것이였으므로 의무적인것으로 될수는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잡한 론의가 벌어지게 된것은 당시 문학예술과 청년 사업을 맡아보고있는 일부 일군들이 수

정주의와 사대주의에 물젖어있었기때문이였다.

지금같으면 우리의 민족음악을 서구라파관중들의 취미에 맞추려는 사대주의적관점이 나오지부터 않았을것이며 그런 태도가 나타났다고 해도 그 자리에서 응당한 타격을 받고 더 론의하는 일도 없었을것이다.

그러나 사대주의사상에 물젖은 일부 사람들은 민족음악의 우수한 전통을 적극 살리고 보다 완성시켜나갈 생각보다도 민족적인것을 서구라파관중들의 기호에 맞게 개조해야겠다는 잡생각을 하고있었던것이다.

이렇듯 복잡한 정황속에서 축전기일이 박두하여 경애하는 수령님을 모시고 공연을 하게 되였다.

기억도 새로운 1959년 6월 17일!

그날 나는 두시간나마 걸린 공연이 끝나고 막이 내린 후에도 무대앞을 떠나지 못하였다.

그런데 이때 휴계실에서 한 동무가 바삐 나오며 어버이수령님께서 축전준비성원들을 부르신다고 알려주는것이였다.

나는 흥분된 심정으로 달려갔다.

휴계실에는 문학예술부문의 책임일군들과 축전준비성원들이 다 모여있었다.

경애하는 수령님께서는 이날 공연을 보시고 공연종목들이 잘 째여졌다고 치하하시였다.

나는 그제야 모든것을 깨달을수 있었다.

어버이수령님의 이 말씀은 우리가 오래동안 론의한 문제에 대한 결론이였다.

나는 우리가 우리의 민족음악을 애써 서구라파관중들의 취미에 맞추려 하지 않고 우리의 사회주의현실을 반영하여 새로 창작한 가요와 무용작품들을 공연종목에 넣은것이 잘된 일이라는것을 깨달을수 있었다.

사실 그것은 공연종목선정에서 우리가 지켜야 할 원칙적립장이였으나 그때까지만 하여도 저를 비롯한 일군들이 확고한 주체적립장에 서지 못하였으므로 확신을 못가지고있었던것이다.

어버이수령님께서는 이날 우리에게 확고한 주체적신념을 심어주시였을뿐만아니라 매 공연종목을 하나하나 보아주시면서 잘되고 잘못된 점들을 세부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으로 밝혀주시였다.

그날밤, 나뿐이 아니라 축전준비성원들과 예술인들모두가 경애하는 수령님께서 매 종목을 보시고 주신 가르치심을 어떻게 하면 정확히 관철할것인가 하는 문제를 놓고 토론하며 무대우에서 한밤을 꼬박 새웠다.

며칠후 1959년 7월 1일 아침이였다. 아직 출근도 하기전인데 경애하는 수령님께서 축전에 참가할 전체 성원들을 부르신다는 전달을 가지고 한 동무가 달려왔다.

어버이수령님께서는 저희들이 축전에 참가하기 위하여 출발할수 있는 준비를 다 갖추었다는 보고를 받으시고 친히 만나주시기 위하여 몸가까이 불러주시는 영광을 또다시 안겨주시였던것이다.

아침 9시 정각, 축전준비성원들, 예술부문지도일군들, 젊은 예술인들, 200여명이 내각청사의 3층 소회의실에 모여 금방 자리를 정돈하고 앉은 때였다.

자애로운 어버이수령님께서 환히 웃으시며 우리들앞으로 걸어나오시였다.

순간 장내에는 《만세!》의 환호성이 터져오르고 어버이수령님을 좀 더 가까이에서 뵈오려고 발돋움하는 예술인들의 감격과 흥분으로 설레였다.

경애하는 수령님께서는 예술인들의 손을 하나하나 다정히 잡아주시면서 등을 어루만져주시기도 하시고 이름을 물어주시기도 하시였다. 그러시다가 낯익은 예술인을 알아보시고서는 《동무도 가게 되였구만!》하시며 못내 기뻐하시였다.

당시 예술단성원들중에는 예술계에 금방 들어선 젊은 예술인들과 함께 전국의 로동자, 농민 예술소조원들과 대학생들 속에서 선발되여온 동무들도 적지 않았다. 이 사실을 아신 그이께서는 매우 만족해하시며 그 동무들의 손목을 잡으시고 오래도록 놓지 않으시였다.

이윽고 우리모두는 정중히 자리를 잡고 앉으며 이제 그이께서 하실 말씀을 기다리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좌중을 둘러보시고나서 이렇게 말씀하시였다.

《이번 세계청년학생축전에 참가할 예술단성원들가운데 로동자, 농민, 학생 청년들이 많다고 하는데 그

것은 매우 좋은 일입니다.

우리의 예술을 옳게 발전시키려면 예술을 대중화하여야 합니다. 예술을 대중화하여 공장과 농촌의 광범한 근로자들이 예술활동에 널리 참가하도록 하여야 우리의 예술을 참다운 인민적예술로 만들수 있고 빨리 발전시킬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그이께서는 인민적예술의 성격과 특성, 인민성을 구현하기 위한 방도에 대하여 밝혀주시였다.

«예술을 인민적인것으로 만든다는것은 인민들의 생활을 진실하게 반영하고 인민들의 사상감정에 맞는 예술로 만든다는것을 의미합니다. 인민들의 생활과 사상 감정을 진실하게 반영한 예술만이 대중의 심금을 울릴수 있으며 사람들을 웃길수도 있고 울릴수도 있습니다. 또한 이런 예술만이 사람들을 새힘과 용기를 가지고 사업에 분발하도록 고무추동할수 있으며 사람들이 자기 사업과 생활을 돌이켜보고 잘못을 스스로 뉘우치도록 자극을 주는 교양적역할을 할수 있습니다.»

경애하는 수령님께서는 이처럼 인민적예술의 기본특성들을 밝히시면서 우리의 예술을 인민들의 생활과 사상 감정에 맞는 인민적예술로 발전시키려면 반드시 대중을 예술활동에 널리 참가시켜야 한다고 거듭 강조하셨다.

«대중의 재능과 지혜를 발동시키면 현실을 생동하게 반영한 좋은 작품이 많이 나올수 있습니다. 물론

공장이나 농촌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이 만든 예술작품은 예술적기교에서 전문가들이 만든것보다 못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중속에서 나온 예술작품은 생활을 진실하고 생동하게 반영하였기때문에 전문예술가들이 좀 손질하면 사상예술성이 높은 훌륭한 작품으로 될수 있습니다.》

경애하는 수령님께서는 7월의 해볕이 뜨겁게 쪼이는데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앉은 무더운 방안에서 왕골로 결은 큰 부채를 한손에 쥐시고도 부치실 생각을 잊으신듯 말씀을 계속하셨다.

나는 이 순간 그이의 너그러우시면서도 근엄하신 영상을 우러르며 송구한 마음을 금할수 없었다.

근로인민대중에게 복무하는 인민적예술을 창조하기 위해서는 근로인민대중의 창조적지혜를 적극 발양해야 하며 문화와 예술을 대중화하여야 한다는 이 사상은 어버이수령님께서 이날 비로소 처음 교시하신것이 아니였다.

어버이수령님께서는 일찌기 1946년 5월 24일 평양에서 열린 북조선 각 도인민위원회, 정당,사회단체 선전원, 문화인, 예술인대회에서 우리 문화인, 예술인들을 《문화전선의 투사》라는 고귀한 칭호로 불러주시면서 새 조국건설을 위해 복무하는 새로운 인민적 문화와 예술을 창조하기 위해서는 문화인들자신이 대중속에 들어가 대중의 생활을 잘 알고 대중이 알기 쉬운 말과 글로써 표현하며 대중을 가르칠뿐아니라 대중에게서

성실하게 배워야 한다는 사상을 강조하셨던것이다. 그러나 축전에 참가할 그때까지도 새롭게 변모된 사회주의현실과 사회주의하에서 나라의 주인으로 성장한 근로인민대중의 창조적 열정과 재능을 정당하게 인식하지 못하고있은 우리들의 의식속에는 예술창조사업을 그 어떤 특수한 재능을 가진 사람들만이 할수 있는것으로 신비롭게 생각하면서 전문가본위로 나가려는 경향이 없지 않았으며 대중의 창조적지혜를 적극 받아들이지 않는 그릇된 관점이 적지 않게 작용하고있었다.

사회주의하에서 문학예술의 성격과 사명을 밝히시고 인민대중에게 복무하는 인민적문학예술을 창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알기 쉽게 말씀하시는 어버이수령님의 간곡한 교시는 우리 예술인들을 참다운 예술창조의 길에 들어서도록 일깨워주시는 따뜻한 가르치심이였으며 힘있는 고무였다.

정녕 그이의 말씀 구절구절은 우리들모두에게 주체예술창조의 휘황한 앞길을 열어주시는 진리의 홰불이였다.

경애하는 수령님께서는 다음으로 우리들이 세계청년학생축전에 참가하여 어떻게 생활하며 활동하겠는가 하는데 대하여 말씀하시면서 가장 중요한것은 우리나라 사회주의제도가 자본주의제도보다 비할바없이 우월하다는 굳은 신념과 높은 자부심을 가지는것이라고 간곡히 가르치셨다.

어버이수령님께서는 우리가 자본주의나라에서 진

행되는 축전에 참가하는것만큼 자본주의사회의 본질과 자본주의사회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사회주의사회의 우월성에 대해 구체적인 실례를 드시면서 상세히 언급하시고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사회주의사회는 특히 사상문화적면에서 자본주의사회보다 비할바없이 우월합니다. 해방후 15년동안 사회주의적교양을 받은 우리 인민들의 사상의식수준은 매우 높습니다. 지금 우리 인민들은 모두다 건전한 사상과 고상한 도덕적품성을 가지고있습니다… 동무들은 자본주의사회에서 사는 사람들이 가질수 없는 고귀한 사상을 가지고있다는 자부심과 우월감을 가져야 합니다.》

그이께서는 또한 우리의 예술은 세계에서 가장 아름답고 고상하며 혁명적인 예술이라고 하시면서 힘과 용기를 안겨주시는 말씀을 하시였다.

《자본주의예술과는 달리 우리의 예술은 인민들속에서 나왔고 인민들의 생활을 반영한 인민적예술이기때문에 자본주의나라에 가서도 인민들의 환영을 받을수 있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이날 동무들이 세계청년학생축전에 참가하는 목적은 세계진보적인민들과의 친선단결을 강화하며 우리 나라에서 이룩된 사회주의건설의 빛나는 성과와 조국통일에 대한 우리 당의 방침을 널리 소개선전하고 미제침략자들의 죄행을 폭로함으로써 우리 혁명에 대한 지지자, 동정자를 더 많이 얻는

데 있다고 밝히시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동무들은 이번 세계청년학생축전에 참가하여 오지리인민들과 축전에 온 많은 나라 청년들에게 우리나라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에 대하여 잘 선전하여야 합니다. 다시말하여 우리 나라가 정치, 경제, 문화, 예술의 모든 분야에서 매우 발전하였다는것을 세계사람들에게 알려주어야 합니다. 그러자면 동무들이 노래도 잘 부르고 춤도 잘 추어야 하며 정치사업도 잘하여야 합니다. 특히 조선의 예술이 얼마나 아름답고 진보적인가 하는것을 보여주어야 하며 우리의 예술은 낡고 썩어빠진 예술이 아니라는것, 우리의 예술은 자기 민족을 위한 예술, 사회주의를 위한 예술, 근로대중을 위한 예술이라는것을 뚜렷이 보여주어야 합니다.》

어버이수령님께서는 예술활동을 잘하는것은 우리 당과 정부의 대외활동을 위한 유리한 조건을 마련하는데서 큰 의의가 있다고 하시면서 예술활동을 잘하면 나라의 국제적위신을 높이며 다른 나라와의 문화적교류를 촉진시키고 정치, 경제적 관계를 발전시키는데 큰 도움을 줄수 있다고 말씀하시였다.

그이께서는 이날 이번 축전에 참가하여 예술활동을 잘하면 자본주의나라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줄수 있을뿐아니라 재일조선동포들과 남반부인민들에게도 큰 영향을 줄수 있다는데 대하여 상세히 가르치시고나서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동무들은 이번 축전에 가서 예술활동을 잘하는것

과 함께 영웅적조선인민의 고상한 품성을 보여주며 조국의 영예를 빛내이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하겠습니다.

동무들은 3년동안의 조국해방전쟁에서 미제를 꺼꾸러뜨린 영웅적조선청년들의 대표이며 근면하고 슬기롭고 문명한 조선인민의 대표라는것을 한시도 잊지 말고 생활을 건전하게 하며 모든 행동에서 다른 나라 청년들의 모범이 되여야 합니다.》

높은 민족적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와 사회주의하에서 활짝 꽃피여난 우리 예술의 우월성을 온 세계에 널리 자랑하고 높이 시위하라고 하시며 그 활동방향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으로 가르쳐주신 어버이수령님의 고무적인 교시를 받으며 나는 부풀어오르는 감격에 목이 메여올랐다.

이 세상 그 어디에 이렇듯 크나큰 믿음, 뜨거운 은정이 또 있을수 있으랴.

사람들은 감격이 지나칠 때 자기를 잊게 된다고 한다. 그 순간 나의 심정이 바로 그러했다.

나는 마치도 지금까지 없었던 크나큰 힘이 새로 안겨진것 같고 온 세상이 갑자기 밝아진듯싶어지면서 시야가 탁 트인 높은 령마루에 올라선것 같은 심정이였다.

활짝 열어제낀 창문으로 가벼운 바람이 불어왔다. 7월의 한낮때여서 방안은 무더웠다.

창문너머로 멀리 바라보이는 푸른 하늘 높이 떠오

른 해와 나무숲, 이 모든것이 새로운 생명력을 지닌듯 싶었고 전에없이 더 빛나보였다.

자리에서 일어서신 어버이수령님께서는 흰 손수건을 꺼내시여 얼굴의 땀을 씻으시며 큰 걸음을 떼시여 우리들앞으로 걸어나오시였다.

그이께서는 마치 먼길을 떠나는 어린 자식들의 길차비를 알아보시듯 떠날 날자는 어느날로 정했으며 기차로 가는가, 비행기로 가는가, 어느편이 더 좋겠는가, 양복과 신발, 생활필수품들은 부족한것이 없이 다 받았는가 하고 하나하나 물으시는것이였다.

한 일군이 일어나서

《수령님께서 배려해주셔서 모든 준비가 다 되였습니다.》 하고 말씀올리자 그이께서는 그 일군에게 이 동무들에게 좋은 천으로 양복을 한벌씩 더 해주자고 하시며 녀동무들에게는 양복도 해주고 조선옷도 한벌 해줘야 한다고 하시였으며 지어 내의류와 생활필수품, 화장품 같은것들도 제일 좋은것으로 여유있게 더 갖춰주도록 배려하여주시였다.

그리고 조국에서 멀리 떨어져 구라파에 가서 오래 있느라면 조선음식이 그리워질수 있으니 이 동무들에게 우리 입쌀과 양념감도 각가지로 넉넉히 가지고 가게 하라고 이르시는것이였다.

어버이수령님께서는 그러시고도 마음놓이지 않으시여 부족한것이 더 없겠는가 친절히 물으시기도 하시고 제기되는 의견이나 애로가 있으면 누구든지 사양말

고 이야기하라고 거듭 말씀하시였다.

나는 그이의 거듭되는 물으심에 일어서기는 하였으나

《수령님, 저희들은 부족한것이 없이 필요한 모든것을 다 갖췄습니다.》하고 한마디의 말씀을 올리고서는 뒤말을 더 잇지 못했다.

나는 감사의 말씀을 더 올리고싶었지만 가슴을 치밀며 북받쳐오르는 감격에 가슴이 뜨거워나고 목이 메여와서 무어라고 말씀을 올릴수가 없었다.

어버이수령님께서는 이미 축전에 참가할 청년학생대표단성원들과 젊은 예술인들에게 양복과 신발, 화장품 등 필요한 모든것을 갖춰주도록 한두번이 아니게 구체적인 지시를 주셨으며 해당부문일군들을 몸소 부르시여 생산조직을 특별히 하더라도 제일 좋고 맵시있는것으로 꼭 보장해줘야 한다고 교시하셨던것이다.

이 모든 사실들을 알고있는 나로서는 그이의 너무나도 지극한 사랑에 목이 메여올뿐이였다.

그 옛날 버림받던 로동자와 농민들 그리고 그 자녀들을 한품에 안아 작가로, 예술인으로 키워주시고 주체예술창조의 휘황한 앞길을 열어주시였으며 오늘은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와 사회주의예술의 우월성을 온 세계에 널리 시위하라고 높은 신임과 긍지와 영예를 안겨주시는 어버이수령님!

먼 외국에 가는 우리들에게 생활상 사소한 불편이라도 있을세라 모든것을 다해주시고도 입맛을 잃지 않

게 쌀과 양념감까지 구미에 맞게 가지고 가게 하라고 이르시고서도 또다시 그 무엇인가 부족한것이 없겠는가 물으시며 심려하시는 어버이수령님!

한없이 자애로운 어버이수령님의 크나큰 사랑에 접하여 우리모두는 뜨거운 눈물을 흘리였다.

이날 어버이수령님께서는 너무나도 과분한 영예와 사랑에 안겨 감격과 흥분을 누를길 없어 눈물을 머금는 우리의 젊은 예술인들과 한자리에 앉으시여 기념사진까지 찍으시고서야 자리를 뜨시였다.

경애하는 수령님을 모시고 기념사진을 찍게 된 이 순간 나는 마음속으로

—어버이수령님, 저희들은 수령님께서 가르치신대로 사회주의조선의 예술을 온 세계에 널리 시위하며 조국의 영예를 빛내이는 길에서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하고 굳게 결심을 다졌다.

나만이 아니라 젊은 예술인들모두가 다 한결같은 심정으로 어버이수령님을 우러르며 어버이수령님께서 안겨주신 높은 신임과 사랑에 보답할 굳은 결의를 다지고 또 다졌다.

경애하는 수령님의 강령적교시와 크나큰 신임과 사랑을 받아안은 우리들은 마치도 맑게 개인 날 높은 산마루에 올라서서 장엄하게 솟아오르는 아침해를 맞이한듯싶었다.

우리들은 이날부터 경애하는 수령님께서 교시하신

대로 매 예술종목을 근로인민을 위해 복무하는 인민적 예술로 되게 하기 위한 원칙에 확고히 립각하여 부족점들을 대담하게 없애고 예술적형상을 완성시켜나가는 마지막작업을 다그쳐나갔다. 그리하여 매 종목들은 사회주의현실이 보다 생동하게 반영되고 민족적특성이 옳게 구현되여나아갔다.

우리들은 경애하는 수령님께서 안겨주신 크나큰 신임과 높은 민족적긍지와 확고한 신심을 안고 조국을 떠났다.

우리들이 모스크바와 부다뻬슈뜨를 거쳐 축전도시 윈나에 도착한것은 그해 7월말이였다.

우리들은 윈나시에 도착한 바로 그 이튿날 첫공연을 하게 되였다.

이날 윈나시의 이름난 극장중의 하나인 로나헤르극장은 개막식 훨씬 전부터 밀려드는 관중들로 초만원을 이루었다.

축전준비위원회의 성원들, 각국의 대표단 단장들, 예술종목별 심사위원들, 여러 나라 외교대표들, 오지리의 정치, 사회, 문화예술계와 근로자대표들, 출판보도계의 인사들…1,400여명이 초대된 이날의 공연은 세계청년학생축전의 개막을 선포하는것이나 다름 없었다.

이날까지는 아직 어느 나라 예술단도 윈나시에서의 공연을 하지 않았다. 그런만큼 축전준비위원회는 물론 오지리의 사회계에서도 우리 나라 예술단의 공연에 깊은 관심을 표시했다. 한편 세계청년학생축전을

파괴해보려는 목적밑에서 《반축전위원회》라는 기구까지 내오고서 갖은 음모와 도발책동을 다하고있은 미제를 비롯한 국제반동들은 우리 나라 예술단의 공연을 반축전깜빠니야의 첫대상으로 되게 하려고 은근히 획책하고있었다.

우리들은 공연의 성공을 믿어의심치 않으면서도 오지리의 사회계와 예술계 인사들이 과연 우리의 예술을 어떻게 대할것인가 하는 위구도 없지 않았다. 《음악의 도시》라는 윈나에서 조선의 예술이 과연 어떤 반향을 불러일으킬것인가?

《당신들 조선예술단의 공연성과는 전반적축전행사의 성과를 좌우하게 될것입니다.》

축전준비위원회의 책임일군들은 우리에게 이런 말을 한두번만 하지 않았다.

드디여 막이 오르고 제1부의 공연이 시작되였다. 민족적색갈이 진하고 독특하고 힘있는 우리의 무반주혼성대합창이 끝나자부터 객석은 감격, 흥분, 환호의 거세찬 물결속에 휘감겼다.

공연종목이 바뀔 때마다 관객들은 격동된 감정을 표시하기 위해 발을 구르며 환성을 올리였다.

무대와 관중이 혼연일체가 되여 격동의 도가니로 변한 그속에서 세계 어느 나라 음악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독특한 정서와 색갈을 가진 우리의 민족음악곡을 오선지에 옮기려고 발장단을 치며 열심히 기록하는 젊은 예술인들이 적지 않았다.

이날의 공연이 얼마나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는가 하는것은 첫 합창으로부터 노래와 무용, 기악곡 등 거의 모든 종목들이 열광적인 환호속에 재청, 3청의 요구를 받아들인후에야 다음 종목으로 넘어갈수 있은 사실만으로도 알수 있는 일이였다.

특히 세번 네번의 재청을 받은 군무 《쇠물은 흐른다》, 《부채춤》 같은 작품들은 무용수들전원이 무대우에 두번세번 다시 나가서 끓어번지는듯한 환호에 답례를 하고서야 다음종목으로 넘어갈수 있었다.

상상을 초월하는 환호와 열광적인 웨침속에서 1시간 20분을 예정했던 공연이 3시간이 넘도록 막을 내리지 못했다.

이러한 례는 그 극장은 물론이고 오지리와 구라파의 어느 극장 어느 나라 공연력사에서도 있어본적이 없는 일이였다.

제2부의 마지막 종목인 군무 《풍년맞이》가 끝났을 때 관중들은 일제히 일어서서 두손을 높이 쳐들고 환호성을 올리며 무대우의 예술인들에게 꽃묶음을 연방 뿌리며 무대앞으로 달려나왔다.

우리 예술인들은 관중들의 환호에 두손을 높이 쳐들어 답례하며 불멸의 혁명송가 《**김일성**장군의 노래》를 힘찬 합창으로 부르기 시작했다. 그러자 1,400여명의 관중속에서 《조선, **김일성**》, 《**김일성**, 조선》 하고 웨치는 우렁찬 합성이 터져나왔다.

이날 밤 공연이 끝난후 무대뒤로 막 밀려들어온

관중들은 저마다 우리 예술인들을 부여잡고서 조선의 민족음악과 민족무용이 그렇듯 독특하게 아름답고 섬세하며 정서가 풍부한 비결이 어디 있으며 조선예술이 어떤 발전력사를 거쳐 오늘과 같은 높은 단계에 이르렀는가를 알려달라고 조르는것이였다.

인류예술이 구라파의 중심지역에서 최고의 수준에 이르렀다고 자랑해온 오지리와 프랑스의 예술가들, 출판보도계의 기자들은 《조선의 예술은 인류가 창조한 최고의 예술》이라고 하며 찬탄해마지않았다.

여러 나라에서 온 공연조직자들은 축전이 끝나는대로 조선예술단의 전체 성원들을 자기 나라에 초청하겠다면서 그에 대한 구체적인 상담을 하자는것이였다. 그리고 축전이 진행되는 기간 오지리와 서부독일, 웽그리아 등 여러 나라에서 우리 예술단의 공연실황을 텔레비죤으로 광범히 소개하였던것이다.

우리 예술에 대한 찬양의 목소리는 각 민족단체들의 종목별예술경연이 시작되면서 더욱 높아졌다.

윈나에 모여온 여러 나라의 참관단들과 윈나시의 시민들은 우리 예술인들을 만나기만 하면 손을 높이 쳐들고서 《꼬레아, 조선》, 《조선, 꼬레아》 하고 웨치며 달려오군했다.

나는 우리 예술에 대한 외국의 벗들의 높은 찬양의 말을 들을 때마다 우리 나라 사회주의하에서 근로인민대중의 창조적지혜에 의거하여 활짝 꽃피여난 인

민적예술에 대한 높은 궁지와 자부심을 가지라고 하신 경애하는 수령님의 간곡한 교시를 다시금 되새겨보군 하였다.

경애하는 수령님께서는 실로 비범하신 예지로 우리 나라 사회주의예술의 성과를 환히 내다보고계셨으며 모든것을 통찰하고계시였다.

경애하는 수령님의 교시를 받고서 완성한 모든 작품들이 다 높은 평가를 받았지만 그중에서도 사회주의현실을 반영한 군무 《쇠물은 흐른다》에 대한 찬양은 놀라울 정도였다.

젊은 용해공들의 창조적로동의 기쁨을 힘있고 생동한 무용언어로써 형상한 이 작품에 대해 일반군중은 물론 예술전문가들까지도 세계 어느 나라 무용에서도 아직 본적이 없는 혁신이며 사회주의예술의 모범이라고 평가하며 감탄하여마지않았다. 이러한 평가는 무용작품에 국한된것이 아니였다.

실로 윈나에서의 예술활동은 사회주의적내용과 민족적형식의 완전한 결합으로 특징지어지는 우리 나라 사회주의예술의 우월성을 남김없이 시위하는것으로 되였다.

윈나에서 우리 나라 예술이 이룩한 거대한 성과는 예술창조사업은 반드시 근로인민대중의 창조적지혜에 의거해야 하며 우리의 예술은 근로인민대중의 생활감정을 진실하게 반영한 인민적예술로 되여야 한다고 하신 경애하는 수령님의 주체적문예 사상과 리론의 정당

성을 뚜렷이 확증하였고 인민을 위해, 혁명을 위해 복무하는 사회주의예술의 우월성을 널리 시위하였으며 그의 진리성을 온 세계앞에서 확증한것이였다.

우리의 예술은 또한 서방자본주의나라들에서 성행하고있는 퇴페적이며 말세기적인 부르죠아예술의 반동성과 허위성을 폭로하면서 인류에게 정의와 진보를 호소하며 생활긍정의 밝은 미래를 안겨주는 혁명적예술의 고무적기치로 되였다.

우리들은 윈나에 체류하는 기간 경애하는 수령님께서 가르치신대로 여러 나라 청년들과 상봉하게 되는 모임과 행사들에서 정치활동을 적극 벌림으로써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과 그 발전모습을 정확히 인식시키기 위하여 힘썼다.

그리하여 우리 나라 대표단은 숙소에서는 물론 가는곳마다에서 연방 찾아오는 세계 여러 나라의 대표들을 맞이하게 되였다.

국제예술경연에서 17개의 금메달과 13개의 은메달, 7개의 동메달을 쟁취한 큰 성과를 올린후 우리의 예술단이 윈나시 교외의 두나이강반에서 7,000여명의 관중을 상대로 야외공연을 진행한 날 밤이였다.

800년의 력사를 가지고있다는 오랜 도시 윈나시가 생겨난 이래 이렇듯 많은 관중이 모인 공연력사가 없었다는 야외공연이 막 끝나고 수많은 군중들이 우리 예술인들을 만나겠다고 무대뒤로 밀려들고있는 복잡한 정황이였는데 구라파의 어느 한 나라에서 온 예술학박

사라고 하는 70살에 난 한 로인이 우리 예술단의 한 일군을 찾아왔다.

한생을 예술을 위해 바쳐온 이 로인은 조선의 예술을 보고나니 자기가 일생을 헛살아온것 같다면서 《한 나라의 예술이 특색이 있는 예술로서 인류예술에 공헌할수 있게 높은 경지에 오르자면 오랜 민족적전통이 주요하게 작용하겠지만 보다 중요한것은 민족적전통을 오늘의 현실에 맞게 발전시키는 문제일것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모든 나라에서 다 옳게 해결하고있는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옳은 지도리론, 옳은 정책이 있어야 하고 예술인재를 선발하고 육성하는 교육과 예술 사업에 대한 옳은 지도가 반드시 결합되여야만 비로소 가능할것입니다. 이것은 결코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당신들, 조선의 예술은 이 문제에 대해 많은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내가 알고싶은것은 사회주의조선에서(로인은 사회주의조선이라는 이 말을 특히 힘을 주어 강조했다.) 민족예술이 발전하고있는 요인 즉 재능있는 예술가들이 급속히 자라나고있는 요인이 어디에 있는지, 말하자면 예술에 대한 지도와 육성, 교육 그리고 예술창조사업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되고있는가 하는것입니다.》라고 우리를 찾아온 사정을 말하는것이였다.

우리는 그 로인에게 우리 나라에서 혁명과 건설의 모든것, 경제와 교육, 문화와 예술까지도 다 국가가

장악지도하고있으며 그 모든것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령도와 보살피심에 의해 발전하고있다고 말해주었다.

로인은 경애하는 수령님께서 일찌기 항일혁명투쟁시기에 벌써 혁명적문학예술건설의 사상리론적기초를 밝히시고 몸소 불후의 고전적명작들을 수많이 창작하시였으며 8.15해방직후에는 현실발전의 새로운 요구에 맞게 근로인민을 위한 사회주의적민족 문화와 예술을 발전시키기 위해 그 당시 많지 않은 문학예술인들을 귀중히 여기시고 사랑의 한품에 안아 키워오신 모든 사실들 특히는 우리들 예술단전원이 조국을 떠나기에 앞서 어버이수령님을 뵈옵고 강령적인 교시와 뜨거운 사랑을 받게 된 이야기를 다 듣고나서야 크나큰 감동을 표시했다.

《알겠습니다. 당신들 조선의 예술가들은 참말로 행복합니다. 나는 지금까지 여러 나라의 예술을 연구해왔지만 한 나라의 령도자가 민족 문화와 예술의 발전에 그렇듯 깊이 관심하시며 예술인들의 생활상 애로까지 풀어주고계신다는 사실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한 사실은 고대에도 중세에도 어느 시대 어느 나라에도 없었습니다. 국가와 매개인이 서로 대립관계에 있는 오늘의 자본주의사회에는 더욱 있을수 없습니다.》

로인은 흥분한 어조로 말을 이었다.

《인민적예술의 창조를 위해서는 근로대중의 창조적지혜를 적극 발양해야 하며 대중자신이 예술창조자

로 되여야 한다고 하신 김일성원수님의 사상은 인류가 수세기를 내려오며 바라온 리상입니다.

그것은 정녕 위대한 사상입니다. 그 사상을 리념으로 내세우고 실현해나가는것은 참으로 행복한것입니다.

나는 위대한 령도자를 수령으로 모시고 인민을 위한 진정한 예술을 창조하고있는 당신들, 조선의 젊은 예술가들과 만난것이 기쁩니다.

조선예술은 인류에게 밝은 빛을 비쳐주는 희망의 등대와 같습니다.》

로인은 우리의 손을 굳게 잡고 놓지 않으며 위대한 수령님께 자기의 감사와 인사를 드려달라고 거듭 당부하는것이였다.

우리의 사회주의적민족예술에 대하여 인류에게 밝은 미래를 약속해주는 등대와 같다는 높은 평가는 이 로인 한사람만 내린것이 아니였다.

이날 나는 윈나시의 밤거리를 걸으며 경애하는 수령님을 모심으로 하여 우리들 조선예술인들이 누리고있는 행복이 얼마나 크고 값높은것인가 하는것을 다시금 뜨겁게 느끼였다.

우리들은 비록 조국에서 수만리나 떨어진 구라파의 한복판에 서있어도 우리들을 온 세계가 우러러보며 찬탄하여마지않는 사회주의예술의 창조자로 키워주시고 내세워주시는 어버이수령님의 크나큰 믿음과 사랑에 안겨있다는 높은 긍지로 하여 그 어디에 가나 자랑

스럽고 떳떳하였다.

세상의 모든것, 믿음과 사랑에도 한정이 있고 끝이 있는것이다. 그러나 어버이수령님께서 우리의 주체예술을 《세계혁명적예술의 모범》으로 키워주신 령도와 사랑에는 한정이 없고 끝이 없다.

윈나에서의 축전일정을 마치고 조국을 향해 떠나오게 된 날이였다.

우리들은 바삐 려장을 꾸리며 조국에로의 먼 려행길에 오를 시각을 은근히 기다리고있었다. 바로 이날 우리들은 뜻밖에도 경애하는 수령님께서 보내주신 축전을 받게 되였다.

어버이수령님께서는 축전을 통해 우리들이 제7차 세계청년학생축전에 참가하여 훌륭한 성과를 거두고 조국의 영예를 빛내인데 대하여 축하를 보내주시였다.

어버이수령님께서 보내신 축전을 전달받자 우리들은 일제히 일어나서 《김일성원수님 만세!》의 함성을 웨치며 서로 부둥켜안고 너무나도 큰 은정, 분에 넘치는 그이의 사랑에 목이 메여 흐느꼈다.

우리 예술인들을 사랑의 한품에 안아 키워오시며 인민적이며 혁명적인 예술창조의 원칙과 형상방도에 이르기까지 하나하나 일깨워주시였을뿐아니라 조국을 떠날 때에는 친히 접견해주시고 생활상의 그 어떤 불편이라도 있을세라 극진히 보살펴주시고도 우리들에게 축전까지 보내주시는 어버이수령님, 이런 사랑, 이런

은정이 이 세상 어디에 또 있겠는가.

우리들이 거둔 성과, 그것은 다 우리 예술의 위력을 온 세계에 널리 시위하여 사회주의조국의 영예를 빛내이도록 하신 어버이수령님의 현명한 령도와 한없이 깊고 뜨거운 사랑의 결실이였다.

그럼에도 어버이수령님께서는 모든 성과를 우리들에게 돌려주신것이다.

사람들은 사랑이 지극할 때 자식을 생각하는 어머니의 사랑에 비기며 은혜가 지극할 때 하늘의 높이와 바다의 깊이에 비기지만 그 어느 어머니의 사랑이 우리 예술인들을 생각하시는 어버이수령님의 사랑처럼 지극하며 하늘이 무한하고 바다가 깊다 하지만 우리 예술인들에 대한 어버이수령님의 한정없는 은정에 비기겠는가.

우리가 감격과 흥분 속에서 어버이수령님의 크나큰 은정과 사랑에 보답할 충성의 결의를 다지고있을 때였다.

축전준비위원회의 일군들과 오지리의 벗들이 우리들을 붙안고 뜨겁게 포옹하며 격한 음성으로 말하였다.

《조선인민의 위대한 수령이신 김일성동지는 현시대의 가장 걸출하신 인민의 수령이시며 사상리론가이십니다.

조선예술이 그토록 높은 수준으로 발전할수 있은 비결을 비로소 알게 되였습니다.

현시대에 김일성동지께서 세계혁명을 이끌어나가시는것은 당신들과 우리모두의 크나큰 행복이며 긍지입니다.》

정녕 축전도시 윈나에서의 나날은 경애하는 수령님의 한없이 자애로운 사랑의 한품에 안겨 성장한 우리 조선의 예술인들만이 가질수 있는 긍지와 행복, 영예를 심장깊이 새겨넣게 한 감격과 흥분으로 수놓아진 기간이였다.

어버이수령님의 현명한 령도와 자애로운 사랑이 있음으로 하여 우리의 사회주의예술을 온 세계에 널리 시위할수 있었던 그 감격과 기쁨은 20여년이 지난 오늘까지도 잊혀지지 않는 가장 영예롭고 가장 숭고한 감정으로서 오늘도 우리모두의 가슴깊이 간직되여 있다.

오늘 우리의 주체적민족예술은 위대한 수령님과 당의 빛발아래 20여년전의 그때와는 비할바없이 완성된 주체의 예술로 발전하여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 구라파와 대양주 등 세계의 모든 대륙, 모든 지역에서 수억만사람들의 심장을 틀어잡고 날로 그 영향력을 확대하고있다.

인류문화예술의 밝은 미래를 비쳐주고있는 우리의 주체예술은 인민적이며 혁명적인 예술의 귀감으로 되고있다.

오늘 세계의 진보적인사들과 광범한 인민들은 우리의 주체예술에 대해 선행시기 예술이 달성한 모든

《기준》과 《권위》를 무너뜨리고 인류문화예술의 새력사를 펼쳐보이는 가장 혁명적이며 가장 완성된 최고의 예술이라고 찬양하여마지않는다.

나는 우리들 조선의 작가, 예술인들에게 이 세상 그 어느 나라 력사에도 있은적 없는 높은 정치적신임과 영예와 행복을 안겨주시고 우리의 주체적문학예술을 온 누리에 빛내여주신 어버이수령님과 당의 령도와 사랑의 이야기를 대를 이어 길이 전하며 주체적민족문학예술을 더욱 빛내여나가는 사업에 한생을 바쳐 충성다할 결의를 굳게 다지고 또 다진다.

은혜받은 우리 미술의 새세대들

김 주 경

오늘 우리의 미술은 세상사람들의 경탄을 자아내며 일찌기 없었던 개화전성기를 맞이하고있다.

실로 오늘 혁명적미술의 본보기로 개화만발하는 우리 미술의 놀라운 발전과 거대한 성과는 오로지 우리 인민들에게 보다 행복하고 문명한 생활을 마련해주시려고 끊임없는 배려를 돌려주시는 위대한 수령님의 크나큰 은덕의 결실이며 해방후 우리 미술을 인민을 위하여, 혁명을 위하여 복무하는 참다운 주체적미술로 꽃피워주시기 위하여 온갖 로고를 기울여오신 그이의 현명한 령도와 은정의 빛나는 결과이다.

돌이켜보면 일제가 모든것을 파괴하고 쫓겨간 해방직후 다른 모든 부문도 다 그러하였지만 우리 미술부문의 실태를 보아도 그 토대가 실로 빈약하기 그지없었다. 미술을 전문한다는 사람은 불과 몇명 곱기 어려울 정도였고 지어는 미술기자재조차 구하기가 어려

웠다.

우리 미술가들은 새 조국 건설을 위한 투쟁에 떨쳐나선 인민들의 높은 기세에 발맞추어 참다운 미술을 해보자고 가슴을 들먹거리였지만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갈피를 잡을수 없었고 포부만은 컸으나 미술이 나가야 할 구체적인 방향과 방도를 옳게 찾지 못하였다.

어떤 사람들은 한탄만 하였고 어떤 사람들은 다른 나라를 쳐다보았다. 어떤 사람들은 지금 나라를 세우는 큰일도 바쁜데 언제 그림같은것을 생각할 때인가고 하면서 꿈같은 소리를 한다고 일축해버리기도 하였다.

과연 우리의 미술을 우리 힘으로 일으켜세울수 없단말인가?

이렇듯 안타까움으로 모대기던 때 우리들의 가슴에 용기와 신심을 안겨주시고 앞길을 환히 틔워주신분은 바로 영명하신 수령 **김일성**장군님이시였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장군님께서는 동요하는 일군들에게 민족미술을 발전시키는 문제는 한시도 미룰수 없는 중요한 혁명과업의 하나임을 깨우쳐주심으로써 그들의 앞길을 환히 밝혀주시였다.

일찌기 혁명의 길에 나서신 첫시기부터 혁명에서 문학예술이 노는 역할에 큰 의의를 부여하시고 친히 우리 나라 혁명적문학예술의 력사적뿌리를 마련해오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해방후 그 어렵고 복잡한

정세속에서 겹치는 난관을 한몸으로 풀어나가시는 그 바쁘신 나날에도 우리 미술을 발전시키는것을 새 민족문화건설에서 중요한 문제의 하나로 보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장군님께서는 1946년 7월 어느 날, 우리 미술가들을 접견하신 석상에서 일제시기에 강요되였던 주관주의적이며 형식주의적인 낡은 예술잔재들을 깨끗이 청산하고 진정한 인민적인 민족미술을 발전시켜나갈데 대한 방향을 제시하시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도의 하나로서 미술후비육성사업을 강화할데 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교시하시였다.

우리 나라 미술을 찬란히 개화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우선 선배화가들이 솔선 사실주의적인 미술작품을 많이 창작하여야 하겠습니다.

동시에 젊은 미술가들을 집결시키며 청소년들중에서 미술을 좋아하며 재간있는 사람들을 인입해서 배워주어 많은 미술인재들을 육성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진취성이 강한 청소년들속에서 새형의 미술인재를 대대적으로 발굴육성할데 대한 위대한 수령님의 간곡한 가르치심은 당시 우리 나라의 미술계가 처한 실태를 깊이 통찰하시고 내놓으신 가장 정당하고 현명한 방침이였다.

참으로 우리 미술부문은 그때 모든것을 하나하나 새로 시작하지 않으면 안될 빈터였다.

해방전 일제침략자들의 민족문화말살정책으로 인

하여 우리의 민족미술은 여지없이 유린당하였으며 배움의 길을 빼앗겼던 어린 세대들에 대한 미술교육이란 생각조차 할수 없는 일이였다.

그러나 현실은 해방된 나라의 새세대들, 로동자, 농민의 참된 아들딸들속에서 미술후비를 길러내는것을 한시도 미룰수 없는 문제로, 주체적미술건설을 위하여 선차적으로 풀어야 할 기본고리로 제기하였던것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이렇듯 할바를 모르고 가슴만 태우던 우리들에게 밝은 길을 가리켜주시였으며 미술후비대렬을 튼튼히 꾸리기 위한 사업을 줄기차게 밀고나갈수 있도록 세심히 보살펴주시였다.

1947년 9월 초, 나는 한가슴에 받아안기엔 너무도 크고 벅찬 영예를 지니게 되였다.

이날 어버이수령님께서는 우리 나라 력사에서 처음으로 되는 전문미술교육기관인 평양미술전문학교를 세우도록 배려하여주시였으며 저를 그 학교의 첫 교장으로 임명해주시였다.

실로 해방후 그 어려운 나날에 그 누가 전문미술교육기관의 창립에 대하여 생각이나 할수 있었겠는가.

그러나 어버이수령님께서는 주체적미술건설에 대한 문제를 새 조국 건설을 위한 투쟁의 중요한 한 부분으로 보시고 미술교육기관의 창설을 발기하시였고 곤난이 중첩되는 그 어렵고 복잡한 시기에 우리 미술전문학교를 몸소 세워주시였다.

정녕 그것은 해방된 조국땅우에 하루빨리 근로인민의 새 문화를 꽃피우시려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현명한 령도아래서만 이룩될수 있은것이였다.

분에 넘치는 영광과 배려를 받아안은 나의 가슴엔 격정이 차넘쳤고 그이의 가르치심을 심장깊이 아로새기고 새조선의 미술인재들을 육성하는 사업에 일생을 바칠 굳은 결심이 불타올랐다.

나라 없는 지난날 미술에 대한 포부 하나만을 가지고 가슴태우며 고학생의 설음에 울던 저를 우리 나라 첫 미술교육기관의 책임자로 내세워주시다니!…

실로 그것은 위대한 수령님의 손길아래서만 있을수 있는 한 인간의 새로운 출발이였으며 한 미술가에게 베풀어주신 크나큰 정치적신임이였다.

그날부터 우리는 학교를 꾸리기 위한 일에 모든 힘을 기울이였다.

신문과 방송을 통하여 미술전문학교가 세워진 소식이 전국에 전하여졌다. 우리는 교원, 학생 대렬을 꾸리면서 학교사업을 밀고나갔다.

그러나 나는 그때까지만 해도 위대한 수령님의 가르치심속에 깃들어있는 깊은 뜻을 다는 모르고있었으며 후대들에 대한 그이의 한량없는 사랑을 리해하기엔 나의 준비가 너무도 어리였다. 나는 그것을 그때로부터 몇달이 지나 어버이수령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이를 몸가까이 뵈옵게 된 영광의 자리에서 비로소 깊이깊이 깨달을수 있었던것이다.

평생을 두고 잊지 못할 1948년 1월 10일!

이날이 나의 일생에서 가장 행복스러운 날로, 대대손손 길이길이 전하며 추억해야 할 가장 영광스러운 날로 되리라는것을 어찌 꿈엔들 생각이나 할수 있었으랴.

그날은 밤새 눈이 내려서 아침의 평양거리는 황홀한 설경을 이루었다.

은빛으로 단장한 건물들과 가로수들… 전차들이 달리는 넓은 길도, 저멀리 보이는 모란봉도 은세계를 펼치였는데 솟아오르는 아침해발이 눈부시게 쏟아져내리고있었다. 행복으로 설레이는 이 마음을 알아주는듯 새들은 나무가지우에서 눈가루를 날리며 지저귀였고 어버이수령님께로 달리는 나의 마음을 재촉하는듯 차들은 련이어 경적을 울리며 다투어 달리고있었다.

나는 문화선전국의 한 책임일군과 함께 위대한 수령님께서 계시는 당중앙위원회로 달려갔다.

창문마다 아침해빛이 빛나는 청사, 눈꽃이 핀 정원의 나무들도 숭엄한 정적속에 엄숙히 서있었다. 우리는 옷깃을 여미며 정문으로 들어섰다.

어버이수령님께서는 저희들이 도착했다는 보고를 받으시자 보시던 서류를 밀어놓으시고 친히 문앞까지 걸어나오시였다.

저는 울렁거리는 마음을 안고 그이께서 계시는 방으로 들어서며 깊이 머리 숙여 인사드리였다.

그 순간, 한없이 자애로우신 그이의 우렁우렁한 음성이 들려왔다.

《오시느라고 수고하였습니다.》

나는 그만 눈굽이 확 달아올랐다.

만면에 환한 미소를 지으신 그이의 거룩하신 모습을 처음으로 그처럼 몸가까이 뵈옵게 된 순간, 나는 끓어오르는 감격과 행복감에 휩싸였다.

어버이수령님께서는 흥분으로 하여 가늘게 떨리는 나의 손을 따뜻이 잡아주시더니 어깨우에 손을 얹으시고 자리에로 이끌어주시였다.

그이께서는 긴 앞상결에 놓여있는 의자를 가리키시며 어서 앉으라고 다정하게 말씀하시였다. 내가 앉기를 주저하자 그이께서는 재삼 권고하시면서 저의 팔을 잡아 굳이 앉혀주시였다. 그리고 그이께서는 손님들이 앉는 그 탁상 앞자리에 나와 마주앉으시는것이였다.

순간 나는 가슴이 뭉클해지고 온몸이 굳어졌다.

민족의 태양이시며 전설적영웅이시며 우리 인민의 해방의 은인이신 위대한 **김일성**장군님! 만민이 경모하며 한없이 우러르는 위대한 장군님께서 한 평범한 미술가에 지나지 않는 나를 이처럼 허물없이 대해주시다니!… 나는 장군님의 겸허하시고 고매하신 인품앞에 너무도 송구스러워 얼굴을 들수 없었다.

이윽고 그이께서는 새로 개교한 학교사업에 대해서, 첫 입학생들의 구성정형에 대해서 하나하나 료해

하시다가 학생들중에서 제일 나이 많은 학생이 몇살인가고 물으시였다.

나는 흥남비료공장에서 로동하다 온 동무가 제일 나이 많은데 스물일곱살이라고 대답을 올렸다.

그이께서는 잠시 생각에 잠기시더니 천천히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말씀하시였다.

그것 보시오. 27살이나 되도록 공부를 못하고있었으니 얼마나 속이 탔겠습니까? 왜정때 공부를 못한것은 27살난 그 학생 하나만이 아닙니다. 우리 청년들은 지난날 20살이 훨씬 넘도록 공부도 못하고 일본제국주의침략자들의 압박과 천대를 받아왔습니다. 그들을 빨리 민주학원에 받아들여 잘 길러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로동자, 농민의 아들딸들을 우선적으로 받아들여 공부를 시켜야 합니다. 그리하여 그들을 조국건설의 훌륭한 역군으로 키워야 하겠습니다.

이 얼마나 해방된 이 나라의 후대들, 새 민주조선을 빛내여갈 혁명의 새세대들에 대한 위대한 사랑으로 충만된 말씀인가! 창밖으로 멀리 푸른 하늘가를 바라보시는 그이의 안광엔 나라 없는 탓에 잃어버린 이 나라 젊은이들의 학창시절을 두고 가슴아파하시는 어버이의 심려와 그들에게서 배움의 열망을 빼앗고 짓밟은 일제원쑤놈들에 대한 분격이 어려있었다.

나는 온몸에 차넘치는 격정을 안은채 눈물을 삼켜가며 그이의 가르치심을 가슴깊이 새겨나갔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계속하시여 학생들의 학업성

적을 료해하시였다. 학생들이 학습에서 열성을 발휘하고있으며 그 성과가 눈에 띄게 나타나고있다는 저의 보고를 들으시고는 못내 만족해하시면서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교시하시였다.

우리 학생들은 다 재능이 있습니다. 무엇이든 훌륭히 수행할수 있는 좋은 재질들을 가지고있습니다. 일본제국주의자들이 이렇게 귀중한 우리의 청년들을 짓밟고 천대했으니 얼마나 저주로운 일입니까? 이 귀중한 우리의 청년들을 조국건설에 이바지할 훌륭한 인재로 키우는것은 매우 중대한 일입니다.

어버이수령님의 간곡하신 음성은 나라 없고 주권이 없었던 지난날 암흑과 생활고에 짓눌려 꽃필수 없었던 이 나라의 청소년들을 새 조국 건설의 믿음직한 기둥으로 키워주시고 내세워주시려는 한량없는 사랑으로 절절하게 울리였다.

이 순간, 나는 불현듯 눈앞이 흐려지고 뜨거운 덩어리가 가슴에 꽉 막히는것을 느꼈다.

아직은 모든 사람들이 해방된 기쁨이 너무도 커서, 자기들에게 차례진 행복이 너무도 벅차서 울고 웃으며 흥분에 휩싸여있기만 하던 그때,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이 나라 청소년들의 가슴마다에 새 희망과 포부를 안겨주시며 그들조차 미처 깨닫지 못하고있은 슬기와 재능을 움틔워주시기 위하여 이렇듯 심려하고계시는것이였다.

실로 어버이수령님께서는 이 나라의 모든 청소년들에게, 아니 이 땅에 태여날 모든 아이들에게까지도 희망에 따라 재능을 마음껏 꽃피울수 있는 보람찬 미래를 마련해주시고계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계속하시여 우리 교원들의 사업정형에 대하여 료해하시고 교직원들과 학생들이 교수교양사업과 학업에 자기의 재능과 열성을 남김없이 다 바쳐야 한다고 강조하시면서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교시하시였다.

우리 나라의 새로운 민족문화를 건설함에 있어서 미술학교의 사명은 매우 큽니다.…

미술학교에서는 우수한 새형의 미술가들을 많이 키워야 하겠습니다. 우리의 민주조국건설과 민족문화건설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투쟁하는 훌륭한 미술인재들을 길러내야 합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우리 나라에는 훌륭한 미술유산이 있으나 그것만으로는 만족할수 없다고 하시면서 민족문화유산을 비판적으로 옳게 계승발전시키며 우리 시대의 새로운 민족미술을 창설하여야 할 영예로운 임무가 바로 동무들에게 맡겨져있다고 간곡히 말씀하시였다.

우리 시대의 새로운 민족미술!

우수한 새형의 미술가들을 많이 키워내여 새로운 민족미술을 건설해야 할 미술학교의 사명!…

벅차오르는 감격과 흥분 속에서 나는 다시금 그이의 가르치심을 되새겨보았다.

바로 그것이였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근로인민대중을 예술의 창조자, 향유자로 높이 세워주시며 해방된 이 땅우에 혁명적이며 로동계급적인 새로운 예술의 터전을 마련하시고 그우에 새 미술의 첫 씨앗을 뿌리시기 위하여 시급하고 중대한 모든 일들을 뒤로 미루시고 이 자리를 마련하신것이다!

진정 어버이수령님의 그 가르치심은 근로인민의 아들딸들에게 꿈을 주고 희망의 나래를 펼쳐주게 한 주체적미술교육의 강령적지침으로 되였다.

나는 감격에 설레이는 마음을 안고 미술을 지향하는 이 나라 청소년들앞에 열려진 광활한 배움의 길에 대하여, 진정한 인민의 예술이 꽃필 휘황한 조국의 미래에 대하여 그려보고있는데 그이께서는 또다시 너무도 크고 벅찬 행복을 우리들에게 안겨주시면서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교시하시였다.

미술학교가 앞으로 자기의 사명을 원만하게 수행하려면 미술대학으로 되여야 합니다. 지금과 같은 전문학교로써는 안됩니다. 우리의 민족미술을 꽃피우기 위하여서는 반드시 미술대학이 나와야 합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무슨 일이든지 성과를 거두려면 사전준비를 잘 갖추는것이 중요하다고 하시면서 미술학교도 이제부터 대학으로 개편할수 있는 토대를 물질적으로나 교육적측면에서 튼튼히 다져나가야 한다

고 강조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말씀을 새겨가는 저의 가슴속에는 끝없는 격동의 파도가 일었다.

누구에게나 나라가 부강해진 다음에 차차 하여도 될 일로 여겨지던 그 문제, 우리 미술교육일군들조차 착안할수 없었던 미술대학창립문제를 어버이수령님께서만은 벌써부터 구상하고계신것이다.

미술대학을 내오기 위한 사전준비를 잘하도록 하신 그이의 따뜻한 보살피심속에는 우리 인민들에게 하루빨리 세상에 부럼없는 행복하고 문명한 생활을 마련하여주시려는 크나큰 은정이 깃들어있는것이였다.

그후 우리 학교가 이 나라 력사상 처음으로 되는 미술대학으로 창립되기까지 그이께서 베풀어주신 사랑과 배려는 끝이 없었다.

어버이수령님께서는 중요한 국가기관이 들기로 내정되여있던 훌륭한 큰 건물을 학교교사로 돌려주시였으며 새 교사에서 학업을 시작했다는 보고를 받으신후에는 관계부문일군들을 보내시여 저희들이 사소한 불편도 느끼지 않게 모든 조건을 보장해주도록 조치를 취해주시였다.

해방후 푼전을 아껴가며 만난을 극복해나가던 그 어려운 시기였건만 우리 학교 정문으로는 미술기자재들이며 석고상 교편물들이며 미술부문 참고서적들을 싣고 들어오는 차들이 그칠 날이 없었다.

어찌 그뿐이였겠는가! 전체 교직원들과 학생들에

게 높은 급의 식량공급을, 그리고 학생들에게는 장학금까지 받도록 배려하여주시였다.

이처럼 한없이 따사로운 어버이수령님의 손길아래서 우리 학교는 1949년 9월 16일 대학의 편제를 갖춘 국립미술학교라는 이름을 가지고 그 탄생을 세상에 고하게 되였던것이다.

3개의 학부와 여러개의 강좌를 가진 정연한 체계와 연구과(예비과) 2년과 본학부 3년과정으로 된 대학은 창립당시부터 앞으로 종합적인 미술대학으로 발전시켜나갈것을 예견하고있었다.

미술대학의 창립!—그것은 우리 인민과 후대들에 대한 위대한 수령님의 크나큰 사랑이 가져온 빛나는 결실이였으며 그것은 또한 문명에로의 큰 걸음을 내디딘 우리 나라와 우리 인민이 민족문화건설을 위한 투쟁에서 이룩한 또하나의 사변이였다.

미술부문의 대학이 창립되였다는 소식은 순식간에 전국에 퍼져갔다. 사람마다 기쁨에 넘쳐 그 소식을 전했고 우리 미술가들과 미술애호가들의 가슴마다엔 감격이 끓어번졌다. 전국 방방곡곡에서 미술을 지망하는 청소년들이 대학으로 달려왔고 밤을 모르는 강의실들은 교원, 학생들의 탐구와 열정의 도가니로 화하였다.

대학의 첫걸음—그것은 실로 어버이수령님의 위대한 사랑에 보답하려는 열화같은 충성으로 수놓아진 자랑찬 나날이였다.

어버이수령님의 위대한 사랑속에 어린 싹들은 애지중지 가꾸어졌으며 어버이수령님의 그 사랑의 해발로 하여 전쟁의 포연속에서도 민족미술후비들은 억세게 자라났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전쟁의 어려운 환경속에서도 정주와 피현 등지에서 학업을 계속하고있던 우리 대학을 건물조건도 좋고 학업조건도 안전한 룡천군의 어느 한 리로 옮기도록 보살펴주시였으며 교직원, 학생들의 생활과 학습에서 사소한 불편이라도 있을세라 온갖 배려를 다 돌려주시였다.

이렇듯 한없이 은혜로운 어버이수령님의 사랑속에서 마침내 우리 대학은 첫 본학부학생들을 졸업시킬수 있게 되였으며 그들은 미술분야에 진출하여 주체적인 미술건설에 이바지할수 있게 되였다.

감격도 새로운 1954년 8월 6일!

이날 우리들은 위대한 수령님을 모시고 대학 제1차 미술작품전람회를 가지는 크나큰 영광을 지니게 되였다.

우리 대학 교직원, 학생들은 위대한 수령님의 크나큰 사랑속에서 마음껏 련마해온 예술적기량을 총화하여 그이께 보고드리기 위한 대학 제1차미술작품전람회를 마련할것을 결의하고 눈부신 창작전투를 벌려왔다. 그리하여 그들은 저저마다 어버이수령님께 바치는 깨끗한 충성의 마음을 기울여 창작한 미술작품들을 안고 평양으로 달려나왔던것이다.

이때 어버이수령님께서는 미숙한 우리 학생들의

미술작품전람회를 보아주시려고 전람회장인 한 중학교를 몸소 찾아주시였다.

오전 9시 30분!

《**김일성**원수님 만세!》의 환호로 운동장은 들끓었다. 정문앞에 정렬하여 꽃다발을 흔들며 만세를 부르는 교직원, 학생들의 얼굴마다에는 행복의 눈물, 감격의 눈물이 흘러내렸다.

간악한 일제를 때려부시고 찾아주신 이 땅우에 어제는 첫미술의 전당을 세워주시고 공장과 농촌에서 한사람 한사람을 손잡아 이끌어 대학에 불러주시더니 오늘은 그들의 꽃핀 슬기와 재능을 보아주시려 전람회장에까지 몸소 나오신 어버이수령님을 모시게 된 그 시각, 어찌 한없는 감격과 뜨거운 눈물이 솟음치지 않을수 있었겠는가.

대학의 교직원들과 학생들은 걷잡을수 없이 앞을 가리는 눈물을 닦을념도 못하고 우리 대학의 창립자이시며 우리모두의 학부형이신 경애하는 수령님을 우러러 만세를 부르고 또 불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만면에 자애깊은 미소를 지으시며 차에서 내리시였다.

《수고들 합니다. 많이들 모였구만.》

그이께서는 교직원, 학생들의 환호에 답례를 하시였다.

그 순간 우리는 다시한번 가슴을 울리는 충격으로 하여 그 자리에 멈춰서고말았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흰 아마직천으로 지은 여름옷을 입고계시였는데 우리 대학교원들도 얼마전에 바로 그런 양복천을 공급받았었고 지금 그 천으로 지은 옷들을 입고있었던것이다.

우리모두는 너무도 놀라운 사실앞에서 가슴이 뭉클해지고 눈굽이 뜨겁게 달아올랐다. 우리는 격정을 참지 못하여 입술을 깨물며 어깨를 들먹거렸다.

교단에 처음 서는 우리 교원들에게 힘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학생들앞에 나서자면 외모가 단정해야 한다시며 사회적으로 높은 대우를 받도록 배려해주시는 위대한 수령님, 전후복구건설의 그 어려운 나날, 자신께서는 언제나 수수한것을 찾으시면서도 우리 교원들의 생활에 사소한 불편이라도 있을세라 마음을 놓지 못하시는 위대한 수령님의 그 뜨거운 은정앞에 온몸은 불덩어리로 달아오르고 목이 메여올랐다.

어버이수령님께서는 우리 교직원들의 손을 잡아주시고 어깨를 두드려주시면서 학생들의 솜씨를 보고싶어 왔다고 다정히 말씀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목청껏 환호를 올리는 교직원, 학생들에게 답례를 보내주시면서 전람회장으로 향하시였다.

전람회에는 우리 대학 교직원, 학생들의 열화같은 충성의 마음이 깃든 위대한 수령님을 형상한 조각작품들이 모셔져있었으며 수령님의 부르심을 높이 받들고 전후복구건설투쟁에 떨쳐나선 우리 인민들의 벅찬 생

활을 담은 다양한 주제의 작품들이 수많이 전시되여있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1층전람실에서부터 우리 학생들의 미술작품을 보시고 매우 만족해하시였다. 그이께서는 우리 학생들은 다 자질이 높고 슬기가 있다고 기뻐하시며 그런 학생들이 일제의 야만통치하에서 공부를 못하고 재능을 꽃피우지 못했다고 못내 가슴아파하시였다.

그이께서는 특히 연필화 《소나무》를 잘 그렸다고 거듭 치하하시면서

《우리 학생들이 이렇게두 재간이 있구만! 이 소나무를 그린 연필화를 보시오. 얼마나 잘 그렸습니까.》 라고 말씀하시였다.

그러시고는 이와 같은 훌륭한 소질을 가진 학생들을 잘 키워야 하겠다고 우리 일군들에게 이르시였다.

그이께서는 거듭 우리 학생들의 재능이 훌륭하다고 기뻐하시면서 우리 학생들의 재능이 외국학생들의 재능에 비하여 결코 떨어지지 않는다고 말씀하시였다. 그이께서는 이으시여 재능보다 더 귀중한것은 정열적인 노력이라고 하시면서 높은 사상의식과 결합된 노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시였다.

어버이수령님을 몸가까이 모시고 가르치심을 받은 우리는 벅차오르는 감격으로 하여 마음을 진정할수가 없었다.

전람회에 전시한 작품들에는 어버이수령님께서 령

도하시는 영광스러운 우리 조국에 대한 학생들의 열렬한 사랑의 감정이 깃들어있었다. 그러나 학생들의 실습작품에는 미숙한 점도 없지 않았다.

하지만 어버이수령님께서는 어린애의 첫걸음마를 대견스레 바라보는 친부모의 심정 그대로 한점한점의 작품들을 오래도록 보아주시고 높이 치하해주시면서 우리 교원, 학생들에게 신심과 용기를 안겨주시는것이였다.

수채화 《휴가를 받고》, 《발갈이전선의 즐거운 휴식》, 유화 《고지의 이야기》… 보시는 작품마다 치하를 주시며 우리 학생들이 현실을 보는 안목이 바로서고 조선사람들의 생활감정에 맞게 그릴줄 안다고 못내 기뻐하시던 어버이수령님께서는 유화 《새 교실》앞에서 오래도록 걸음을 멈추시였다.

그 그림은 회화학부 한 학생의 작품이였는데 새로 지은 교실로 뛰여들어오며 환성을 올리는 인민학교 학생들의 모습을 형상한것이였다.

해빛 밝은 교실, 송진내 풍기는 새 책상들이 렬을 지었는데 교실에 들어서는 아이들은 너무 기뻐 어쩔줄 모른다. 아이들의 얼굴마다에 빛나는것은 기쁨과 자랑뿐이 아니다. 그들의 웃음핀 얼굴마다에는 전후 재더미우에서 제일 선참으로 학교를 일떠세워주시고 이렇듯 아담한 배움터를 안겨주신 경애하는 아버지 **김일성**원수님에 대한 끓어넘치는 감사와 충성의 맹세가 넘쳐흐르고있었다.

실로 그 그림은 전쟁을 이겨내고 재더미우에서 조국을 일떠세우는 우리 인민의 불굴의 기상과 희망을 형상적으로 잘 보여주고있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이 그림이 구상이 아주 훌륭하다고 하시면서 이것은 하나의 자그마한 생활을 그림에 반영하고있지만 그 내용을 전후복구건설의 전망과 련결시키고있기때문에 그 사상적의의가 크며 예술적가치가 더 있는것이라고 가르치시였다. 그러시고는 이런 그림은 구상하기가 어려울것이라고 하시면서 사진보도식자료를 그린 그림보다 퍽 가치가 있지 않는가, 그것은 생활의 진실을 발견하고있기때문이라고 말씀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가르치심을 한자한자 적어나가던 우리는 그 순간 가슴이 뜨거워올랐다. 바로 두달전 우리 학생들이 전후복구건설전투를 지원하여 건설장에 나갔을 때 어버이수령님께서 몸소 우리 대학생들의 작업장을 찾아주시고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던 때의 일이 새로운 의미로 되살아났기때문이다.

그날 어버이수령님께서는 대학생들의 일터를 돌아보시다가 우리 대학 학생들의 작업장에도 들리시여 기세가 대단히 좋다고 만족해하시면서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였던것이다.

어버이수령님께서는 그림을 그리는 동무들에게 이러한 체험은 귀중한것이라고 하시면서 이렇게 젊었을때 삽질도 하고 질통도 져보면 생활에서 로동이 얼

마나 귀중하다는것을 알게 되는만큼 한번씩 해볼만한 일이며 앞으로 창작생활에서 귀중한 밑천으로 될것이라고 가르쳐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계속하시여 우리의 미술을 나라와 인민을 위한 그림으로, 당과 로동계급을 위한 혁명적인 회화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강조하시였다.

그이께서는 이어 전후복구건설사업이 도처에서 벌어지고있는데 그림 그릴 내용이 많아질것이라고 하시면서 때문에 체험이 중요하다고 하시고 혁명적인 좋은 그림을 많이 그릴데 대하여 교시하시였다.

그이께서는 또한 미술은 근로자들을 공산주의세계관으로 교양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하시면서 앞으로 사회주의건설에 관한 그림, 혁명투쟁에 관한 그림을 그려야 할 임무가 동무들에게 맡겨져있는데 이렇게 하기 위하여서는 학습도 잘하고 일도 잘하여야 한다고 가르쳐주시였다.

어버이수령님의 이 간곡한 가르치심속에는 리론과 실천, 교육과 생산로동을 결합시킬데 대한 그이의 위대한 교육사상이 깃들어있었으며 들끓는 현실속에서만 쓸모있는 민족간부도 재능있는 예술가도 나올수 있다는 깊은 뜻이 담겨져있었다.

우리 대학 교원, 학생들의 학습과 창작수업에서 적으나마 성과가 있었다면 그것은 바로 어버이수령님께서 이처럼 간곡히 일깨워주신 가르치심이 계시였기때문이다.

그런데 어버이수령님께서는 그 모든 성과를 저희들에게 돌려주시며 과분한 치하를 안겨주시는것이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계단을 오르시여 2층전람실들을 돌아보시며 어느 방에서는 한폭의 그림에서 미래의 공훈예술가의 재능을 찾아주시기도 하시고 한점의 조각작품앞에서는 아직은 미개척분야로 남아있는 우리나라 조각예술의 전망을 찬란히 펼쳐주시기도 하시였다.

이윽고 그이께서는 조선화 《금강산》앞에 이르시였다.

그 작품은 우리 나라의 명승인 금강산의 일경을 대담하게 채색화로 그린 풍경화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그 그림을 오래도록 보아주시고 아주 잘된 작품이라고 만족을 표시하시면서 귀중한 가르치심을 또 주시였다.

어버이수령님께서는 조선화는 이 그림과 같이 선명하고 아름다와야 하며 앞으로 조선화는 이렇게 발전시켜나가는것이 좋겠다고 하시면서 조선화는 언제나 조선사람의 감정에 맞는다고 하시고 조선화를 더욱 발전시켜나갈 과업을 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전람회를 보시고 조선화를 적극 발전시키며 조선사람의 감정에 맞게 선명하고 아름답게 그릴데 대하여 밝혀주신것은 실로 우리 나라 미술발전에서 거대한 리론실천적의의를 가지는 현명한 가르

치심이였다.

그때까지만 해도 일부 미술가들속에서는 묵화를 그대로 답습하는것이 조선화의 전통을 살리는것인듯이 그릇되게 생각하면서 조선화발전에 적지 않은 난관을 조성하고있었으며 그로 인하여 혁명과 건설의 주인으로 된 근로인민들의 정신도덕적풍모와 전후복구건설의 벅찬 현실을 조선화에 구현하기 위한 피나는 노력을 경주하지 못하고있었다.

이렇듯 주체적미술발전도상에 나타나고있던 엄중한 장애를 제때에 간파하여오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바로 이 자리에서 조선화의 발전방향을 깨우쳐주시며 우리들이 나갈 앞길을 환히 밝혀주시는것이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무려 세시간동안에 걸쳐 잠시도 쉬시지 않으시고 전시된 작품들을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지도해주시였으며 우리 학생들의 꽃피는 재능을 두고 시종 기뻐하시였다.

이윽고 전람회장을 다 돌아보신 어버이수령님께서는 만면에 환한 미소를 지으시며 저희들에게 분에 넘치는 치하의 말씀을 하여주시였다.

어버이수령님께서는 미술대학의 성과가 크다고 하시며 특히 교원들이 우리 당의 문예정책을 받들고 학생들을 잘 가르친 결과 오늘과 같은 훌륭한 성과를 보여주었다고 말씀하시였다.

그러시고는 미술대학에서 사회주의사실주의미술의 견실한 토대가 닦아졌다고 말할수 있다고 하시면서 앞

으로 젊은 학생들을 더 훌륭하게 키워 우리 나라 미술발전에 기여하여야 하겠다고 교시하시였다.

이 얼마나 믿음과 사랑에 넘치는 말씀인가.

미술에서 사회주의사실주의창작방법의 토대가 닦아졌다고 하신 이 말씀은 우리 대학 사업에 대한 가장 높은 평가였으며 학생들을 더 훌륭하게 키워 우리 나라 미술발전에 기여할데 대한 가르치심속에는 우리 대학 교직원, 학생들에 대한 가장 두터운 신임과 기대가 깃들어있는것이였다.

우리 학생들의 작품이 잘되였으면 얼마나 잘되였겠는가. 그것은 어디까지나 배우는 학생들의 작품이였고 부족점이 적지 않은 창작품들이였다.

그러나 어버이수령님께서는 아직은 어린 새싹이였지만 그것을 귀중히 보시고 못내 기뻐하시면서 우리 교원, 학생들을 한없이 고무격려해주시였던것이다.

진정 우리 학생들의 적은 성과도 그처럼 대견히 여기시는 위대한 수령님의 그 기쁨속에는 나라 없던 지난날 억눌리고 짓밟혔던 이 나라 청소년들의 슬기와 재능이 해방된 이 땅우에 우후죽순처럼 움터오르는것을 바라보시는 친어버이심정이 그대로 깃들어있었으며 민족적존엄을 지킨 강토우에 민족예술의 거창한 화원을 끝없이끝없이 꽃피워가시려는 그이의 높으신 뜻이 깃들어있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뜨거운 눈물로 두볼을 적시며 《만세!》의 환호를 올리는 교직원, 학생들에게 손을

흔들어주시고 천천히 교문밖으로 걸어나가시였다.

길은 지금 한창 고층건물들이 일떠서고있는 건설장을 향해 곧바로 뻗어있었다.

어버이수령님께서는 온갖 피로를 다 잊으신듯 만면에 환한 웃음을 담으시고 그 길을 걸으시였다. 정문곁에 차를 그냥 남겨두신채 힘있는 걸음을 전람회장에서 건설장으로 옮기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바로 그 미소, 그 기쁨을 안으시고 평양중심거리 건설장을 현지지도하시였던것이다.

그때로부터 10여일이 지난 그해 8월 18일.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또다시 관계부문일군들을 가까이 부르시여 우리 대학사업과 주체적미술발전에서 강령적지침으로 되는 교시를 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만일 우리의 미술을 조선화를 토대로 하여 발전시키지 않는다면 우리 나라의 사회주의적민족미술을 주체적으로 건설해나갈수 없다고 하시면서 그러므로 미술가들은 간결하고 선명한 조선화의 전통적화법을 깊이 연구하여 우리 나라 미술을 조선적인 바탕우에서 더욱 발전시키는데 큰 노력을 기울여야 할것이라고 하시고 미술대학에서도 조선화과를 확장하고 그 교육사업을 강화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교시하시였다.

나는 그후 1958년에 대학에서 나와 다른 직무에 조동되였다.

그러나 나는 그후에도 어버이수령님의 끊임없는 배려밑에 대학사업이 날로 발전되고있는 소식에 접하고 크나큰 감격을 금할수 없었다.

졸업생들가운데는 인민예술가, 공훈예술가, 로력영웅들이 된 동무들도 많다.

오늘 혁명의 수도 경치좋은 한 구역에 자리잡은 평양미술대학은 웅장한 고층교사에 천여명의 학생을 가지고 여러 부문의 학부와 수십개의 학과 그리고 《민족미술연구소》와 연구원을 갖춘 큰 대학으로 되였다.

세상엔 나라가 많지만 전문미술대학을 가진 나라는 많지 못하며 더우기 우리의 미술대학과 같은 종합적인 미술대학을 가진 나라를 찾아보기 어렵다는 사실을 생각할 때 우리는 자라나는 우리 미술의 새세대들이 향유하고있는 행복에 대하여 다시금 깊이깊이 느끼지 않을수 없다.

사람들은 그 행복의 갈피마다에 깃들어있는 어버이수령님의 위대한 사랑을 영원토록 잊지 못할것이며 온 세상에 찬연히 빛을 뿌리는 주체적이며 혁명적인 우리 미술의 새시대가 어떻게 마련되였는가를 대를 두고 길이 전하고 또 전할것이다.

잊지 못할 전국농촌 예술소조축전

리 면 상

오늘 세상사람들의 경탄속에 나날이 개화발전하는 주체예술을 자랑하며 한없는 감동과 행복에 휩싸일 때마다 우리는 먼저 그 뿌리가 내려진 자양 많은 토양에 대하여, 그렇듯 아름답고 향기 그윽한 예술의 화원을 꽃피워주는 은혜로운 빛발의 고마움에 대하여 더욱 깊이 생각하게 된다.

나는 이런 마음이 솟구칠 때마다 혁명과 건설의 중하를 한몸에 지니신 그 바쁘신속에서도 우리의 예술이 나아갈 앞길을 환히 밝혀주시며 근로인민대중을 참다운 예술의 창조자, 향유자로 높이 세워주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원수님의 크나큰 은정을 뜨거운 가슴속에 되새겨보군한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일찌기 예술은 군중속에 뿌리를 박고 군중의 힘과 지혜에 의거해야만 빨리 발전할수 있다고 가르치시였다. 이 간곡한 가르치심은 그

대로 우리 예술이 나아갈 앞길을 밝혀주는 강령으로, 우리 예술인들의 창조와 생활의 걸음걸음을 이끌어주는 지침으로 되였다.

지금도 위대한 수령님을 모시고 진행된 전국농촌예술소조축전 종합공연의 나날에 그이의 귀중한 가르치심을 받아안던 감격과 흥분이 어제런듯 새롭기만 하다.

기억도 새로운 1961년 1월 24일이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크나큰 배려에 의하여 성과적으로 진행되여온 전국농촌예술소조축전은 이날부터 한번에 두개 도씩 출연하는 방법으로 종합공연을 가지게 되였다.

이날 평양시와 평안남도 예술소조원들의 합동공연으로 축전종합공연의 막을 올리게 된 모란봉극장은 개막 몇시간전부터 흥성거리였다.

당시 축전심사위원회 성원으로 음악부문심사를 책임지고있던 나는 이날 공연을 앞두고 바쁜 시간을 보내고있었다.

우리들은 심사사업에서 등수만 매길것이 아니라 작품을 보고 친절히 고쳐주는것이 아주 필요하다고 하신 어버이수령님의 가르치심을 명심하고 축전작품의 창작가, 출연자가 된 립장에서 공연을 준비해온만큼 모두가 첫 공연에 마음을 쓰고있었던것이다.

그런데 그때 밖에서 《위대한 수령 **김일성**원수님 만세!》 하고 우렁찬 환호성이 터져올랐다. 우리는 문

쪽으로 달려갔다.

그 순간 우리는 너무도 큰 감격과 행복감에 휩싸여버렸다.

오매에도 그리던 위대한 수령님께서 농촌예술소조원들의 공연을 보아주시려고 극장에 나오신것이였다.

만세소리로 극장은 떠나갈듯하였다. 관람온 사람들도 공연준비를 한 예술소조원들도 두볼로 흘러내리는 눈물을 닦을 생각도 못하고 만세를 불렀다.

우리 축전준비성원들도 모두 뜨거운 감동으로 하여 가슴이 벅차올랐다. 우리는 도별 공연이 전부 끝난후 종합공연에는 어버이수령님을 모셔야 하겠다는 소원을 품고 축전을 진행해오던것만큼 도별 종합공연이 시작되는 첫날 어버이수령님께서 극장을 찾아주실줄은 꿈에도 생각지 못하고있었던것이다.

우리의 예술을 군중적토대우에서 개화발전시켜나가실 원대한 구상을 지니시고 일찌기 농촌예술소조사업을 발전시키시기 위해 따뜻한 은정을 베풀어주시였으며 오늘은 이처럼 전국농촌예술소조축전을 친히 마련해주신 어버이수령님!

축전사업을 하나하나 보살펴주시면서 한번에 두개도씩 공연하는 방법으로 될수록 많은 동무들이 출연하여 그 경험을 서로 나누도록 배려하여주신 어버이수령님께서 오늘은 이처럼 그 첫 공연을 친히 보아주시려고 몸소 극장에 나오신것이였다!

이윽고 공연개막의 시각은 왔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만장의 열화같은 환호에 답례를 보내시며 관람석에 나오시였다.

무대우에는 조선옷을 곱게 입은 소개자가 나타났다.

소개자는 온 나라 농업근로자들의 한결같은 마음을 담아 우리 농민들을 세기적인 빈궁과 락후로부터 영원히 해방시켜주시였으며 오늘은 인민의 기쁨과 행복이 무르익는 협동벌에 노래와 춤까지 넘쳐나게 해주시기 위하여 그토록 심려하시는 어버이수령님께 최대의 영광을 드리며 그이께서 만수무강하시기를 삼가 축원하여 인사를 올렸다.

장내에는 다시금 폭풍같은 환호가 터져올랐다.

그이께서는 만면에 자애깊은 미소를 지으시고 손을 들어 답례를 보내시였다.

공연은 처음부터 절찬을 불러일으켰다. 무용, 민족관현악병창… 종목이 바뀔수록 장내는 열정의 도가니로 화하였다. 출연자들과 관람자들이 꼭같은 흥분에 휩싸여버렸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매 종목이 끝날 때마다 제일먼저 박수를 보내주시며 농촌예술소조원들의 재능을 높이 치하하시였다.

농민들이 농사만 잘 짓는것이 아니라 예술도 잘합니다.

독무 《사과 따는 처녀》도 잘하고 민족관현악병창 《당의 부름따라》도 아주 잘합니다. 다 일등을 주어야

하겠습니다.

우리 축전준비성원들과 예술소조원들이 첫 공연에 대한 가르치심을 받으러 달려갔을 때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이날 공연이 높은 성과를 거둔데 대하여 다시금 만족을 표시하시였다. 우리는 크나큰 행복감으로 하여 눈시울이 젖어들었다. 그이께서는 앞으로 진행될 도별 공연순위를 친히 료해하시고나서 분에 넘치게도 저희들에게 더없는 영예를 안겨주시는것이였다.

두개 도의 공연이 끝날 때마다 한번씩 꼭 보겠습니다. 경제건설만 볼것이 아니라 문화건설도 보아야 하겠습니다.

그날저녁 우리는 밤깊도록 자리를 뜨지 못했다.

베풀어주신 사랑이 너무도 크고 안겨주신 믿음이 너무도 고마와 높뛰는 가슴속에 새로운 맹세를 다지고 또 다졌다.

우리는 그날부터 매개 도의 공연을 더욱 빈틈없이 준비하기 위한 사업을 전투적으로 밀고나갔다.

예술소조원들은 어버이수령님 앞에서 공연하게 된 끝없는 감격과 행복을 안고 낮에 밤을 이어 훈련을 거듭하였고 자기들의 공연날자가 다가오기를 손꼽아기다렸다.

1961년 1월 28일.

위대한 수령님께서 황해남도와 황해북도 농촌예술소조원들의 종합공연을 보아주시려 극장으로 나오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이날 공연도 처음부터 하나하나 보아주시며 공연성과를 치하해주시였고 청년들이 농촌에 진출하여 예술소조활동을 이끌어나가는것은 참 좋은 일이라고 기뻐하시며 앞으로 사회에서 단련된 동무들을 대학에 보내여 공부를 시켜 훌륭한 예술인으로 키워야 한다고 더없는 믿음과 신임을 안겨주시였다. 그리고 민요제창 《우리 당 정책 좋구 좋네》에 출연한 아홉명의 로인들에게 대를 두고 길이 전할 선물을 보내주시는 크나큰 은정을 베풀어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그후 2월 4일에는 평안북도와 개성시의 종합공연을 보아주시였고 며칠후인 2월 8일에는 강원도와 자강도의 종합공연을 지도하여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공연들을 보시고 예술이 생활속에서 창조되였기때문에 아주 생동하며 농촌예술소조가 생활을 반영하는 면에서 평양수준을 릉가한다고 못내 기뻐하시면서 알곡 100만톤 증산과제를 다하고 다음해에 또 오라고 예술소조원들을 고무격려하여주시였다.

크나큰 사랑속에 도별 종합공연의 나날은 흘렀다.

우리는 함경남도와 창성군의 종합공연을 성의껏 준비하고있었다.

그러던 1961년 3월 4일.

나는 몇몇 일군들과 함께 어버이수령님을 뫼가까

이에 모시는 영광을 지니게 되였다.

그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문예총결성대회가 성과적으로 진행되였다는 보고를 받으시고 문예총중앙위원회 집행위원들을 친히 불러주신것이였다.

우리는 감격으로 설레이는 마음을 안고 그이께서 계시는곳으로 달려갔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저희들을 반갑게 맞아주시면서 이번에 문예총조직이 나온데 대해 기뻐해주시는것이였다.

나는 인자하신 미소로 빛나는 그이의 모습을 우러르는 순간 가슴에 커다란 충격을 느끼며 눈굽을 적시였다.

미제를 쓸어눕힌 이 땅우에 하루빨리 인민의 락원을 일떠세우시기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치시는 어버이수령님! 경제건설만 볼것이 아니라 문화건설도 보아야 하겠다고 말씀하시며 승리한 이 땅우에 공산주의미래를 대표하는 혁명적이며 인민적인 참된 예술을 꽃피워주시기 위해 온갖 로고를 기울여오시는 어버이수령님!

문학예술인들을 우리 당의 보배들이라고 믿어주시고 아껴주시며 이 세상 그 어느 예술인들도 누리지 못하는 크나큰 행복과 영예를 안겨주시는 어버이수령님!

진정 그이께서는 해방직후 흩어져있는 작가, 예술인들을 한사람한사람 친히 부르시여 크나큰 한품에 안아주신 그때로부터 수많은 문학예술인후비들을 몸소 키

워나가시는 오늘에 이르기까지 근로인민대중에게 참다운 예술을 안겨주시기 위한 사업을 어느 하루도 잊으신적 없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이날 우리의 문학예술이 지니고있는 거대한 사명과 우리 당 선전력량의 주력부대의 하나인 문예총조직이 수행해야 할 임무와 역할에 대하여 명철한 가르치심을 주시였다.

또한 력사적인 접견이 있은 이날 함경남도와 창성군 예술소조원들의 종합공연도 보아주시였다. 우리모두의 감격은 헤아릴수 없이 컸다.

이날 공연도 성과적으로 진행되였다.

이날도 어버이수령님께서는 예술소조원들의 공연을 높이 평가하시였으며 그들에게 크나큰 배려를 거듭 안겨주시였다.

특히 퉁소를 분 한 로인에게는 음악대학교원으로 가서 후대들을 많이 키워내도록 하라고 크나큰 배려를 돌려주시였다.

이때 모든 사람들은 너무도 크나큰 감동으로 하여 가슴을 들먹이였다.

어제날의 머슴군이 위대한 장군님의 은덕으로 땅의 주인, 협동벌의 주인이 되여 그 기쁨을 평양의 무대에서 마음껏 노래한것만도 꿈같은 일인데 어버이수령님께서는 그 재능을 귀중히 여기시여 퉁소의 대를 이어야겠다고 하시며 대학교단에까지 불러주시니 세상에 이런 일이 그 언제 있었던가!

실로 꿈만 같았지만 그것은 엄연한 현실이였고 그이께서 마련해주신 우리 제도하에서만 있을수 있는 또 하나의 전설같은 사실이였다.

하여 머슴살이 고역과 멸시의 설음을 담아 불던 목동의 퉁소소리, 일제놈들의 총칼을 피해가며 원한을 안고 남몰래 불던 농민의 퉁소소리가 어버이수령님의 은혜로운 빛발아래 음악교육의 전당— 대학강실에서 울려나오게 되였다.

기쁨과 감격 속에 축전의 나날은 흘러 마감공연의 날이 다가왔다.

잊을수 없는 1961년 3월 7일!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축전의 마감공연을 장식하는 량강도와 함경북도의 종합공연을 보아주시려 극장으로 나오시였다.

축전준비성원들은 모두가 오늘 공연도 그이의 마음에 드셨으면 하는 꼭같은 소원을 품고 흥분된 심정으로 개막시간을 기다렸다.

이윽고 위대한 수령님께서 만면에 환한 웃음을 지으시고 관람석에 나오시였다.

순간 장내는 《만세!》의 환호로 떠나갈듯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출연자들과 관람자들에게 답례를 보내시며 어서 시작하라고 친히 손을 흔들어주시는것이였다.

장내에 서서히 불이 꺼지며 막이 올랐다.

무대에서는 민족기악중주가 울려퍼지기 시작했다. 흥겨운 음악속에서 구성진 퉁소소리가 듣기 좋게

울리였다.

출연자들속에는 머리 흰 로인들도 있었고 갓 학교를 졸업하고 농촌에 진출한 청년들도 있었다. 리당위원장도 북을 쳤고 나이 지긋한 녀인들도 가야금을 탔다. 그야말로 한작업반이 모여앉아 쉴참을 즐기는것 같기도 했고 하루일이 끝난 저녁 가족들이 모여앉아 재간내기를 하는것 같기도 했다.

화려한 의상을 떨치고 앉아 어깨춤을 추는 그들, 가야금줄우에 넘나드는 그 손들을 보느라면 그들은 이랑을 타고 김을 매는 농민들이 아니라 거문고를 안은 선녀들처럼 보이는것이였다.

장내에서는 박수갈채가 일어났다. 음악은 더욱 고조되였다. 관람자들과 출연자들은 격앙된 감격속에서 같이 숨쉬고 같이 흥분되였다.

연주가 끝나고 여운이 사라지기도전에 극장안은 열광적인 환호로 들끓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매우 만족하신듯 몸소 박수를 보내주시면서 환히 웃고계시였다.

그이께서는 공연을 보시면서 작품의 사상예술적내용에 대하여 세심한 가르치심을 주시기도 하시였다.

나는 그날 공연이 언제 끝났는지 잘 알수 없었다.

한달이상에 걸쳐 진행된 축전이 오늘 저녁공연으로 전부 끝났다는 생각보다도 공연이 그이께 심려를 끼쳐드리지 않았는지 하는 송구스러움을 금할수 없었

던것이다.

그런데 마음을 진정시키지 못하고 서성거리는 우리들에게로 한 일군이 급히 달려왔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우리들을 찾으신다는것이였다.

우리들을 잊지 않으시고 몸가까이 불러주시는 그이의 깊은 은정에 모두는 가슴이 후더워올라 한동안 서있기만 하였다.

우리는 서둘러 몸차림을 바로잡고나서 그이께서 계시는 방으로 달려갔다.

《그간 수고가 많았습니다. 어서 들어들 오시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정중하게 인사를 드리는 저희들의 손을 일일이 잡아주시며 반갑게 맞아주시였다. 그이께서는 축전준비성원들에게 그간 애로된 점은 없었는가 따뜻이 물어주시기도 하시고 낯익은 예술소조원들을 보시고는 공연을 잘했다고 어깨를 두드려주시기도 하시였다. 아직은 부족한점이 너무도 많은 공연을 이토록 치하하시며 대견히 여겨주시는 그이의 말씀속에는 송구스러움을 금치 못하는 저희들의 마음을 풀어주시려는 너그러운 뜻이 깃들어있었다. 나는 자애로운 수령님을 우러르며 북받치는 감격에 목이 메여올랐고 숭고한 감정에 휩싸여 못박힌듯 서있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의자에 앉으시려다가 구석쪽에 서있는 저를 보시더니 자신의 옆자리에 와앉으라고

친히 불러주시는것이였다.

나는 그만 우뚝 선채 머뭇거리기만 하였다. 그이께서는 다시금 저를 부르시여 곁에 앉히시고서야 자리에 앉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좌중을 둘러보시며 모두 편히들 앉으라고 재삼 이르신 후에야 그간 진행된 공연들을 총화하시면서 만족한 음성으로 말씀하시는것이였다.

《공연이 다 잘되였습니다. 우리 농민들은 농사만 잘 짓는것이 아니라 예술소조활동도 잘합니다. 우리나라는 농사도 풍년이고 예술도 풍년입니다.

나는 전국농촌예술소조축전이 훌륭한 성과를 거둔데 대하여 매우 만족하게 생각하며 축전에 참가한 전체 예술소조원동무들을 열렬히 축하합니다.》

이 얼마나 분에 넘치는 치하의 말씀인가!

그 순간 우리들은 가슴이 뭉클해지고 눈굽이 후덥게 달아올랐다.

우리 나라는 농사도 풍년! 예술도 풍년!

우리 농민들은 농사에도 능수! 예술에도 능수!

반만년 이 나라 오랜 력사에 언제 이런 때가 있었던가!

그것은 오직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와 크나큰 사랑속에서만 태여날수 있은 기적이며 그이께서 마련해주신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하에서만 현실로 꽃필수 있는 사실이였건만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그 모든

성과를 예술소조원들에게 돌려주시는것이였다.

진정 돌이켜보면 위대한 수령님께서 문학예술을 대중화할데 대한 독창적인 방침을 밝혀주시고 그 실현을 위한 투쟁을 몸소 이끌어주신 크나큰 사랑의 이야기는 끝이 없다.

해방직후 당을 세우고 나라를 세우고 정규적혁명무력을 건설해야 하는 등 어렵고 복잡한 일들이 한꺼번에 제기되던 그 바쁘신 때에 벌써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근로대중속에서 예술소조활동을 발전시키는 문제를 문화건설의 중요한 부분으로 보시고 세심한 지도와 깊은 배려를 돌려오시였다.

어버이수령님을 한자리에 우러러모시고 가르치심을 받게 된 이 시각 그이를 처음으로 만나뵈온 영광의 자리에서 문화예술의 대중화방침을 밝혀주시는 그이의 가르치심을 받아안던 잊을수 없는 그날의 감격이 선히 떠오르는것이였다.

그것은 1946년 5월 24일, 북조선 각 도인민위원회, 정당, 사회단체 선전원, 문화인, 예술인대회때였다. 나는 영예롭게도 이 대회에 참가하여 그이의 가르치심을 받는 영광을 지니게 되였던것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이 대회에서 **《문화인들은 문화전선의 투사로 되여야 한다.》**라는 력사적인 연설을 하시면서 문화예술이 대중을 위한것으로 되게 할데 대한 독창적인 방침을 제시하시고 그 방도들에 대해서도

명확히 밝혀주시였다.

참으로 이 방침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창시하신 주체사상을 문화예술분야에 구현한것으로서 그이께서 영광스러운 항일혁명투쟁시기에 친히 혁명적군중로선관철에서 이룩하신 빛나는 업적과 풍부한 대중정치사업경험에 기초한것이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대회에서 명확한 방침을 제시하신후 그 실현을 위한 투쟁을 현명하게 이끌어주시였으며 몸소 위대한 모범을 보여주시였다.

그이께서는 일제와 그 주구들이 소유하고있던 일체 문화예술수단들을 인민의 소유로 만들도록 하시였으며 모든 단위, 모든 초소마다에 예술소조들을 광범히 조직하도록 지도하시는 한편 그를 거점으로 하여 근로대중속에서 군중문학예술활동을 활발히 벌려나가도록 세심히 보살펴주시였다.

그리하여 지난날 예술로부터 멀리 떨어져있던 우리 인민들앞에는 예술을 마음껏 즐기고 그 창조사업에도 직접 참가할수 있는 넓은 길이 열려지게 되였다. 그리하여 우리의 예술은 생활속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군중의 지혜에 튼튼히 의거하여 개화발전할수 있는 진정으로 혁명적이며 인민적인 예술로 끝없이 발전해나갈수 있게 되였던것이다. 바로 이처럼 어버이수령님의 한량없는 사랑과 배려 속에서 다른 모든 문학예술분야와 마찬가지로 군중예술소조활동은 그토록 높은 경지에서 발전하기 시작했고 수많은 예술소

조경연대회의 조직으로 온 나라가 흥성거리게 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공장과 농촌을 현지지도하실 때마다 예술소조원들의 공연을 보아주시고 그들을 고무하여주시였으며 기회가 있을적마다 그들을 불러주시는 크나큰 믿음을 안겨주시였다.

어버이수령님의 부르심을 받은 끝없는 감격을 안고 달려온 전국의 예술소조원들은 우리 당 제2차대회의 경축공연무대를 아름답게 장식하였으며 건설장들에서 예술소조원들의 춤과 노래가 힘차게 울려퍼졌다.

예술소조원들에게 돌려주시는 어버이수령님의 사랑과 배려는 준엄한 조국해방전쟁의 불길속에서도 더욱 깊어만 갔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이 어려운 시기에도 전국각지에 수많은 전문가들을 파견하시여 도, 시, 군 단위로 농촌예술소조지도원들을 위한 단기강습을 마련해주시였다.

발등에 떨어진 불부터 끄는것은 사람들의 굳어진 상식이며 전쟁시기엔 싸움부터 해야 한다는것이 세상이 보아온 하나의 상례였다.

그러나 우리 나라에서는 인민이 부르는 노래조차 적을 치는 폭탄이 되고 사람마다 전투원이자 곧 예술소조원으로 되였으니 불타는 이 땅우에서는 원쑤격멸의 노래가 힘차게 울려퍼지여 원쑤들을 전률케 하였던 것이다.

전시의 환경에서도 조선인민군군무자예술소조경연대회가 열렸다. 로동자, 농민, 학생 예술소조원들을 망라한 전국예술경연대회도 련일 성황을 이루었다.

미제침략자들을 이 땅에서 소멸하기 위한 피어린 싸움속에서 장중하게 울려퍼진 예술소조원들의 힘찬 노래소리! 그것은 바로 어버이수령님께서 우리 인민들의 가슴마다에 안겨주신 신념의 노래였으며 백전백승의 강철의 령장이신 그이의 령도를 따라 전진하는 우리 인민의 승리의 노래였다!

이리하여 전화속에서 자라난 예술소조핵심력량은 전후에는 벌써 도시와 마을과 초소마다에서 광범한 예술소조활동을 패기있게 벌려나갈수 있게 되였으며 이번 축전을 준비하는 기간에는 어버이수령님의 부름을 받들고 떨쳐나선 전문예술인들의 방조를 받으며 눈부신 예술창조활동을 전개하였다.

이렇듯 위대한 수령님의 따뜻한 보살피심과 극진한 배려 속에서 우리 나라의 예술소조활동은 참으로 놀라운 발전을 이룩하였던것이다.

그런데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이번에 전국적인 범위에서 농촌예술소조축전을 따로 가지도록 친히 축전무대를 마련해주시는 크나큰 배려를 돌려주시였을뿐만아니라 그 공연을 빠짐없이 다 보아주시였으니 우리 작가, 예술인들과 예술소조원들이 가슴속에서 솟구쳐오르는 감격의 눈물을 어떻게 걷잡을수 있었으랴!…

좌중엔 감동의 높은 파도가 굽이치고있었다.

사람마다 격동된 가슴을 지그시 누르며 경애하는 수령님의 말씀을 구절구절 가슴속에 새겨나갔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이번 전국농촌예술소조축전은 우리 나라 농촌에서 군중예술이 매우 빨리 발전하고있다는것을 뚜렷이 보여주었다고 만족을 표시하시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축전에 내놓은 작품들은 특히 생활을 아주 생동하고 진실하게 반영하였습니다. 예술에서 기교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것은 진실성입니다. 농촌예술소조원들이 내놓은 작품들은 농민들의 행복하고 보람찬 생활과 빨리 발전하는 우리 나라 사회주의농촌의 면모를 진실하고 생동하게 그렸으며 정치적으로도 옳게 처리하였습니다.

농촌예술소조원들의 작품이 이와 같이 진실성이 있고 생동한것은 그것이 생활속에서, 로동속에서 창조되였기때문입니다.》

이보다 더 높은 치하, 더 큰 평가가 어데 있으랴!

나는 뜨거운 감동에 휩싸여 그이를 우러러보았다.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대고조를 일으키기 위한 눈부신 투쟁을 령도하시기에 그처럼 바쁘신 위대한 수령님께서 어찌하여 귀중한 시간을 내시여 농촌부문예술소조사업을 몸소 지도하여주시는지, 그이

의 깊은 뜻이 새겨질수록 가슴은 한없이 설레이기만 하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1959년 7월 1일 제7차세계청년학생축전에 참가할 예술인들과 하신 담화에서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전국예술축전 같은것을 정상적으로 조직하면 대중속에서 예술소조활동이 널리 발전할수 있으며 새롭고 아름다운 노래와 춤이 많이 나올수 있습니다.

예술을 대중화할데 대한 우리 당의 방침은 전적으로 정당한것입니다. 동무들은 우리 당의 이 방침을 높이 받들고 예술을 대중화하기 위하여 적극 투쟁하여야 하겠습니다.》

우리 나라에서 사회주의제도가 승리한 새로운 력사적환경은 문학예술분야에서도 당의 군중로선을 더욱 철저히 관철할것을 절실하게 요구하고있었다.

예술이 군중속에 들어가고 군중이 예술창조사업에 광범히 참가할 때에만 빨리 발전하는 사회주의현실을 제때에 반영하고 그것을 인민들의 사상감정과 시대적 요구에 맞게 다양한 예술형식에 담아 노래할수 있으며 예술을 대중자신의것으로 전환시켜 근로자들을 공산주의사상으로 교양하는데 힘있게 이바지할수 있었던것이다.

그런데 문화전선의 중요한 일익을 맡고있는 예술소조사업은 이렇듯 발전하는 시대의 요구에 따라서지 못하고있었으며 더우기 농촌부문예술소조사업은 다른

부문에 비하여 뒤떨어져있는 형편이였다.

그러므로 농촌부문예술소조를 더욱 발전시키는 문제는 절박성을 띠게 되였고 농촌에서 사상, 기술, 문화 혁명을 다그치는데 적극 이바지할수 있는 중요한 고리로 제기되였다.

그런것만큼 이번 농촌예술소조축전은 그 의의가 자못 크다는것을 누구나 잘 알고있었으며 위대한 수령님께서 공연수준이 지난해보다 훨씬 발전하였고 이제는 공장, 기업소 예술소조와 경쟁할만하다고 못내 기뻐하실 때 우리는 모두 행복감을 느끼였다.

그러나 우리는 그때까지만 해도 어버이수령님께서 예술소조사업에 그토록 커다란 의의를 부여하시고 정력적인 지도를 기울여주시는 깊은 뜻을 다는 모르고있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계속하시여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이번 전국농촌예술소조축전을 준비하는 과정을 통하여 농촌예술소조원이 몇십만명으로 늘어났다고 하는데 이것은 참으로 좋은 일입니다. 몇십만명의 농촌예술소조원들이 자라난것은 앞으로 농촌에서 군중예술을 더 빨리 발전시킬수 있는 튼튼한 밑천으로 됩니다. 예술은 군중속에 뿌리를 박고 군중의 지혜에 의거해야만 빨리 발전할수 있습니다. 우리 나라 예술이 그처럼 빨리 발전하고있는것은 광범한 군중속에 그 원천을 두고있기때문입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전체 인민이 다 예술소조원이 되여도 나쁠것이 없다고 못내 기뻐하시면서 다음과 같이 말씀을 계속하시였다.

《우리 나라는 경제만 빨리 발전하는것이 아니라 문학예술도 빨리 발전하는 천리마의 나라입니다. 우리가 이제는 천리마동상을 세울만합니다. 우리가 앞으로도 계속 정치, 경제, 문화의 모든 분야를 다같이 빨리 발전시켜나가면 공산주의에로 제일먼저 들어갈수 있습니다.》

우리는 영광의 그 자리에서 그이의 높으신 뜻을 새겨갈수록 머리가 숙어졌다. 그이께서 축전사업을 지도하여주신 뜻은 단순히 다른 부문에 비하여 뒤떨어져 있은 농촌부문예술소조활동을 추켜세우시며 농민들의 생활을 흥겹게 조직해주시기 위한데만 있는것이 아니였다.

근로대중속에서 예술소조활동을 광범히 발전시키는 문제!— 그것은 실로 빈궁과 무권리로부터 완전히 해방된 근로인민들을 예술의 창조자, 향유자의 지위에 확고히 올려세우는 거대한 사변이였으며 우리의 예술을 주체의 요구대로 발전시켜 공산주의사회에 상응한 문화를 건설해나가는 력사적인 사업이였던것이다.

우리는 그때에야 위대한 수령님께서 축전이 성과적으로 진행되도록 전문일군들을 붙여 도와주도록 하시고 예술소조원들의 생활과 건강에 이르기까지 세심히 보살펴주신 그 깊은 뜻을 깨달으며 눈굽을 적시

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이날 그간 무대에 오른 예술종목들에 대하여 실례를 들어가시며 하나하나 잘된 점들을 치하하시였다.

그이께서는 우선 민요를 바탕으로 하여 새로 지은 노래도 많고 옛날곡을 현대적미감에 맞게 편곡하여 내놓은것도 다 좋다고 하시고 함경남도예술소조에서 출연한 민족기악합주를 높이 평가하시면서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민족기악합주 〈신아우〉는 옛날곡인데 아주 좋습니다. 이 곡을 들으니 승전곡을 듣는 기분이 나고 용기가 납니다. 언제 누가 지었는지는 모르겠으나 애국적감정을 잘 반영한 좋은 군가입니다. 옛날에 우리의 선조들이 이 군가를 부르면서 침략자들을 무찌르는 싸움에서 슬기와 용맹을 떨쳤을것입니다. 이런 곡을 조국해방전쟁때 불렀더라면 인민군대와 인민들의 사기를 더욱 북돋아주었을것이며 미제침략군놈들을 벌벌 떨게 하였을것입니다. 앞으로 옛날의 좋은 곡들을 더 많이 찾아내여 보급하여야 하겠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무용종목들에 대하여도 구체적인 가르치심을 주사면서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무용소품들도 내용이 좋고 안무도 잘하였으며 그 형식도 다양합니다. 독무, 군무, 가무, 농악무를 비롯한 무용소품들이 민족적률동을 잘 살려 농촌녀성들의

아름다운 생활모습과 숭고한 감정세계를 생동하게 잘 보여주었습니다.》

그이께서는 또한 연극 《령너머청년들》 그리고 《우리 조합에서 있은 일》도 잘된 작품이라고 높이 평가하여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공연에서 특출한 재능을 보여준 젊은 동무들을 치하하시면서 분에 넘치는 사랑과 배려를 돌려주시였다.

그이께서는 이번 농촌예술소조축전에 참가한 예술소조원들가운데서 재능있고 전망성있는 동무들을 선발하여 음악대학을 비롯한 예술부문학교들에 보내여 전문예술인으로 키우는것이 좋겠다고 크나큰 배려를 돌려주시였다.

믿음과 사랑에 넘치신 그이의 말씀을 받아안은 우리모두의 가슴엔 세찬 격정의 파도가 일었다.

여기저기에서 흐느낌소리가 들려왔다. 울음을 참아내지 못한것은 어버이수령님의 배려에 의하여 대학생으로 되는 예술소조원들만이 아니였다.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감격의 눈물을 금치 못하였으니 그것은 정녕 어버이수령님께서 우리 모든 예술인들과 농촌예술소조원들에게 베풀어주신 크나큰 정치적신임이였고 무상의 영광이였던것이다.

진정 그날의 기쁨과 감격을 무슨 말로 다 적을수 있으랴!

우리 인민들에게 행복하고 문명한 생활을 안겨주

시고 희망과 노래를 주신분도 위대한 수령님이시며 우리 예술이 나갈 앞길을 열어주시고 우리모두를 그 길우에 손잡아 내세워주신분도 어버이수령님이 아니신가!

우리는 한없는 감격과 행복에 목이 메여 펼쳐든 책장을 소리없는 눈물로 적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또한 우리 나라 농촌에서 군중예술이 빨리 발전하는것은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가 좋기때문이라고 가르치시고 정겨운 눈길로 우리들을 둘러보시더니 조용한 음성으로 다음과 같은 뜻깊은 말씀을 하시였다.

《오늘의 이 행복을 마련하기 위하여 우리는 오래동안 간고한 투쟁을 하였으며 이 투쟁에서 용감히 싸우다 희생된 혁명선렬들도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고생을 하면서 투쟁한 보람이 있습니다. 동무들은 오늘의 행복한 이 제도가 어떻게 마련되였는가를 잊지 말아야 하며 이 제도를 튼튼히 지키고 더욱 발전시켜나가기 위하여 몸바쳐투쟁하여야 합니다. 동무들은 농촌에서 수리화, 전기화, 기계화, 화학화를 힘있게 밀고나가며 우리의 농촌을 더욱 넉넉하고 문명한 사회주의농촌으로 만들기 위하여 적극 투쟁하여야 합니다. 농민들이 힘든 로동에서 해방되고 생활이 더욱 넉넉해지면 좋은 노래와 춤이 더 많이 나올것입니다.》

그이를 우러러보는 우리모두의 가슴속엔 감격의

눈물, 행복의 눈물이 차고넘쳤고 그이의 문예전사로 살며 싸워나가는 무한한 영예와 긍지로 하여 온몸이 불붙는듯하였다.

어버이수령님께서는 또한 우리 나라 농촌에서 군중예술이 발전하고있는것은 농촌근로자들의 일반지식수준과 문화수준이 높아진데 원인이 있다고 밝히시고 몇몇 전문 작가, 예술인들의 지혜와 힘만으로는 문학예술을 빨리 발전시킬수 없다고 하시면서 근로대중을 예술활동에 널리 참가시킬데 대하여 강조하시였다.

그이께서는 농촌에서 보다 많은 사람들을 예술소조에 망라시켜 예술을 더욱더 대중화할데 대한 방침을 재시하시면서 우리는 농촌에서 대중이 다 즐기고 대중이 다 참가하는 그러한 군중예술을 발전시켜나가야 한다고 말씀하시고 예술활동을 협동조합적으로도 하고 작업반에서도 하고 분조에서도 하여야 하며 그리고 집집마다 장구도 치고 가야금도 타면서 모든 농민들이 생활을 명랑하고 문화적으로 하여야 한다고 가르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군중예술의 사명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가르치시였다.

《군중예술은 사상적으로 건전하면서도 소박하고 락천적이여야 합니다. 농촌예술소조들은 간단한 사실을 예술적으로 잘 형상한 작품을 가지고 대중을 교양하는데 기본을 두어야 합니다. 이렇게 하는것이 군중예술의 사명입니다.》

어버이수령님께서는 이렇듯 군중예술의 사명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고나서 이번 축전에 참가한 동무들은 앞으로 농촌군중예술을 발전시키는데서 핵심적역할을 하여야 한다고 하시면서 그러자면 동무들이 당정책학습을 더 잘하여야 하며 현실을 깊이 연구하여야 한다고 간곡히 가르치시였다. 그러시면서 당정책학습을 잘하여 당적사상체계를 철저히 세우고 현실을 옳게 파악하여야만 사상성과 예술성이 높은 훌륭한 예술작품을 창작할수 있으며 농촌예술소조활동을 옳게 지도할수 있다고 강조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예술소조원들이 해야 할 과업에 대하여 밝혀주시였을뿐만아니라 중앙과 도의 전문예술단체들이 예술소조를 더 잘 도와주도록 하며 앞으로 해마다 1월과 2월 사이에 전국농촌예술소조축전을 큰 규모로 조직할데 대하여 가르쳐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이렇듯 1961년 3월 7일 전국농촌예술소조축전참가자들과 하신 담화 **《군중예술을 더욱 발전시키자》**에서 우리의 군중예술을 획기적으로 발전시켜나갈수 있는 방향과 방도를 구체적으로 밝혀주시였다.

실로 이날에 주신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는 우리의 예술을 군중적토대우에서 더욱 찬란히 꽃피워나가는데서, 사회주의, 공산주의 문학예술건설을 더욱 힘있게 떠밀고나가는데서 우리의 모든 작가, 예술인들과 예술소조원들이 확고히 틀어쥐고나가야 할 강령적지침이

였다.

어버이수령님께서 마련하여주신 전국농촌예술소조축전은 성황리에 끝났다.

우리의 농업근로자들은 어버이수령님의 은정이 어린 선물을 안고 대학생이 되여, 또는 대학교원이 되여 돌아온 예술소조원들을 불안고 감격의 눈물을 금치 못하였고 그 기쁨, 그 행복을 노래높이 부르며 알곡 100만톤 증산을 위해 그해 영농전투에서 새로운 위훈을 떨치였고 마침내 승리의 기발을 휘날리였던것이다.

어찌 농업근로자들과 예술소조원들뿐이랴. 작가, 예술인들도 떨쳐나섰다.

작가들은 배낭을 메고 공장과 농촌으로 달려나갔다. 춤과 노래를 가지고 들끓는 전투장으로 찾아간 예술인들도 기대앞에서, 포전머리에서 눈부신 예술공연활동을 벌리였다.

우리 작곡가들도 오선지를 안고 창작기지로 떠났고 대중속에서 배우고 배워주며 창조와 혁신의 나날을 수놓아갔다.

하여 우리 나라 사회주의농촌에서는 집집마다 악기소리가 울려나오고 마을과 일터마다에 군중예술의 아름다운 꽃들이 끝없이 만발하게 되였다.

실로 위대한 수령님께서 그후에도 농촌예술소조의 발전을 위하여 돌려주신 배려에 대한 이야기를 하자면 끝이 없을것이다.

진정 우리의 위대한 수령님처럼 농촌예술소조사업을 그렇듯 중요하게 보시고 그 발전을 위하여 그토록 많은 시간과 정력을 기울이시며 뜨거운 사랑을 돌려주신 사실이 그 어느 나라 그 어느 력사에 또 있을수 있겠는가. 그것은 오로지 우리 인민들에게 오늘의 이 행복을 안겨주시려 한평생을 바쳐오시는 우리의 수령님, 인민들의 세기적숙원이 어리여있는 이 땅우에 근로대중의 기쁨이 노래로 넘치는 인민의 락원을 펼쳐주시기 위하여 온갖 로고와 심혈을 다 기울이시는 인민의 수령 **김일성**원수님의 해빛같은 사랑속에서만 태여날수 있는 불멸의 이야기인것이다!

정녕 그이의 탁월한 문예 사상과 리론이 있고 세련된 령도와 은혜로운 사랑이 있기에 오늘 우리 나라의 공장과 농촌 그 어디에서나 예술소조활동은 문학예술운동의 중요한 일익으로 아름답게 꽃피여날수 있게 되였으며 우리의 예술은 군중속에 튼튼히 뿌리를 내리고 군중의 힘과 지혜에 의거하여 온 세상에 빛을 뿌리는 《세계 최고봉의 예술》, 《인류의 미래를 대표하는 완전무결한 예술》로 세상사람들의 칭송을 받게 된것이다.

나는 위대한 수령님을 몸가까이 모시고 전국농촌예술소조축전을 진행하던 그날의 감격과 결심을 언제나 잊지 않고 그이께서 제시하신 예술의 대중화방침을 더욱 빛나게 관철해나갈 결의에 가득차있으며 대를 이어가며 그이의 문예전사로 충성을 다 바칠 불같은 맹세를 더욱 새롭게 다진다.

은혜로운 품

신 진 순

오랜 세월을 두고 열망하여오던 소원이 문득 이루어지게 될 때 오히려 그것은 꿈처럼 사실로 믿기 어려운 때가 있다.

어버이수령님을 언제나 뵙고싶던 저의 념원은 너무도 뜻밖에 이루어졌다.

그것은 1970년 4월 2일 오후에 있은 일이다. 연한 봄빛이 어데라없이 물들어가는 화창한 날씨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보내신 한 일군이 나를 찾아왔다. 그는 나더러 어데로 잠간 가자고 하였다.

승용차는 대동강의 흐름을 거슬러 달리기 시작하였다. 그때에야 비로소 젊은 일군은 이렇게 말했다.

《이제 어버이수령님을 만나뵙게 됩니다.》

이 뜻밖의 말에 나는 어찌할바를 몰랐다. 실로 꿈같은 일이 아닐수 없었다. 어버이수령님을 뵈온지 24년만에 그처럼 언제나 만나뵙고싶던 그 소원이 이처럼 평범한 날에 이루어지리라고야 어찌 생각이나 했

으랴.

어찌하여 위대한 수령님께서 저를 부르셨을가?…이런 생각과 함께 혁명앞에 너무도 해놓은 일 없이 어떻게 어버이수령님을 뵈올가 하는 걱정에 잠겼는데 벌써 차가 멎어섰다.

넓은 마당 건너편에 오매에도 그리던 위대한 수령 **김일성**원수님께서 수원들과 함께 서계시였다.

오래동안 헤여졌던 친어버이를 다시 만난듯 저는 한없이 그립던 자애로운 수령님의 품을 향해 한달음으로 달려갔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자애로운 미소를 지으시고 저의 두손을 뜨겁게 잡아주시였다. 저는 눈물이 쏟아져내리여 인사말도 제대로 올리지 못하였다.

어버이수령님께서는 감회가 깊으신듯 저더러

《머리가 세였구만.》 하시고는 더 다른 말씀을 하지 않으시고 저의 어깨를 강안쪽으로 돌려세우시며 걸음을 옮기시였다.

저녁안개가 점점 짙게 엉키여 물기머금은 대동강가의 수양버들이 검게 보였다. 어버이수령님께서는 말씀보다 생각을 더 많이 하시며 묵묵히 걸으시였다.

나의 눈앞에는 어느덧 해방직후의 일들이 하나하나 스쳐지나갔다.

…그때는 해방이라는 커다란 력사적사변으로 착취와 억압에서 해방된 인민대중의 혁명적열의가 활화산처럼 터져오르던 시기였다.

서울에서 대학졸업식을 며칠 앞두고 해방을 맞이한 나도 대중의 이 열풍속에 휩쓸려들어갔다.

해방과 함께 온 남녘땅을 흥분시킨것은 전설적영웅이신 **김일성**장군님께서 서울에 나오신다는 격동적인 소식이였다. 일제의 식민지 암흑속에서 오로지 그이의 존함을 외우며 희망속에 살아온 우리 인민들이였기에 그이께서 조국을 해방하시고 서울에 오신다는 소문이 돌자 서울을 비롯한 온 남녘땅이 그처럼 흥분과 기쁨속에 들끓었던것이다.

내가 위대한 수령님의 존함을 처음으로 들은것은 녀학교시절이였다.

민족적영웅이신 위대한 **김일성**장군님께서 령도하시는 조선인민혁명군이 신출귀몰한 전법으로 일제놈들을 여지없이 무찌르고있으니 이제 위대한 장군님에 의해 조선이 독립될 날도 멀지 않았다는 격동적인 이야기를 듣고 그때 우리는 그 얼마나 큰 흥분속에 밤을 지새운지 몰랐다.

참으로 위대한 장군님의 존함은 이 나라 인민들의 가슴에 밤하늘의 항성처럼 새겨졌다. 하기에 위대한 장군님께서 서울에 오신다는 소식은 온 남녘땅인민들속에서 폭풍같은 환희를 불러일으켰다.

서울에서는 민족의 위대한 태양이신 **김일성**장군님을 성대히 맞이하기 위한 준비사업이 진행되였다.

당시 서울의 정세는 복잡했다. 숱한 《연설쟁이》들이 나타나서 저마다 조선의 《맑스》와 《레닌》이라 자처

하며 자기만이 가장 정당하고 자기가 발언하지 않으면 조선의 운명이 기울어지기라도 할듯이 제마끔 목이 쉬도록 웨쳐댔다.

뭐가 뭔지 알수 없는 《연설》과 《리론》의 탁류속에서 나는 정신이 얼떨떨해있었다.

과연 해방된 조선은 어디로 나가야 하는가? 누구의 말이 옳은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종잡을수가 없었다. 그처럼 고대하는 장군님께서 언제면 서울에 오실려는지…

이러한 때 사람들은 민족의 태양 **김일성**장군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려고 평양으로 떠나갔다.

나도 마침내 결심하였다.

평양으로 가자! 위대한 장군님을 만나뵙고 그이의 가르치심을 받자!

그리하여 나는 몇몇 동료들과 함께 북으로 왔다.

북조선에 들어서니 대중의 혁명적열의는 더욱 뜨겁게 달아올랐다.

그런데 위대한 장군님을 단 한번만이라도 만나뵈옵기를 바라는 저의 평생의 소원은 쉽게 이루어질수 없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이때 인민들속에 깊이 들어가시여 건당, 건국, 건군의 위대한 구상을 실현하시는 길에 들어서신 시기였다.

그러던 어느날 나는 일생을 두고 잊을수 없는 그런 영광의 날을 맞이했다.

그날의 감격을 나는 어제일처럼 생생히 기억한다.

한번은 해방산가까이에 있는 어느 2층벽돌집에 한 녀동무와 같이 간 일이 있었다.

집에 들어서니 키가 후리후리한 젊으신분이 창문으로 비쳐드는 해별을 받으시며 말씀을 하고계시였다.

그분께서는 현단계에서 나라와 민족과 민주를 사랑하는 모든 사람이 단결하여 민주주의적인 자주독립국가를 건설할데 대하여 아주 간명하고 알기 쉽게 말씀하시였다. 명철하고 구체적이고 뜻이 깊은 그이의 말씀은 나의 심장을 틀어잡았다. 실로 사람들을 새 조선 건설에로 부르는 얼마나 강력한 큰 힘이 그이의 말씀에 깃들어있는가.

그분의 눈빛은 휘황한 광채로 빛나시고 우렁우렁하신 그분의 음성은 강철같은 론리의 힘으로 울리는것이였다.

우리 조선사람자신의 손으로 부강한 나라를 건설한다는 이 주체적인 건국로선은 해빛처럼 우리의 앞길을 밝혀주었다.

그 누구도 이처럼 우리가 해야 할 일을 명백하게 밝혀내지 못했다.

이날 그분께서는 좌중에 녀성으로서는 둘뿐이던 우리들도 만나주시였다.

우리는 그분을 따라 2층으로 올라갔었는데 거기에

는 책장과 책상 하나, 군용모포를 씌운 쇠침대가 하나 있을뿐 간소하게 꾸려진 방이 있었는데 그분께서 계시는 방이였다.

그분께서는 저희들에게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허물없는 담화를 나누어주시였다. 알고보니 그분께서는 벌써 저희들을 알고계시였다.

이날 그분께서는 우리가 하고있는 일에 대하여 여러가지로 물어보신후 소책자 두권을 주시면서 자기가 정확히 알아야 군중을 정확히 깨우칠수 있다고 하시면서 힘써 학습하고 군중속에 깊이 들어가 녀성들의 생활을 정확히 리해하고 그들을 옳은 길로 이끌어야 한다고 가르치시였다.

그이께서 어떻게나 재미있게 그리고 알기 쉽게 말씀하시는지 우리는 시간이 어떻게 지나갔는지 알지 못했다. 우리는 그분의 말씀을 더 듣고싶고 그분과 함께 더 오래 있고싶었으나 그분께서는 몹시 바쁘시였다.

그분을 뵈옵고 가르치심을 받은 시간은 비록 길지 않았으나 우리가 받은 감명은 대단히 컸다.

그이께서 이날 저희들에게 하신 말씀을 듣고, 또 그이께서 주신 소책자들을 읽으면서 나는 내가 현실을 떠난 허황하고 추상적인 리론에 물젖어있었다는것을 더욱 깊이 느끼게 되였고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한다는 것을 명확하게 알수 있었다.

1945년 10월 14일 마침내 그처럼 바라던 절세의

애국자이시며 민족적영웅이시며 백전백승의 강철의 령장이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조국개선을 환영하는 평양시 군중대회가 평양공설운동장에서 열리게 되였다. 얼마나 기다리던 이날이였던가!

해방된 온 겨레의 마음이 쏠리고있는 군중대회장으로 나도 녀맹사업을 하는 동무들과 함께 나갔다.

그전날밤 우리는 위대한 **김일성**장군님께 올릴 꽃다발을 정성다해 만들었었다.

그런데 우리 녀성들에게 해방된 조선인민이 위대한 수령님께 올리는 첫 꽃다발을 드리는 영광이 차례졌던것이다.

온 겨레가 그렇듯 만나뵙고싶어하는 민족의 위대한 태양이신 **김일성**장군님께서 대회연단에 나오시였다.

그러자 천지를 뒤흔드는 열광적인 환성이 터져올랐다. 그칠줄 모르는 《**김일성**장군 만세!》 소리는 하늘땅에 메아리쳐 온 삼천리강토를 진동시켰다.

그런데 연단에 나오신 위대한 수령님을 우러르는 순간 나는 그만 놀랐다.

아! **김일성**장군님이시구나!

바로 우리들을 몸가까이에서 그렇듯 친근하게 대해주시며 지도하여주신 바로 그분이 그토록 만민이 우러러받드는 위대한 **김일성**장군님이실줄이야 어찌 알았으랴.

항일혁명투쟁의 그 기나긴 나날을 하루와 같이 눈

보라와 비바람 속에서 풍찬로숙하시고 백두산의 줄기줄기를 주름잡아다니시며 조국의 독립과 인민의 자유와 해방을 위하여 일제침략자들과 싸워이기시였고 마침내는 조국의 해방을 가져다주신 절세의 애국자이시며 백전백승의 강철의 령장이신 **김일성**장군님이 바로 그분이시라는것을 알았을 때 나의 기쁨과 감격이 얼마나 컸고 놀라움 또한 얼마나 컸던가!

그처럼 젊으시고 친근하시고 인자하신분, 그처럼 부드러우시고 활달하시고 열정적이신분, 인민들과 같이 평범하게 입으시고 소박한 식사를 하시고 늘 인민들속에 계시면서 조금도 자신을 나타내지 않으시는 겸손하신분, 어중이떠중이들의 번거로운 《리론》들을 물리치시고 주체적인 건국로선을 제시하시여 조선인민의 앞길을 환히 밝혀주신 그이가 바로 그 이름을 전설처럼 들으며 이 나라 인민들이 희망을 품고 암흑의 밤을 헤쳐올수 있게 하신 만고의 령장 **김일성**장군님이시였다!

이 시각 온 평양시민들이, 아니 온 3천만 겨레가 감격에 목메여 울며 위대한 장군님을 열광적으로 환영하였다. 나도 그들과 같이 《**김일성**장군 만세!》를 목청껏 부르며 해방된 우리 조국에 약동하는 새생활이 시작된것을 이때 온몸으로 느꼈다.

그후 제가 다시 위대한 장군님을 만나뵈옵게 되였을 때도 그이께서는 조금도 다름없이 우리를 대해주시

였다. 저는 사실 어버이장군님께 너무 버릇없이 대하던 일이 부끄럽게 생각되여 얼굴을 들수 없었는데 그이께서는 친근하고 스스럼없이 대해주시는것이였다.

어버이장군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면서 그후 우리는 녀맹사업을 힘있게 벌려나갔다.

나는 1946년 봄에 다른 사업분야로 옮겨가기전까지 이처럼 경애하는 수령님을 몸가까이 모시고 사업하였다.

이 나날들은 비록 길지 않았으나 저의 일생에서 가장 빛나고 뜻깊은 나날이였으며 이 나날들에 나는 그이로부터 주체사상을 배우고 참다운 혁명적인 리론을 배웠으며 일하는 법을 배워 건국사업을 위해 일하는 근로인테리로 될수 있었다.

이것은 비단 나 한사람에 한한 일이 아니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정치, 경제, 문화, 군사의 모든 방면에 걸쳐 해방된 우리 인민들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일일이 가르쳐주시고 몸소 앞장에서 전인미답의 길을 개척하시면서 건국사업에로 우리 인민을 곧바로 이끄시였던것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장군님께서 계심으로 하여 각성되지 못했던 사람들이 의식적으로 건국사업에 나서게 되였고 빈말공부만 하던 인테리들이 일하는 인테리로 되였으며 나같은 사람들도 할바를 깨닫게 되고 혁명사업에 나설수 있었다. 어버이수령님의 세심한 보살

피심과 크나큰 정치적신임을 떠나서 나의 존재는 무의미한것이며 또 아무것도 할수가 없었던것이다.

그런데 어버이수령님께서 오랜 세월이 지난 오늘까지도 잊지 않으시고 저를 찾아주시다니…

생각하면 그때로부터 오랜 세월이 흘렀다. 형언할수 없이 복잡한 시련을 이겨내며 우리 인민은 위대한 수령님의 령도따라 멀고도 영광에 찬 길을 걸어왔다.

참으로 나라의 운명을 한몸에 지니시고 복잡하고도 간고한 조선혁명을 이끌어오시며 수천수만의 사람들을 몸소 만나주시는 어버이수령님께서 오랜 세월이 흘러간 오늘 이름없는 한 인테리에 지나지 않던 저를 잊지 않으시고 찾아주시리라고야 꿈엔들 생각이나 했겠는가!

어버이수령님의 품의 한없는 넓이와 깊으신 사랑앞에서 저는 저절로 머리가 숙어질뿐이였다.

…내가 지나간 일들을 이렇게 더듬어보는데 묵묵히 생각에 잠겨 걸으시던 어버이수령님께서는 문득 저를 보시며

《추워하누만!》

하고 따뜻한 목소리로 말씀하시였다.

초봄의 저녁녘이여서 대기는 쌀쌀하였다. 그이께서는 제가 추워할가봐 념려하여주시며 집안으로 들어가게 하시였다.

어버이수령님께서는 차잔을 앞에 놓으시고 저를 마주앉히시였다.

《〈로동신문〉에 발표된 시를 보고 동무를 찾으라고 하였소.》

이 말씀을 들으며 나는 송구스러움을 금할수 없었다.

나는 오늘까지 오로지 위대한 수령님의 높으신 뜻을 받들어 혁명이 요구하는 초소들에서 언제나 위대한 수령님을 가까이 모시고있는 심정으로 살며 일해왔다. 당의 배려에 의하여 해방전부터 소망해오던 작가생활을 하면서도 나의 이러한 신조에는 드팀이 없었고 자신의 힘과 지혜를 다하여 위대한 수령님께 충성다하려고 노력하였다.

그러나 받아안은 사랑과 배려에 비해볼 때 내가 혁명앞에 해놓은 일이란 보잘것 없는것이였다. 시와 소설을 쓴다고 하였지만 아직 변변하게 쓴것도 없고 《로동신문》에 나간 시도 어버이수령님 앞에 내놓기 부끄러운것이였다.

제가 이런 심정을 말씀올리자 어버이수령님께서는 작품마다 다 잘될수야 있겠는가고 하시며 너그럽게 말씀해주시였다.

이윽고 어버이수령님께서는 저의 나이를 물어보시더니 이제 20년은 더 일할수 있다고 말씀하시고 내가 하고있는 일에 대하여 물으시였다.

나는 지금 장편소설을 쓰고있다고 말씀올리고 농업협동화를 취급하고있는 소설의 내용과 초고합평회에서 제기되였던 문제들까지도 죄다 말씀드렸다.

해방직후에도 그러했지만 이날도 어버이수령님 앞에서 나는 어느새 스스럼이 없어져서 장편소설창작을 위해 취재를 나갔을 때 목격한 사실들도 말씀드리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저의 긴 이야기를 끝까지 다 들어주시였다.

저는 이런 이야기도 말씀드렸다.

…어느 농촌집 할아버지는 철지난 자두를 우물속에 채워놓고 《우리 마을에서 이렇게 보기 좋은 자두가 열리는건 우리 집 하난데 혹시 어버이수령님께서 마을에 오시지 않을가 해서 이것들이 물크러지지 않게 찬 물에 채워둡네다.》라고 행복한 얼굴로 말하는것이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어떻게 마을마다 들리시겠나요.》

아무래도 그 자두가 물크러질것 같아서 내가 하는 말에 할아버지는

《어버이수령님께서 다른 집에도 다 갑자기 오셨는데 왜 우리 집이라고 안오시겠소. 이제 곧 복숭아도 익을텐데요. 이렇게 하면 어버이수령님을 집안에 모시고 사는것 같아서 마음상에 좋아서 그러디요.》라고 대답하였다.

《이 이야기를 소설의 한 장면에 넣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올리자 어버이수령님께서는

《내 이야기는 무얼 자꾸들 쓰나.》

라고 말씀하시였다.

한없이 겸손하신 인품을 지니신 그이께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다른데로 돌리시며 소설을 잘 써보라고 말씀하시였다.

계속하여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작가들이 우리 당의 주체사상으로 무장하며 당정책학습을 잘할데 대한 문제, 현실체험을 잘할데 대한 문제, 창작조건보장문제, 혁명적대작창작에서 지켜야 할 원칙적인 몇가지 문제들에 대하여 알기 쉽게 말씀해주시고 작가들의 생활에 대하여도 깊은 관심을 돌려주시였다.

나에게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해방직후 문학예술사업에 대하여 말씀하신 어느날의 일이 떠올랐다.

그것은 항일혁명투쟁의 영광스러운 혁명전통을 계승한 우리 당이 창건된 뜻깊은 날이 있은 뒤 어느날 위대한 장군님께서 참석하신 연회석상에서 있은 일이다.

여기에서 악대가 조선민요를 연주하고있었다.

어버이수령님께서는 이날 이 악대의 연주를 들으시며 해방된 오늘 우리는 비로소 우리의 음악과 노래, 춤, 우리의 문학과 예술을 찾았다고 하시면서 반만년의 유구한 력사로 빛나는 우리 민족은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볼수 없는 아름다운 문화와 예술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하시였다. 그러시고 우리 나라를 강점한 일제는 우리의 찬란한 민족문화마저 말살하려고 악랄하게 탄압한데 대해 언급하시고 과거에는 착취계급에게만 복무하던 우리 민족예술이 해방된 새

사회에서는 인민대중에게 돌아왔다고 하시면서 인민의 것으로 된 고귀한 우리 민족의 문학예술을 앞으로 찬란히 꽃피워나가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이 말씀에는 우리 문학예술의 발전방향이 뚜렷이 밝혀져있었다.

그때로부터 우리의 문학예술은 얼마나 자랑찬 개화의 길을 걸어왔는가. 찬란히 꽃피는 문학예술의 화원속에 우리 작가들의 미숙한 《꽃》들도 인민을 위해 피여날수 있었다.

어버이수령님의 말씀을 명심하고 그이의 의도대로 훌륭한 작품을 창작하여 그이께서 베풀어주신 크나큰 정치적신임과 배려에 꼭 보답하고야말 결심을 나는 마음속으로 다지고 또 다지였다.

앞으로 영원히 이러한 결심으로 줄달음쳐 살리라.

어버이수령님께서 저에게 두터운 신임을 주시고 신념과 용기를 주시고 청춘의 열정을 되찾아주시지 않으셨는가!

어버이수령님을 몸가까이 모시고있는 행복한 시간은 아쉽게도 퍽그나 빨리 흘러갔다.

그이께서는 함께 식사를 하자고 하시면서 저를 식당으로 이끄시였다.

오붓한 식탁에 어버이수령님과 그리고 가족들과 함께 앉게 된 나는 마치도 친어버이곁에 앉은것만 같은 더없이 행복한 심정이였다.

나는 밤이 깊어서야 어버이수령님 앞을 떠났

다. 떠나올 때 제가 인사를 드리자 그이께서는 저의 손을 잡아주시며

《후에 자주 만납시다.》

라고 따뜻이 말씀하시였다.

집에 돌아온 저는 위대한 수령님의 초상화앞에 조용히 앉았다. 그리고 어버이수령님을 모시고 보낸 다섯시간의 일들을 하나하나 되새겨보았다. 생각할수록 꿈만 같았다. 너무도 생각밖에 이루어진 영광이고 행복이였으며 너무도 큰 충격이였기때문이다.

세상에 부럼없는 더없이 행복한 제도에서 사는 우리는 그 모든 행복속에 스민 어버이수령님의 깊으신 사랑과 배려, 로고와 심려에 대하여 아는것보다 모르고 지나는 일이 얼마나 더 많은것이랴!

24년전의 그때처럼 불러주시고 신념과 용기를 주시고 래일에로 떠밀어주시는 어버이수령님! 인간에 대한 크나큰 배려와 매 전사 한사람한사람을 끝까지 보살펴주시는 어버이수령님의 위대한 풍모앞에서 저는 한일없이 머리가 센 지난날들을 돌이켜보며 앞으로 남은 생애를 오로지 위대한 수령님을 위해 다바쳐 싸울 결심을 다시 가다듬었다.

오직 위대한 수령님만을 믿고 따르며 충성의 한길을 줄달음쳐가리라! 바로 이 길이 주체형의 피가 끓는 공산주의혁명전사들이 걷는 길인것이다.

바로 그렇게 되기를 바라시여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저를 문예총의 책임적인 일군으로 사업하도록 크나

큰 정치적신임을 또다시 베풀어주시고 당과 국가의 중요 회의들과 행사들에 빠짐없이 불러주시는것이리라!

어찌 그뿐이랴!

경애하는 수령님께서는 예술공연을 보실 때마다 친히 가까이 불러주시고 문학예술창작과 관련한 귀중한 말씀을 주시였으며 우리 로동계급이 창조한 아름답고 감동적인 이야기를 들으시면 저에게 시를 쓰라고 말씀하시군하시였다.

조양탄광에 파견된 3대혁명소조원들의 활동정형을 들으시고는 그들이 귀해서 못견디겠다고 하시며 저더러 대학생들이 3대혁명을 수행하고있는 투쟁을 내용으로 시를 쓰라고 당중앙위원회 제5기 제7차전원회의도중에 말씀하신 어버이수령님께서는 평양지하철도개통식에 친히 참가하시여서는 지하철도를 돌아보시면서 시종 만족감을 표시하시고 치하의 말씀을 하시다가도 또다시 저에게

《지하철도에 대하여 시를 쓰시오.》

라고 흥분된 어조로 말씀하시였다.

격동적이고 감동적인 사실을 목격하실 때마다 이처럼 저에게 시를 쓰라고 하시는 어버이수령님의 일깨우심은 저에 대한 아니 우리 전체 작가, 예술인들에 대한 한없는 사랑, 뜨거운 고무인것이다.

참으로 위대한 수령님의 넓고넓은 품은 사랑과 은정으로 차고넘치며 그 품속에서 사람마다 성장하고 행복을 찾고 하찮은 조약돌들도 비다듬어져 옥으로 빛나

는것이였다.

우리 아무리 충성다해 줄달음쳐 살아도 그 은덕에 다 보답하지는 못할것이다.

나는 무엇보다도 훌륭한 작품을 써서 어버이수령님께 기쁨을 드려야 하겠는데 오늘까지도 이렇다할 작품을 세상에 내놓지 못하고있다.

언제면 어버이수령님의 크나큰 은덕과 사랑에 만분의 일이라도 보답할지 나는 자나깨나 이 생각뿐이다.

나는 작가로서 온 사회를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주체사상으로 일색화하는 위업에 기여할수 있는 좋은 작품을 쓰는것으로 그 은덕과 사랑에 보답할것이다.

나는 남은 여생을 다하여 위대한 수령님께서 이룩하신 불멸의 혁명업적과 인간에 대한 그 사랑, 그 은혜를 후손만대에 길이 전하는 작품을 쓰고 또 쓸것이다.

크나큰 은정

고 룡 진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우리의 사진부문사업은 날을 따라 발전하고있으며 모든 혁명적이며 전투적인 사진들은 당의 수중에 장악된 힘있는 사상적무기로서의 자기의 영예로운 사명을 빛나게 수행하고있습니다.

주체사상교양의 전당인 조선혁명박물관과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활동을 보여주는 기념관들, 전국각지의 《**김일성**동지혁명사적관》들과 《**김일성**동지혁명사상연구실》들에 모셔진 귀중한 당의 력사문헌인 사진자료들을 비롯하여 한해에도 수백, 수천만부씩 발행되는 각종 신문과 잡지, 화첩, 화보들에 실린 사진작품들, 중앙과 지방에서 열리는 사진전람회에 전시된 작품들, 이 모든것은 근로자들을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 당의 유일사상으로 철저히 무장시키고 그들을 당의 로선과 정책 관철에로 힘있게 불러일으키고있습니다.

뿐만아니라 우리의 사진작품들은 각종 출판물들과 사진전람회 등을 통하여 해외에 널리 보급되여 세계인

민들에게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우리 인민이 이룩한 세기적인 업적과 자랑찬 성과들을 소개선전하고있으며 그들과의 국제적련대성을 강화하는데도 힘있게 이바지하고있습니다.

우리의 사진들은 철저히 당적이고 로동계급적이며 인민적인 성격과 사상예술적으로 완벽한 풍격으로 하여 세계인민들로부터 아낌없는 찬사를 받고있습니다.

저는 주체적이며 혁명적인 우리의 사진들에 대한 찬양의 목소리를 들을 때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우리 사진가들에게 안겨주시는 크나큰 정치적신임과 뜨거운 사랑에 대하여 먼저 생각하게 됩니다.

참으로 해방직후 무엇을 어떻게 했으면 좋을지 몰라 헤매이던 우리 사진가들을 주체적사진예술의 한길로 이끌어주신 어버이수령님의 사랑은 세월이 흘러도 잊을수 없습니다.

1946년 6월 25일이였습니다.

당시 북조선사진동맹에서 일하던 저는 뜻밖에도 위대한 수령 **김일성**장군님의 부르심을 받는 영광을 지니게 되였습니다.

당시 북조선사진동맹에서는 8.15해방 한돐을 앞두고 사진전람회를 준비하고있었는데 어버이수령님께서 친히 그 준비정형을 들어주시려고 동맹상무로 일하던 저를 부르신다는것이였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저를 불러주시다니?!)

저는 너무도 뜻밖에 찾아온 기쁨으로 하여 몸둘바

를 몰랐습니다.

돌이켜보면 제가 처음으로 위대한 장군님을 우러러뵈옵게 된것은 1945년 10월 14일이였습니다.

이날 력사적인 개선연설을 하시는 위대한 장군님을 몸가까이 우러러모신 그 시각부터 그이께서 다녀가시는 현지지도의 로정을 따라 그이의 혁명활동력사를 사진에 담기 위하여 노력하여왔지만 저는 언제나 가슴속 깊은곳에 사진예술발전에 대한 위대한 장군님의 가르치심을 받았으면 하는 소망을 품고있었던것입니다.

그런데 진작 그 영광을 받아안고보니 가슴이 설레이는것을 어쩔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아침일찌기 위대한 수령님께서 계시는곳으로 떠났습니다.

저는 이제 장군님을 만나뵈면 인사는 어떻게 올리고 무슨 말씀을 올릴가 하고 골똘히 생각하였습니다. 올리고싶은 말씀은 참말 끝이 없었습니다.

얼마후 저는 북조선공산당 중앙조직위원회청사에 도착하였고 어버이수령님께서 계신 방으로 안내되였습니다.

어버이수령님께서는 제가 정중히 인사를 드리자 책상우에 쌓아놓고 보시던 문건들을 한쪽으로 밀어놓으시고 저를 반가이 맞아주시였습니다.

그이께서는 저의 손을 따뜻이 잡아주시면서 공설운동장(현재 모란봉경기장)과 역전광장에서 사진을 찍던 동무가 아닌가고 하시며 동무와는 벌써 구면이라고

호탕하게 웃으시였습니다.

저는 그만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참말이지 그이께서 수십만 군중을 상대로 연설하시면서 옆에서 사진을 촬영하던 저의 얼굴모습까지 기억하고계시리라고는 꿈에도 생각치 못했던것입니다.

어버이수령님께서는 저의 이름은 어떻게 부르며 나이는 몇살인가, 고향은 어디고 부모들은 계시느냐고 따뜻이 하나하나 물어주시였습니다.

그리고 사진동맹에서 요즘 전람회를 준비한다는데 어떻게 하느냐고 물으시였습니다.

저는 그간의 사진전람회준비사업에 대해 그이께 보고드리였습니다.

그이께서는 저의 산만한 보고도 허물치 않으시고 마지막까지 들어주시고나서 해방후 처음으로 여는 큰 사진전람회를 준비하느라고 동무들이 수고한다고 하시며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말씀하시였습니다.

이번 전람회는 지난 한해동안 우리 나라에서 벌어진 세기적인 변혁들과 력사적인 전변들을 진실하게 보여주어야 한다. 다시말해서 민주개혁의 성과들과 나라를 찾은 우리 인민의 보람찬 생활을 진실하게 잘 보여주어야 한다.

일본놈때에는 아무런 내용도 없는, 그저 《보기 좋은》 사진이면 아무것이나 다 붙여놓고 사진전람회를 했지만 우리는 그렇게 해서는 안된다. 우리가 찍는 사진, 우리가 전람회에 붙이는 사진은 그 한장한장이 모

두 교양적목적을 뚜렷이 가져야 한다.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는 사진예술로 하여금 새 민주조선의 주인으로 된 인민대중의 벅찬 투쟁모습을 반영함으로써 아무 내용도 없이 그저 《보기 좋은》것이면 뭐나 다 찍어내던 지난날의 흥미본위적이며 형식주의적인 사진예술에 종지부를 찍고 높은 사상예술성을 가진 참다운 주체적인 사진예술로 되게 하는 길을 가르쳐준 강령적지침이였습니다.

실로 해방직후 우리 인민의 보람찬 생활, 눈부신 건설로 들끓는 새 조선의 모습은 어떠하였습니까.

해방된 조국땅은 력사적인 사변들과 세기적인 변혁들로 충만되여있었습니다.

위대한 장군님을 해방된 조국땅에 높이 모신 감격을 안고 인민들은 새 조국 건설에 하나같이 떨쳐나섰습니다.

땅의 주인이 된 농민들의 발가는 소리가 힘있게 울렸고 공장들에서는 로동자들의 증산투쟁의 불길이 타번졌습니다.

이것이 해방된 조국의 현실이였고 자기 주권을 가진 우리 인민의 생활이였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바로 이런 벅찬 현실을 작품에 담을것을 가르쳐주심으로써 우리의 사진예술을 혁명적인 내용으로 충만되도록 이끌어주시였습니다.

그리고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는 우리들로 하여금 당면하게 열리는 사진전람회의 성격과 의의를 옳게 인

식하고 거기에 전시된 모든 작품들을 하나하나 교양적 목적을 가진것으로 되게 함으로써 이 사진전람회를 성과적으로 진행할수 있게 하여주시였습니다.

뿐만아니라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는 우리 사진가들을 현실속으로 깊이 들어가게 함으로써 그들로 하여금 혁명투쟁의 승리에로 대중을 불러일으키는 투쟁의 기수로 나서게 하는 가르치심이기도 하였습니다.

위대한 수령님의 가르치심을 받고 돌아온 저는 사진가들과 함께 온밤 흥분하여 전람회준비장을 떠나지 못하였습니다.

마침내 우리 사진가들도 위대한 장군님의 따뜻한 가르치심을 받고 일하게 되였다는 기쁨이 우리모두를 한없이 격동시켰고 잠들지 못하게 하였던것입니다.

저는 그날부터 활기에 넘쳐 사진전람회준비를 버쩍 다그쳤습니다.

저는 무엇보다먼저 개선연설을 하시는 위대한 장군님을 지척에서 우러르던 그날의 감격을 안고 존귀하신 그이의 영상을 더 정중히 형상하여 전람회의 첫자리에 모시도록 하였습니다.

이렇듯 어버이장군님의 위대한 영상을 정중히 모시는것과 함께 그이의 현명한 령도를 높이 받들고 새조국 건설에 떨쳐나선 우리 인민의 투쟁모습을 형상한 작품들중에서 토지개혁을 주제로 한 《땅의 주인》과 산업국유화를 내용으로 한 《증산의 불꽃》 등 우수한 작품들을 선정하여 전시하게 하는 한편 부족한 작품들을

창작보충하기 위해 사진가들을 공장과 농촌으로 다시 파견하였습니다.

이리하여 우리는 짧은 기일안에 전람회준비를 끝내게 되였고 위대한 장군님을 모신 우리 인민의 행복과 새 조국 건설에 떨쳐나선 우리 인민의 열화같은 애국심과 민주개혁의 성과들을 반영한 우수한 작품들을 가지고 전람회를 성과리에 개막할수 있게 되였습니다.

하여 우리의 첫 사진전람회는 민주개혁의 성과를 공고히 하기 위한 투쟁에로 우리 인민들을 힘차게 불러일으킬수 있었으며 미제와 그 주구들을 반대하고 조국을 통일하기 위한 투쟁에로 전체 조선인민들을 힘있게 고무추동하는데 이바지할수 있었습니다.

또한 이 첫 사진전람회는 사진가들의 창작과 생활에서도 획기적인 전환을 가져오게 했습니다.

사진가들은 그때에야 비로소 강유력한 교양선전수단으로서의 사진예술의 힘을 알게 되였으며 자기들도 우리의 혁명위업수행에 이바지하는 문화전선의 투사라는 무한한 영예와 자부심을 더욱 크게 가질수 있었습니다.

사실 사진의 력사도 이제는 퍼그나 오래지만 그것은 흘러간 생활을 돌이켜보는 하나의 《기념물》로 과학과 예술에서의 하나의 보조적수단으로만 존재하였습니다. 그러한 사진이 이렇듯 크나큰 사명을 지니고 새조선 건설에 이바지할수 있게 되였습니다.

실로 위대한 수령님께서 주신 1946년 6월 25일교

시는 우리 사진예술이 시대앞에 지닌 무거운 사명과 임무, 문화전선의 투사로서의 우리 사진가들이 나아가야 할 앞길을 뚜렷이 밝혀준 주체적사진예술의 강령적 지침이였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그후에도 혁명의 매시기 사진예술부문앞에 나서는 과업들을 제시해주시였으며 그 수행을 위한 구체적방도까지 세세히 가르쳐주시였습니다.

어버이수령님께서는 사진선전사업을 결정적으로 강화하기 위한 획기적인 대책들도 세워주시였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사진선전사업의 중요성으로부터 1947년 가을에 북조선화보사를 내오게 해주시였으며 신문을 비롯한 각종 출판물들에 게재되는 사진인쇄물의 질을 개선하도록 해주시였습니다.

해방후 재정사정이 어려웠으나 수많은 자금을 내시여 현대식사진설비들을 갖춰주시였고 사진예술의 물질기술적토대를 튼튼히 마련해주시였습니다.

어버이수령님께서는 사상미학적으로 어린 우리 사진가들의 자질향상에도 깊은 관심을 돌려주시였습니다.

그이께서는 우리 사진가들로 하여금 강선제강소를 비롯한 공장지구와 농촌, 대성산과 룡악산 등 유원지들에 나가 다양한 촬영경기도 조직하도록 해주시면서 기술실무수준을 끊임없이 높이도록 세심히 보살펴주시고 이끌어주시였습니다.

이런 속에서 새 민주조선의 사진가로서의 저의 정치실무적자질도 점차 갖추어지게 되였습니다.

1947년도 우리 나라에서 첫 인민경제계획이 수행되던 해입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언제나 인민들속에 계시며 나라의 경제건설을 령도하고계시였습니다.

저는 이 력사적인 나날에 어버이수령님께서 로동자, 농민들 속에 계시며 그들의 증산투쟁을 고무해주시던 일을 생각할 때마다 1947년 6월 7일을 잊을수 없습니다.

이날 아침이였습니다.

저는 북조선인민위원회 한 부서로부터 미림벌에서 사진을 찍어야 할 중요한 일이 있다는 련락을 받고 급히 달려나갔습니다.

미림벌에는 이미 다른 사진가동무들도 몇이 와있었습니다.

바로 이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몸소 미림벌에 나오시였습니다.

미림벌은 이른아침부터 어버이장군님을 모시는 기쁨으로 명절처럼 흥성거렸습니다.

논머리들에는 울긋불긋한 오색기가 나붓기고 흥겨운 농악소리에 린근부락의 아이들까지 모두 떨쳐나와있었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농민들의 열광적인 환호에 답례하시면서 오늘은 동무들과 같이 모내기를 해보려

고 나왔는데 무슨 마중을 하느냐고 하시며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말씀하시였습니다.

분여받은 땅에서 모두가 즐겁게 모를 내봅시다. 조국에 돌아와 처음 모를 내봅니다.

어버이장군님께서는 웃으시면서 웃옷과 신발을 벗으시더니 논판으로 들어서시였습니다. 그이께서 그렇게 몸차림을 하시니 농민들의 차림새나 다름이 없게 되시였습니다.

위대한 장군님을 모시고 그이와 함께 모를 꽂게 된 농민들의 기세는 하늘을 찌를듯 높았습니다.

농악은 더 흥이 나서 느린가락으로부터 잦은가락으로 옮겨가며 농민들의 사기를 버쩍 더 올렸습니다.

새납의 긴 선률을 따라 춤군들의 머리에서 상모가 춤을 추고 푸른 하늘에선 종다리들이 울었습니다.

장군님께서는 모를 꽂으시면서 농민들에게 선진영농법을 받아들여 단위당수확고를 높이고 관개공사를 하여 해마다 풍년이 들도록 할데 대하여 하나하나 일깨워주시였습니다.

저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농민들과 함께 첫모를 꽂으시며 그들을 식량증산투쟁에로 불러일으키시는 력사적순간을 촬영하려고 논두렁에서 사진기의 거리와 각도를 정해놓고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것은 어버이수령님께서 허리를 굽히시고 계속 모를 내시기때문에 좀처럼 그이의 얼굴모

습을 찍을수 없는것이였습니다.

저는 어버이수령님께서 일어서시여 허리를 펴시기만을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모춤을 풀어쥐시려고 잠시 허리를 펴시는 순간에는 미리 정해놓은 촬영거리를 벗어나시고 정한 거리로 오실 때에는 허리를 굽히시고 모를 꽂으시기때문에 촬영하기가 몹시 곤난하였습니다.

게다가 해가 높이 떠올라 광선조건도 점점 불리해가고있었습니다.

순간 저에게는 사진을 찍지 못하는구나 하는 초조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간절히 바라는 눈길로 몇번이고 어버이수령님께서 계시는쪽을 바라보았으나 그이께선 여전히 농민들과 이야기하시면서 모를 내시였습니다.

마침내 한 동무가 참지 못하고

《장군님! 이쪽을 좀 보아주십시오.》 하고 말씀올렸습니다.

순간 저는 온몸이 긴장해지면서도

《옳지, 됐다!》 하고 속으로 기뻐했습니다.

그것은 저의 간절한 청이기도 하였던것입니다.

저는 재빨리 사진기의 초점을 맞추고 숨을 딱 죽였습니다. 참말이지 사진가들에게 있어서 더없이 귀중한 순간이였습니다.

그런데 어버이수령님께서는 여전히 농민들과 이야기를 계속하시며 모를 내나가시는것이였습니다.

저의 가슴은 철렁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사진가들의 요구라면 무엇이나 다 들어주신다는 한가지 생각에 그만 어버이장군님께서 농민들과 중요한 이야기를 하시고계신다는것을 까맣게 잊고있었던것입니다.

그런데 잠시후 어버이수령님께서는

《이렇게 일하고있는것을 잘 노려서 찍는것이 더 자연스러워질것입니다.》

라고 말씀하시는것이였습니다.

그러시고는 모춤을 풀어쥐시고 계속 모를 꽂아나가시였습니다.

저의 머리를 불빛처럼 펀뜻 스치고지나는 또 다른 뉘우침이 있었습니다.

저는 인차 논판으로 뛰여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어버이수령님께서 자리를 옮겨가시는데 따라 자기 위치를 부단히 옮겨가면서 좋은 순간을 노렸습니다. 좋은 대목들이 끊임없이 나타나게 되자 저는 사진기여닫이를 연방 눌렀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더 좋아지는 대목에 저는 자기도모르게 흥분하면서 가장 좋은 대목을 찾아 논판을 꿰지르며 다녔습니다.

드디여 저는 그렇듯 애타게 찾던 가장 적중한 그 대목을 포착하였습니다. 호흡을 멈추는것과 거의 동시에 여닫이를 눌렀습니다.

촬영순간에 자기가 성공했다는것을 확신한 저의 가슴은 기쁨으로 막 터질듯했습니다.

저는 동무들의 축하를 받으며 천천히 사진기를 거두고있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사진을 찍었구만!》

하시는 우렁우렁한 음성이 들렸습니다.

그쪽을 우러러 머리를 드는 순간 저는 자기 눈을 의심할 정도로 깜짝 놀랐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만면에 가득 웃음을 담으시고 대견스러우신 마음으로 오래도록 저를 바라보고계시는것이였습니다.

한없이 자애로우신 어버이수령님의 모습을 우러르고 선 저의 눈굽은 축축히 젖어들었습니다.

지금 우리의 모든 《김일성동지혁명사상연구실》들과 출판물들에 모셔진 해방후 첫모를 내시는 어버이수령님의 영상을 모신 사진이 바로 그날 촬영한것입니다.

나는 그날 력사적사실들을 촬영함에 있어서 좋은 대목과 순간을 옳게 포착하는 문제는 사진예술작품의 진실성과 생동성을 좌우하는 기본문제이며 사진의 사상예술성을 높이기 위한 기본방도임을 깊이 깨달았습니다.

바로 이날이 있었기에 나는 그후의 평화적건설시기와 조국해방전쟁시기 그리고 전후복구건설시기를 거쳐 오늘에 이르기까지 중요한 력사적의의를 가지는 수많은 사진들을 실감있게 촬영할수 있었습니다.

특히 저는 1953년 4월 15일 최고사령부 정문앞에

서 원수복을 입고계시는 위대한 수령님의 모습과 우리 당 제5차대회의 높은 연단에서 보고를 하시는 어버이수령님의 모습을 사진에 정중히 모실수 있었습니다.

이리하여 저는 여러 기회에 어버이수령님을 몸가까이 모실수 있는 행복을 지니였습니다.

그때마다 그이께서는 저를 따뜻이 대해주시였고 저의 사업을 육친의 정으로 보살펴주시였습니다.

어버이수령님께서는 정치실무적으로 어린 저를 한걸음한걸음 키워주시였고 우리 사진가들이 조금이나마 성과를 보이면 자신의 일처럼 기뻐하시였습니다.

그이께서는 제3차전국예술사진전람회때만 하여도 개관을 앞둔 전람회장을 친히 찾아주시고 제가 창작한 합성사진 《앞으로! 앞으로!》가 백두산에서 인민군대가 막 쏟아져나오는것 같다고 하시면서 구상을 잘했다고 거듭 치하해주시였습니다.

어버이수령님께서는 그때로부터 썩 후인 공화국창건 20돐기념사진전람회에 나오시여서도 그이께서 간부들에게 무기를 수여하시는 사진은 력사적의의가 있다고 하시면서 더 크게 현상하도록 크낙한 배려를 돌려주시였습니다.

그리고 어느 한 사진전람회에 내놓은 평양학원개원식사진은 여러차례에 걸쳐 현상하다보니 선예도가 낮아 똑똑치 않다고 하시면서 친히 댁에 가지고계시던 귀중한 사진까지 가져다 현상하도록 하시는 은정을

베풀어주시였습니다.

어버이수령님께서는 이처럼 저의 창작생활을 육친의 정으로 보살펴주시였고 한집안식구처럼 댁으로 불러주시기도 하시였습니다.

1954년 5월말에 있은 일을 저는 영원히 잊을수 없습니다.

그날은 리보익할머님의 탄생기념일이였습니다.

저는 이날을 기념하여 김보현할아버님과 리보익할머님의 사진을 찍기 위해 만경대로 찾아갔습니다.

당시 할아버님과 할머님을 모시고 만경대에서 살고계시던 김형록선생님께서는 저를 반가이 맞아주시고 저의 요구대로 두분의 사진을 찍도록 도와주시였습니다.

저는 사진을 찍고 그만 돌아오려고 사진기를 접어서 가방에 넣고 뜨락으로 나서고있었습니다.

바로 이때 동구밖에서 승용차소리가 나더니 위대한 수령님께서 만면에 환히 웃음을 지으시고 사립문안으로 들어오시였습니다.

김형록선생님께서와 삼촌어머님께서 어버이수령님을 반가이 맞이하시고 할아버님과 할머님이 계시는 방으로 그이를 안내하시였습니다.

잠시후 수령님께서 할아버님과 할머님께 인사를 드리시고 방에서 나오시였습니다.

그때에야 저는 경애하는 수령님께 인사를 올릴수 있었습니다.

그이께서는 허리를 굽혀 인사를 올리는 저의 곁으로 다가오시더니

《오래 공작하는 동무! 그동안 안녕하셨소?》 하시며 손을 뜨겁게 잡아주시였습니다.

저는 가슴이 뭉클하여 대답도 제대로 올리지 못하였습니다.

이때 어버이수령님께서는 저를 김형록선생님께서 계시는 방으로 데리고 들어가시였습니다.

방에는 식사를 차려놓은 간편한 식탁 하나와 의자 몇개가 량옆에 놓여있었습니다. 식탁 한쪽에는 어버이수령님께서 김형록선생님과 삼촌어머님 곁에 앉으시고 맞은편에는 제가 혼자 앉게 되였습니다.

그렇게 되자 저는 너무도 송구스러워 몸둘바를 몰랐습니다.

어버이수령님께서는 잠시 깊은 생각에 잠기시는것이였습니다. 그러시고는 강반석어머님께서 잘 싸우신데 대한 회고의 말씀을 하시였습니다.

김형록선생님께서와 삼촌어머님께서도 목이 메이신듯 움직일줄 모르셨습니다.

방안에는 한동안 침묵이 흘렀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어느 한시도 잊으신적 없으시였던 어머님의 모습을 그려보시는듯 창밖을 바라보시고계시였습니다.

저는 그제야 비로소 제가 앉은 자리가 어떤 좌석인가를 알게 되였고 송구스러워 그냥 앉아있을수가 없

었습니다.

이 자리는 어버이수령님께서 일가분들과 함께 조용히 담소하셔야 할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그이께서는 한날 사진가에 불과한 저를 영광의 그 자리에 앉혀주신것이였습니다.

참말이지 믿음이면 이보다 더한 믿음이 어디 있고 사랑이면 이보다 더한 사랑이 어디 있겠습니까.

저는 행복의 그날 영광의 자리에서 어버이수령님의 뜨거운 사랑의 깊이에 대하여 깊이깊이 생각하게 되였으며 이렇듯 크낙한 신임과 은정 속에서 보람찬 나날을 충성으로 수놓아갔습니다.

그러던 1962년 3월 어느날이였습니다.

그날은 위대한 수령님의 탄생 50돐을 한달 앞둔 뜻깊은 날이였습니다.

당시 사진가동맹위원장으로 일하던 저는 위대한 수령님의 영상을 촬영하는 사진가들의 사업을 지도방조하라는 영예로운 과업을 받게 되였습니다.

저의 가슴은 형언할수 없는 기쁨으로 몹시 설레였습니다.

촬영에 참가하는 사람들모두가 그렇겠지만 저의 기쁨은 남달리 컸습니다.

해방후 첫날부터 사진가로서 위대한 수령님을 모셔오던 나날들은 저의 일생에서 가장 행복한 나날들이였습니다.

저는 그때마다 온 세상 기쁨을 나혼자만 독차지

한듯 늘 즐거웠습니다.

그러나 제가 사진가동맹사업을 맡게 되면서 어버이수령님의 영상을 몸가까이에서 촬영하는 영광은 더 이상 차례지지 않았습니다.

솔직한 심정으로 저는 그후 어버이수령님의 크나큰 정치적신임으로 사진가동맹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아보면서 영예와 긍지도 높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늘 사진가로서 위대한 수령님을 몸가까이 모셔오던 행복한 그 나날들이 그리웠습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이렇게 위대한 수령님의 탄생 50돐을 앞둔 이날, 어버이수령님을 또다시 몸가까이 모시는 영광을 지니게 되였던것입니다.

저는 다른 사진가들과 함께 당중앙위원회청사로 갔습니다.

청사 정문에서 우리는 한 일군의 안내를 받으며 위대한 수령님의 영상을 촬영하기로 되여있던 응접실로 들어갔습니다.

방에 들어서자 벌써부터 가슴이 울렁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번만은 그동안 사진가동맹에서 한 일도 말씀드리고 앞으로 하게 될 일에 대한 가르치심도 받으리라 생각했었는데 일은 생각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채광조건을 료해하고 사진기위치를 확정하면서도 생각은 어버이수령님께서 나오실 문가에 가있었습니다.

이웃고 어버이수령님께서 한 일군과 함께 천천히 나오시였습니다.

언제나 자애에 넘치신 그 모습을 우러르는 순간 저는 그만 목이 꽉 메여 인사를 제대로 올리지 못하였습니다.

어버이수령님께서는 저의 어깨를 다정히 당겨잡으시고

《오래 공작하는 동무! 그동안 잘 있었소?》 하시며 기뻐하시였습니다.

어버이수령님께서는 몇십년만에 만난 자식을 보는 부모의 심정으로 저의 얼굴을 오래오래 들여다보시고는 얼굴이 축간것 같은데 어디 앓지 않는가고 깊이 심려하시였습니다.

제가 아무데도 앓지 않는다고 대답을 올리자 그이께서는 마음이 놓이시는듯 웃으시며 사진을 찍어달라고 하지 않을테니 집에도 계속 들리라고 말씀하시였습니다.

어버이수령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호탕하게 웃으시였으나 저는 더이상 가슴에서 끓어번지는 격정을 누를수 없어 그만 머리를 숙이고야말았습니다.

이어 어버이수령님께서는 다른 사진가동무들의 손을 하나하나 따뜻이 잡아주시였습니다.

그리고 탄생 50돐을 맞으시는 위대한 수령님을 온 나라 인민들이 몹시 우러러뵙고싶어하기때문에 그 간

절한 소망을 담아 새로 초상사진을 찍으려고 한다고 말씀올리자 한동안 아무 말씀도 없이 저 먼 어딘가에 눈길을 주시고계시였습니다.

《동무들의 요구라면 어서 찍읍시다.》

잠시후 어버이수령님께서는 우리들이 미리 준비해놓은 의자에 앉으시였습니다.

저희들은 조심스러우나 날랜 동작으로 촬영준비를 끝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인차 위대한 수령님의 존귀하신 초상을 촬영할수 없었습니다.

어버이수령님께서는 사진기위치와 각도를 바삐 정하고 초점을 맞추고있는 저희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새겨보시고계시다가 동행한 일군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말씀하시였습니다.

이 동무들은 오랜 혁명동지들입니다.

해방후부터 15년동안 우리와 같이 사업해온 귀중한 동무들입니다.

사실 15년동안이란 간단치 않습니다. 결국 우리의 로혁명전우들입니다.

참으로 **《오랜 혁명동지!》, 《로혁명전우!》** 그것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자신께서와 함께 생사고락을 같이해온 친위전사들을 그려보시며 조용히 마음속으로 불러보시던 뜻깊은 신임의 표시였습니다.

저는 우리 사진가들에 대한 그이의 크나큰 정치적 신임에 목이 메여올라 끝내 눈물을 흘리고야말았습

니다.

적은 일이나마 한것이 있다면 그 모두가 어버이수령님의 가르치심과 이끄심이 계시였기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어버이수령님께서는 별로 한일 없는 저에게, 우리 모든 사진가들에게 **《오랜 혁명동지!》**라는 크나큰 정치적신임을 안겨주신것입니다. 어버이수령님을 몸가까이 만나뵙는것만도 분에 넘치는데 그이께서는 이렇듯 한일 없는 저와 우리 사진가들에게 크나큰 사랑을 안겨주신것이였습니다.

《오랜 혁명동지!》, 《로혁명전우!》

저는 그날 어버이수령님의 초상촬영을 끝내고 돌아오면서 마음속으로 이 말씀을 외우고 또 외워보았습니다.

그때로부터 오랜 세월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그날의 감격은 세월이 흐를수록 더욱 새로와집니다.

저는 언제나 어버이수령님의 그 한량없는 사랑과 믿음 속에 사는 끝없는 영광과 행복을 지니고 그이께 대를 이어 충성 다바쳐나갈것을 굳게 마음다지고있습니다.

어버이수령님의 따사로운 손길아래 태여난 우리의 요술

김 택 성

일명 《마술》이라고도 불리우는 요술이 사람들의 눈앞에 나타난 때로부터 약 3백년세월이 흘렀다고 합니다.

백년도 긴세월이라고 하는데 그런 세월이 세번이나 거듭되여 흘렀지만 요술은 고도로 사회가 발전된 오늘에도 다른 분야보다는 크게 발전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자본주의나라들에서는 요술이 사람들을 즐겁게 하고 경탄시키면서 인간의 비상한 재간을 시위하던 그 첫출발의 소박성조차 집어던지고 할일 없는 자본가들의 변태적인 광증에 아부하면서 한갖 놀음감으로 기형화되여가고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나라에서는 어버이수령님의 현명한 령도와 뜨거운 보살피심에 의하여 요술도 주체적이

며 인민적인 요술로 발전하여 자기의 뚜렷한 자리를 차지하게 되였으며 오늘은 주체예술의 화원속에 한떨기 아름다운 꽃으로 활짝 피여나게 되였습니다.

인류가 알지도 못했고 알수도 없었던 주체적인 요술의 탄생, 이것은 또 하나의 세기적인 사변이였습니다.

오늘은 온 세상사람들을 경탄시키고있는 우리 요술교예에 대하여 생각할 때마다 저는 새로운 요술의 탄생과 그 발전을 위하여 위대한 수령님께서 보살펴주시던 잊을수 없는 나날이 안겨와 가슴뜨거움을 금할수 없습니다.

감회도 깊은 1964년!

그해 12월엔 눈도 많이 내렸습니다.

12월 23일 저녁무렵 위대한 수령 **김일성**원수님께서는 우리 인민군교예단의 공연을 보아주시려 친히 교예극장을 찾아주시였습니다.

어버이수령님을 우러르는 일군들과 배우들의 눈굽에는 이슬이 어리고 터져오르는 《만세》에 목이 메였습니다.

어버이수령님께서는 만면에 환한 웃음을 지으시며 동무들이 보고싶어 왔다고 뜨겁게 말씀하시였습니다.

2층 휴계실에 들어서신 그이께서는 건물의 천정이며 벽이며 시원한 창문들을 둘러보시였습니다.

이윽고 그이께서는 《**공연을 봅시다.**》 하시며 천천히 앞서나가시였습니다.

크나큰 영광과 행복을 가슴에 안고 우리는

어버이수령님을 모시고 교예공연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때는 교예단이 통합되기전이여서 국립교예단과 인민군교예단이 따로 있었는데 지금의 교예극장을 필요할 때면 엇바꿔 쓰면서 공연하였습니다.

나는 공중비행의 한 종목인 《회전2인조형》을 기본으로 하면서 서투른 요술도 몇가지 가지고 출연하기로 되여있었습니다.

대기실에서 나갈 차례를 기다리는 나의 가슴은 어찌나 설레였던지 무엇하나 제대로 차근차근 생각할수 없었습니다.

꿈결에도 뵈옵고싶던 어버이수령님을 한자리에 모시고 그이 앞에 나서게 된다고 생각하니 도무지 가슴을 진정할수 없었습니다. 빨리 무대에 나가고싶은 간절함과 서투른 연기를 하게 되면 어쩌나 하는 불안속에 초조한 몇분이 흘렀습니다. 순서에 의해 나는 첫번째로 무대에 나가게 되였습니다.

불이 서서히 꺼지고 서막이 지난후 강한 원형조명을 받으면서 공중에서 회전비행틀이 흔들리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런데도 거기에 앉은 나는 공연을 한다는 생각은 까맣게 잊어버리고 위대한 수령님의 거룩하신 모습만을 우러르며 세차게 뛰는 가슴을 누르고있었습니다.

흔들리는 그네에서 녀배우가 공중으로 솟구쳤다가 날아내릴 때 얼결에 관습된 동작으로 그의 손을 잡은 순간부터 어떻게 그 종목을 끝냈는지 지금도 잘 기억

되지 않습니다.

다만 내가 당중앙위원회를 목숨으로 사수할데 대한 구호가 새겨진 기발을 펼쳐들고 원을 그리며 돌아갈 때 위대한 수령님께서 먼저 보내주시던 박수소리만은 지금도 잊을수 없습니다.

공연후 한 일군에게서 전해들은바에 의하면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저의 연기를 보시면서 군대식이고 용감하다고 하시며 매우 만족해하시였다고 합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어찌하여 그처럼 기뻐하시며 박수를 보내주시였는지 그 뜻을 다는 알수 없었지만 나는 무한히 행복하였습니다.

나는 산촌의 자그마한 읍이던 강계의 좁은 뒤골목에서 해방을 맞이한후 너무도 기쁜김에 새조선의 강산을 다 밟아보고싶었고 남들이 하는 일이면 뭣이든 다 해보고싶었습니다.

그래서 높은 령을 걸어넘어 평양에 와 어느 한 공장의 선반공으로도 있었고 그러다가 자동차기술을 배우고싶어 자동차수리공장에 가기도 했으며 더 보람찬 위훈을 갈망하여 북방의 탄광에서 땀을 흘려도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뚜렷한 지향도 없이 예술소조에 따라다니면서 교예를 해본다고 설렁대였습니다.

어버이수령님께서는 그 미미한 싹을 귀중히 키우시여 보람찬 예술무대의 어엿한 배우로 내세워주셨던 것입니다.

내가 한 공연이 잘되였다면 얼마나 잘되였겠습니까만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1부공연이 끝나고 휴계실에서 잠간 휴식하실 때에도 일군들을 둘러보시면서 인민군교예단맛이 있게 잘한다고 특히 《회전2인조형》의 수준이 높다고 거듭 치하의 말씀을 주시였습니다.

나는 이날 공연에서 요술작품도 몇가지 가지고 출연하였는데 그것은 주로 회중시계를 계속 집어냈다가 그것을 하나의 시계로 만드는것이라든가 줄에 단 기발속에서 꽃송이를 끝없이 집어내는것 그리고 라지오우에 보자기를 씌워놓고 그것을 없애는것이라든가 옷을 남모르게 갈아입히는것과 같은것들이였습니다.

이날 공연이 끝난후 한 일군이 전해준데 의하면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제1부공연에서와 제2부공연에서 요술을 계속 주의깊게 보시다가 웃음을 지으시며 제가 보여드린것과 같은 그런 요술을 이미 오래전에 어느 한 외국에서 보신 일이 계신데 대하여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확실히 우리는 그때 새로운 자기 식의 요술을 들고나오지 못하는 결함을 범하고있었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이미 1957년 5월 18일 국립교예극장공연을 보시고 요술은 교예의 기본은 아니지만 발전시키는것이 좋겠다고 하시면서 우리 교예는 자본주의나라들의 교예처럼 순수 취미본위로 되여서는 안되며 교예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을 체육적으로, 문화적으로 교양하여야 한다고 가르쳐주시였습니다. 그러시면서 우리 시대 인민들의 생활감정에 맞는 교예작품들

을 많이 만들데 대하여 간곡히 일러주시였습니다.

그후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를 받들고 교예분야에서는 우리 인민의 생활과 취미에 맞는 좋은 작품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요술에서도 종전의 취미본위적인것들을 탈피하면서 새로운것을 모색하였습니다.

그러나 위대한 수령님의 가르치심을 철저히 관철하지 못한데로부터 우리 식의 요술작품을 만들어내지 못하였습니다.

지난날을 돌이켜보는 나의 가슴은 위대한 수령님의 뜻을 잘 받들지 못한 자책감으로 하여 괴롭고 무거웠습니다.

잊지 못할 그날의 공연이 있은후 어느날 한 일군이 나를 찾아와서 뜻밖의 소식을 전하였습니다.

어버이수령님께서는 저를 외국에 보내여 마음껏 돌아다니면서 요술의 추세도 알아보고 기량도 련마하게 하여주라고 하셨다는것입니다.

어버이수령님의 배려를 전달하는 일군도 목이 갈리였으며 그 사랑을 받아안는 저도 눈물이 솟았습니다.

어버이수령님의 자애로운 영상을 우러르며 나는 마음속깊이 다함없는 감사의 인사를 올리였습니다.

나는 비로소 잊을수 없는 공연의 밤에 내가 당중앙위원회를 목숨으로 사수할데 대한 구호를 요술적인 방법으로 펼쳤을 때 어버이수령님께서 먼저 보내주시던 박수의 뜻도 그리고 《회전2인조형》의 수준이

높다고 하시던 말씀의 뜻도 깨닫게 되였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저의 어린 재간을 귀중한 싹으로 보시고 그토록 기뻐하신것이며 그것을 끝까지 키우시려고 이토록 깊으신 사랑의 손길을 보내주신것이였습니다. 그 사랑 그 손길에 받들려 나는 외국려행의 길에 올랐습니다.

기어이 어버이수령님의 기대에 보답하자, 세계요술의 실태를 샅샅이 알아보자, 그리고 그것을 딛고올라서 요술의 새세계를 창조하자, 위대한 수령님의 손길이 나를 이끌어주시는 한 이 세상에 못해낼 일이 그 무엇이랴. 이것이 그때 나의 결심이였습니다.

난생처음으로 비행기에 몸을 싣고 광막한 대륙의 흘러가는 산발과 평원을 흰구름발사이로 내려다보면서, 머나먼 려정의 흔들리는 렬차우에서 국경과 국경을 넘으면서 가슴에 불타오른 생각도 오직 그것이였습니다.

날마다 깊어가는 밤이면 어버이수령님의 자애로운 영상이 안겨와 꿈결에도 눈굽이 뜨거워졌습니다. 외국려행기간에 나는 어버이수령님의 품에 안겨사는 우리의 교예예술인들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예술인임을 더욱 절실히 느꼈습니다.

자본주의나라들에서는 《곡마단》에 목숨을 붙이고 사는 사람들모두가 허공중에서 흔들리는 바줄에 운명을 걸고 줄타기놀음을 하다가는 떨어지면 그것으로 일생을 끝내거나 아니면 병신이 되는데 그렇게 되면 거

지가 되여 거리를 헤매는것이 상례로 되고있습니다.

그뿐아니라 팔리운 노예가 되여 개가 되라면 개가 죽을 쓰고 《사고하는 개》가 되여 수자판을 보고 짖어대야 하며 곱사등이의 재주를 보여줄 자본가놈들의 기형적인 취미가 생기면 성한 척추에 주사를 놓아 병신을 만들어도 어데다 하소할곳이 없는것이 그들의 처지입니다.

나는 이런 이야기를 자본주의나라 어데서나 듣게 되였고 이런 사실을 눈으로 직접 보기도 하였습니다.

위대한 수령님을 어버이로 모시고 그 품속에 안기여 오직 혁명의 한길에 몸바치며 사는 우리 인민은 얼마나 행복합니까.

만일 자본주의제도에서 내가 공중교예를 하였더라면 이렇게 성한 몸으로 있기는커녕 살아있을수 있다고 그 무엇으로 담보할수 있을것입니까.

조국에 있을 때는 너무도 행복만을 받으며 살았기에 자신에게 차례지는 어버이수령님의 사랑의 높이와 깊이를 만분의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던것입니다.

내 눈으로 그 세계를 보면서 위대한 수령님을 어버이로 모시고 사는 우리 인민의 영광과 행복에 대하여 더욱 가슴 사무치게 느끼게 되였고 이 자랑, 이 긍지를 세계에 소리치고싶었습니다.

외국방문의 나날에 요술계에서는 그래도 제노라고 자처하는 많은 사람들을 만나보고 그들의 공연도 보았는데 그들은 물론 재간들은 가지고있었으나 자기가 무

엇때문에 요술을 하는지, 사람들에게 무엇을 주려고 일생을 바치며 애쓰는지, 그것을 모르고있었으며 또 알려고도 하지 않았고 알 필요를 느끼지도 않고있었습니다.

다만 그들은 그것으로 얻어지는 몇푼의 돈, 자기의 생명과 가족들의 목숨을 부지할 그 돈때문에 신경을 쓰고있었으며 사지판에서 뻡박질하고있었습니다.

(아니다, 이 길로 가서는 안된다. 요술은 사람들에게 인간의 재능은 무한하며 이 세상에 못해낼 일이 없다는 신심과 랑만을 안겨주어야 한다.)

불타는 결의를 안고 조국에 돌아온후 나는 새 작품창작에 달라붙었습니다. 그러나 작품창작은 주관적 욕망과는 달랐습니다. 창작에서 낡은 기존틀을 깨뜨린다는것은 쉬운 일이 아니였습니다.

조직에서도 힘을 주고 동무들도 방조를 주었습니다. 그리하여 몇편의 요술작품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그 작품들을 분석해보면 결함이 한두가지가 아니였습니다.

그래서 그전부터 해오던 요술에다 새맛을 돋구느라고 얼마간씩 변조도 주어보았는데 본래보다 달라진것이 별반 없었습니다.

이런 모대김속에서 나날을 보내던 나에게 요술작품창작에서 새로운 전환을 가져올 그런 날이 왔습니다.

그것은 1971년 10월 25일이였습니다.

이날 저는 근 한시간반에 걸쳐 요술소품들을 가지

고 공연하면서 당의 지도를 받았습니다.

당에서는 요술작품창작에서 강령적지침으로 되는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를 전달해주었습니다.

당시 우리 교예의 실태를 료해하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교예가 정책선전이 못되고있는데 대하여 심려의 교시를 주시였던것입니다.

또한 나는 새로운 당의 주체적인 문예리론을 이날 접하게 되였습니다.

우리 당의 주체적문예리론에는 요술을 기술적으로 하려면 더 본격적으로 해서 인민들이 탄복할 정도가 되여야 한다는것과 요술을 단순하게 하지 말고 다양하고 큼직큼직하게 할데 대해 밝혀져있었습니다.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와 당의 방침에 의하여 새로운 요술작품창작의 방향과 방도가 뚜렷해졌습니다.

좀 부끄러운 일이기는 하지만 위대한 수령님의 이 교시가 계신후에야 저는 처음으로 당정책학습도 전보다 더 심혈을 기울여하였고 현실을 알기 위해 공장과 농촌을 찾아가기도 하였습니다.

우리 인민들의 가슴속에 가득차있는 가장 보편적이며 본질적인 생각은 무엇인가.

전형적인 우리 인민의 사상감정을 요술에 담을 때 그것은 시대를 대변했다고 말할수 있을것이며 당정책을 선전하고 인민을 혁명투쟁에로 고무하는 참다운 로동계급의 예술이라고 말할수 있을것입니다.

민족최대의 경사로운 명절인 위대한 수령님 탄생

60돐을 앞두고 그이께 기쁨을 드리기 위해 우리의 근로자들이 불타는 열정을 바치고있는 들끓는 공장의 구내를 걸으며 풍년든 농장의 들길을 걸으며, 로동계급과 농민들, 온 나라 인민의 가슴속에 소중히 간직된 불타는 소원을 나는 가슴칠이 체득하였습니다.

(위대한 수령님의 만수무강을 축원하는 그 하나의 생각 그 하나의 소원을 안고 충성을 다바쳐가는 이 시대 이 인민의 마음을 요술에 옮기자.

꽃바구니! 축원의 꽃바구니! 충성의 꽃바구니!)

나는 마치 창작적환상에 사로잡힌 시인처럼 희열에 넘치였습니다.

이렇게 위대한 수령님의 사랑속에 요술작품 《꽃바구니》가 이 세상에 나오게 되였습니다.

《꽃바구니》의 창조과정에는 난관도 많았지만 당의 세심한 지도가 있었기때문에 매우 짧은 시일에 훌륭하게 완성될수 있었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새 요술작품이 나온데 대하여 그 누구보다 기뻐하시며 사상예술적으로 최상급의 높이에 이르도록 온갖 조건을 다 마련하여주시였습니다.

공연에 필요한 자재도 제때에 공장에서 보장해주도록 대책을 취하여주시였으며 마음놓고 일하라고 생활에서 사소한 불편이 있을세라 친어버이심정으로 돌봐주시였습니다.

작품이 다 완성되였을 때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우

리들에게 국제요술축전에 참가하도록 하는 크나큰 믿음과 배려를 돌려주시였습니다.

얼마후 국제요술축전준비위원회에서 초청장이 왔습니다. 축전날자는 앞으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축전에 갈 때까지 작품을 다듬으면서 한편 서너차례 공연을 해서 관중들의 반영을 들어보자고 계획하였습니다.

첫 공연이 있은후 소문이 퍼지여 우리는 매일이다싶이 공연하지 않으면 안되였고 공연할 때마다 극장은 사람들로 차고넘쳤습니다.

사람들은 개별적으로 또는 집단적으로 찾아와서 소박하면서도 귀중한 의견들을 말하였고 새 요술이 안겨준 기쁨에 대하여 그리고 자기들은 지금 어떤 놀라운 혁신을 준비하고있는가에 대하여 유쾌하게 말하다가 돌아가군했습니다.

우리는 요술축전을 위해 《꽃바구니》외에도 인민들이 좋아하는 몇가지 소품을 더 준비하였습니다.

위대한 수령님의 탄생 60돐을 며칠 앞둔 1972년 4월초 우리는 수령님의 뜨거운 사랑을 안고 조국을 떠났습니다.

구라파의 어느 한 휴양도시에서 개막된 제9차국제요술축전은 39개나라에서 온 2천여명의 경쟁자들로 붐비였습니다.

우리는 출연차례가 오기까지 연습도 하면서 다른 나라의 공연을 보게 되였는데 어떤 자본주의나라의것

은 예술이라기보다는 아무런 교양적의의도 없는 잔재간의 놀음판이였습니다.

그러하던 무대우에 우리의 요술 《꽃바구니》가 요지경을 펼치기 시작하였습니다.

아무것도 없던 빈통안에서 아름다운 붉은 꽃을 담뿍 담은 꽃바구니가 끝없이 나와 꽃밭을 이루자 소란하던 극장안이 물을 뿌린듯 조용해졌으며 모두가 숨소리마저 삼가하는듯하였습니다.

엇갈려 쏟아지는 밝은 조명속에 무대가 온통 꽃바다로 뒤덮이고 꽃이 샘물처럼 그칠줄 모르게 흘러나오던 요술통마저 커다란 꽃바구니가 되여 활짝 피여오르며 그우에 무지개발처럼 친선단결에 대한 구호가 펼쳐지자 장내에서는 환성이 터져울렸으며 발구르는 소리, 박수소리, 웨침소리가 폭풍처럼 일어났습니다.

극히 객관적이여야 하는 심사석에서도 전례를 깨뜨리며 박수가 터졌습니다.

그것은 너무도 당연한 일이였습니다.

우리의 요술은 축전무대우에서 인간의 숭고하고 아름다운 감정을 모두의 가슴에 되찾아주고 꽃피워주고 즐기게 하였던것입니다.

뜻깊은 날인 1972년 4월 15일!

요술의 중심지라고 이름하던 구라파의 하늘에 람홍색 공화국기발이 오르면서 엄숙한 시상식이 진행되였습니다.

1등컵을 두손에 잡아 높이 쳐들고 시상대우에 서

있는 나의 두볼로는 뜨거운것이 흘러내렸습니다.

나라 잃은 설음을 안고 헤매던 저에게 조국을 찾아주시고 배움의 길을 열어주시였으며 참다운 예술의 창조자로 키우시여 오늘의 이 영광의 자리에 세워주신 위대한 수령님께 저는 마음속 깊이 최대의 영예와 감사를 드리고 또 드리였습니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원수님의 탄생 60돐을 맞으며 그이를 우러러 흠모하는 만민의 한결같은 마음이 그대로 무대우에 꽃으로 핀 꽃바구니!

그 꽃바구니를 보며 축전장에 진동하던 박수소리, 만세소리는 주체적이며 인민적인 요술을 환영하는 세계의 감격에 넘친 환호성이였으며 어지러워진 서방예술의 탁류를 밀어내며 세차게 굽이친 주체예술에 대한 찬양이였습니다.

그것은 이 기쁨을 안겨주신 위대한 수령님께 만민이 드리는 감사의 표시였습니다.

이렇게 우리 식 요술은 탄생되였고 누리에 찬란한 빛을 뿌리기 시작하였습니다.

잊을수 없는 1972년 7월 5일.

그무렵에도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를 지도하시기에 바쁘신 나날을 보내시던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그 귀중한 시간을 내시여 평양교예단창립 20돐 경축교예공연을 보아주시려 몸소 교예극장으로 나오시였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평양교예단창립 20돐을 기념하여 극장복도에 전시한 사진들을 처음부터 마지막까

지 하나하나 보아주시며 어떤 사진앞에서는 오래도록 발걸음을 떼지 못하시였습니다.

그 사진들에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전쟁시기 교예단을 무어주시면서 몸소 보내주신 원아들이 어버이수령님의 품속에서 어엿한 공훈배우로 자라난 모습들이 담겨져있었습니다.

어버이수령님께서는 조국해방전쟁때 우리가 보낸 고아들이 벌써 이렇게 커서 공훈배우가 되였다고 감회깊이 말씀하셨습니다.

어버이수령님께서는 공연을 보시면서도 자주 감격의 말씀을 하시고 그러시다가는 회고에 잠기시는듯 오래동안 생각깊으신 안색으로 계시기도 하셨습니다.

또다시 어버이수령님을 한자리에 모시고 스무해세월 은혜로운 그이의 품속에서 우리 당 문예전선의 영광스러운 전사들로 자라온 모습을 무대에 올리는 우리 모두의 가슴은 참으로 벅찼습니다.

어버이수령님께서는 종목이 바뀌여질 때마다 만족하시여 환한 웃음을 만면에 담으시였고 대견하시여 박수도 크게 쳐주시였습니다.

어버이수령님께서는 이날 공연을 보시면서

《교예공연을 오래간만에 보는데 아주 잘합니다. 우리 나라 교예예술이 대단히 발전하였습니다.》

라고 치하의 말씀을 주시였습니다.

위대한 수령님의 만수무강을 축원하는 우리 교예단의 모든 일군들과 배우들의 한결같은 충성의 마음을

담아 저는 커다란 꽃바구니를 삼가 피워드렸습니다.

제가 공연이 끝난후 들은바에 의하면 그때 어버이수령님께서는

《요술도 잘합니다. 세계요술축전에서 우리 나라 교예배우들이 1등을 하였다는데 상을 받았습니까?》

라고 물으시였다고 합니다.

우리들의 성장이 얼마나 장해보이시면 그런 말씀을 하시는것이겠습니까.

나는 목이 메이고 눈앞이 흐려지였습니다.

한없이 너그러운 품에 안으시고 앞길이 막막하면 길을 열어주시고 힘이 모자라면 힘을 주시고 지혜가 모자라면 지혜를 주신 어버이수령님.

그러시고도 오히려 모든 영예를 우리 전사들에게 다 돌려주시는 위대한 수령님.

공연이 끝난후에도 그이께서는 자리를 뜨지 못하시며 수원들과 극장일군들을 가까이 부르시고는 우리의 교예예술이 이렇게 발전하였기때문에 사람들이 더 흥미를 가질것이라고 말씀하시였습니다.

어버이수령님께서는 오셨던길에 무엇인가 하나라도 더 주고싶으신 마음으로 교예단의 실태며 배우들의 생활형편을 물어보시다가 우리들에게 살림집을 다 해결해주되 가까운곳에 있는 아빠트로 해결해주라고 크나큰 배려를 돌려주시였습니다.

어버이수령님께서는 씻어도 씻어도 흘러내리는 눈물에 볼을 적시며 서있는 우리모두의 손을 뜨겁게

잡아주시며 우렁우렁하신 음성으로 이 기쁜 날에 기념사진이나 함께 찍자고 하시였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의자에 앉으시자 우리들은 그이를 모시고 빙 둘러섰습니다.

나는 눈앞이 흐려지며 앞이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남자들은 주먹으로 녀자들은 옷고름으로 눈굽을 씻으며 얼굴을 들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다나니 맞추어섰던 줄도 헝클어지게 되였습니다.

《왜 이렇게들 웁니까? 울면 사진이 잘 안됩니다. 울지들 말고 이리로 가까이 오시오.》

어버이수령님께서 손수건을 꺼내시는 모습이 눈물속에 어려오자 우리는 그만 소리내여 흐느끼고말았습니다. 눈감고 입술을 깨물어도, 먼 하늘을 바라보며 가슴을 눌러도 북받치는 흐느낌과 샘솟는 더운것을 막을수가 없었습니다.

《사진을 다시한번 찍는것이 좋겠습니다.》

수령님의 갈리시고 젖으신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이래서는 안되겠다고, 어버이수령님께 심려를 끼쳐서는 안되겠다고 마음먹고 두번다시 사진을 찍었으나 우리는 두번째도 흐느끼면서 찍고말았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의자에서 일어서시여 환호하는 우리들에게 손을 거듭 들어주시고 천천히 승용차에 오르사였습니다.

나는 동무들의 어깨에 부딪치며 목이 메여 만세도 제대로 못부르면서 달려나갔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달리던 승용차를 멈추게 하시고 차창으로 손길을 드시여 어서 들어가라고 몇번이고 흔드시였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그후에도 요술교예의 발전을 위하여 세심한 관심을 돌려주시였습니다.

조선의 요술이 어버이수령님의 품속에서 날이 갈수록 어떻게 세계의 심장을 더 세차게 틀어잡고있는가에 대하여 한가지 이야기만을 더 하려고 합니다.

1974년 제10차국제요술축전때 일이였습니다.

그때 준비한 작품이 위대한 수령님의 북청교시의 위대한 생활력을 반영한 《사과풍년》이였습니다.

이 작품도 교예에서 당정책을 선전하라고 가르쳐주신 어버이수령님의 교시를 받들고 창작된 작품의 하나였습니다.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자그마한 요술도 세계혁명위업에 복무하는 영광의 길을 걷게 되였으니 우리의 자부심은 하늘을 찌를듯하였습니다.

제10차국제요술축전은 한 나라의 공연시간이 10분을 넘지 말아야 하는 엄격한 관례와 규정도 《사과풍년》앞에서는 다 허물어지고말았습니다.

《사과풍년》은 끝났으나 끝날줄 모르는 박수, 위대한 수령님의 존함을 높이 부르며 《꼬레아, **김일성**》 《주체, **김일성**》 하는 열광적인 웨침소리로 장내는 떠나갈듯하였습니다.

팔십에 난 어느 자본주의나라 요술가동맹위원이

란 사람은 자기가 요술로 일생을 보냈는데 진짜 요술을 모르고 눈을 감을번했다고 감격에 넘쳐 말하면서 조선사람들은 생활을 담은 요술을 가지고 왔다, 세계요술이 조선을 따라나가야 한다고 흥분하여 연설하였으며 축전주최국의 요술가동맹위원장은 우리 대사관을 찾아와서 이 성공은 모두 당신들이 위대한 수령님을 모시였기때문이다, 그이께서 요술에 대해 관심하시고 현명하게 이끌어주셨기때문에 당신들은 축전에 와서 판을 치고 상을 다 거둬간다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그들스스로의 누를길 없는 진정의 고백이였으며 우리 요술의 승리에 대한 세계의 환희였습니다.

우리는 그해뿐아니라 그후에도 연거퍼 특등하였으며 앞을 다투는 초청속에 아세아와 구라파, 아프리카와 대양주의 30여개 나라를 방문하면서 주체적인 우리 요술의 위대한 생활력을 시위하였습니다.

나는 요술이 걸어온 지난날을 돌이켜볼 때마다 경애하는 **김일성**동지를 위대한 수령으로 모시고 살며 혁명하는 전사된 행복이 가슴에 차넘치군합니다.

그처럼 제한성이 많은 요술이건만 오히려 그 특성을 옳게 리용하여 생활을 더 황홀하게 담도록 하여주신 위대한 수령님!

3백년의 기나긴 력사에 인류 수억만이 세대와 세대를 바꾸며 요술을 만들고 요술을 보고 하였건만 이 세상에 그 누가 요술에 생활을 담을 생각이나 하였겠습니까.

오히려 세월이 흐를수록 요술은 예술로서의 그

사명이 희미해지면서 막간의 어리광대역할을 하게 되였던것입니다.

그러던 요술이 생활속으로 들어가고 생활이 요술속으로 들어오는 위대한 전환이 불과 몇년이라는 짧은 시일에 이루어졌으니 이것이야말로 기적이라고 아니할수 없는것입니다.

요술의 위대한 전환은 경애하는 수령님에 의하여 이룩될수 있었습니다.

세기를 두고 천대와 멸시 속에 헤매던 《곡마》와 《사까스》가 아니라 재간있는 독특한 예술이라고 《교예》라는 이름을 몸소 지어주신 위대한 수령님!

옛날같으면 《요술쟁이》라고 불리우며 손가락질이나 받을 저에게 인민배우의 높은 영예를 안겨주시고 그렇듯 성스러운 당창건 30돐을 경축하는 연회에까지 몸소 이름을 불러 세워주신 위대한 수령님과 영광스러운 우리 당! 참으로 위대한 수령님과 우리 당이 베풀어주신 사랑의 이야기는 대를 두고 전하여도 다는 전하지 못할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과 당의 은혜로운 해빛아래 우리 인민의 숭고한 정신세계와 창조적재능을 담은 우리의 요술은 앞날에 더 아름답고 신기한 꽃을 피우며 온 세상에 영원히 빛을 뿌릴것이며 이렇듯 황홀하고 참다운 요술의 새력사를 펼쳐주신 위대한 수령님과 당의 은덕을 인민들은 대를 두고 길이 칭송할것입니다.

《금강산가극단》이 무어지기까지

최 동 옥

오늘 총련의 문화회관들과 일본의 이름난 극장무대에서는 인민들에게 힘과 용기를 주고 주체예술의 황홀한 경지를 펼쳐보이며 조국의 선진적인 사회주의제도와 그 눈부신 발전모습을 안겨주는 혁명가극 《금강산의 노래》가 대성황속에서 공연되고있다.

공연을 본 많은 사람들은 가극단 음악지휘자의 한 사람인 나에게 어떻게 《금강산가극단》이 무어졌으며 이런 훌륭한 가극을 창조할수 있었는가고 물어보군한다.

혁명가극 《금강산의 노래》와 우리 가극단을 한결같이 아끼고 사랑하는 재일동포들과 일본인민들의 이러한 질문에 대답하기 위하여서는 우리 재일조선인예술단을 조국에 불러주시고 아름다운 금강의 노래를 안겨주시였으며 첫 해외교포가극단을 무어주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원수님의 뜨거운 사랑과 배려에 대하여, 어버이수령님을 뵈옵던 끝없는 영광과 행복에 대하여

반드시 이야기하지 않을수 없다.

민족의 태양이시며 자애로운 어버이이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원수님의 크나큰 사랑과 육친적배려에 의하여 우리 재일조선인예술단이 사회주의조국을 방문한 것은 1974년 4월이였다.

민족최대의 경사스러운 명절인 위대한 수령님의 탄생 예순두돐을 축하하는 60만 재일동포들의 다함없는 감사와 축원의 노래를 안고 우리는 4월 4일 어머니조국을 향하여 니이가다항을 떠났다.

우리 재일동포들을 조국과 친혈육의 정으로 이어주는 사랑의 배 《만경봉》호를 타고 푸른 물결을 헤가르며 조국으로 달리는 우리들의 가슴은 걷잡을수없이 설레였다.

원한의 지난 세월, 류랑의 한숨과 피눈물로 파도높던 바다에 감격과 행복의 눈물을 뿌리며 우리는 이역만리 그 어디서나 늘 희망의 태양으로 우러러마지 않는 어버이수령님의 품으로 달리고있었다.

어머니조국에로 가는 이 길, 그것이 그처럼 우리들의 가슴을 감격에 높뛰게 한것은 난생처음으로 조국의 품에 안긴다는 누를수 없는 기쁨으로 해서만이 아니였다.

그보다도 어버이수령님을 몸가까이 뵈옵고 기어이 수령님을 모신 영광의 자리에서 축하공연의 막을 올리고싶은 가슴속 간절한 소원이 이루어지리라 바라고있었기때문이다.

아직은 조국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동서남북 어디를 보나 가없는 하늘과 바다만이 끝없이 펼쳐져있었으나 우리는 조국에 가닿기 몇시간전부터 그 무슨 약속이라도 한것처럼 갑판우에 떨쳐나와 발돋움을 하고있었다.

드디여 아득한 수평선우에 어머니조국땅이 꿈속에서처럼 어렴풋이 떠오르기 시작하였다.

《조국이 보인다!》

《동무들! 조국이 보이오!》

《위대한 수령 **김일성**원수님 만세!》

서로 얼싸안고 웨치며 오각별 빛나는 공화국기발을 흔드는 우리들의 두볼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렸다.

4월의 푸른 하늘아래 점점 뚜렷해지는 조국의 크고작은 산봉우리들과 그밑으로 길게 뻗은 백사장과 솔밭을 끼고 일떠선 휴양도시의 아름다운 고층건물들이 한폭의 그림처럼 뚜렷하게 안겨왔다.

갈매기들도 우리를 반기는듯 배우를 감돌며 날아갔다 돌아오군하였다.

조국의 기슭을 떠나 달려오는 꽃배들, 부두를 메운 환영군중의 꽃물결…

땅과 바다는 온통 환영의 꽃바다를 이루고있었다.

하지만 하염없이 흘러내리는 눈물이 앞을 가리워 우리들은 그 모든것을 똑똑히 가려볼수 없었다.

배가 부두에 닿자 우리들은 그 꽃바다속에 뛰여들

어 조국동포들을 얼싸안았다.

우리가 조국동포들과의 첫상봉의 흥분에 잠겨있을 때 마중나온 조국의 한 간부가 위대한 수령님께서 우리 예술단에 돌려주신 크나큰 사랑과 배려에 대하여 전해주었다.

어버이수령님께서는 우리 예술단이 한시바삐 평양에 오고싶어하겠는데 원산에 도착하면 곧 올려보내라고 하시면서 특별렬차까지 보내주시였다는것이였다.

우리는 너무도 감격하여 또다시 일제히 환성을 올리며 서로서로 그러안고 돌아갔다.

경애하는 수령님께서 보내주신 특별렬차에 몸을 실은 우리들은 혁명의 수도 평양에로 달렸다.

렬차가 멎는 역구내마다에서 환영군중들은 우리를 붙안고 눈물에 젖은 볼을 비비기도 하고 두손을 모아잡고 흔들면서 놓을줄을 몰랐다.

재일조선예술인들에게 돌려주시는 어버이수령님의 뜨거운 사랑은 이렇게 니이가다로부터 원산에 이르는 배길을 거쳐 사회주의조국의 수도 평양에 하나로 이어져 거창한 사랑의 대하로 굽이치고있었다.

그 사랑, 그 은정을 가슴가득 안고 위대한 수령님께서 계시는 평양에 오고보니 이제는 어버이수령님을 모시고 60만의 축원의 노래를 한시바삐 올리고싶은 충동을 더욱 억제할수 없었다.

조국으로 떠나오던 그때로부터, 아니 어버이수령님의 보살피심속에서 주체조선의 해외예술인으로 자

라나던 그 시절부터 마음속에 품어온 우리 예술인들의 이 절절한 소원은 마침내 실현되게 되였다.

잊을수 없는 1974년 4월 14일, 바로 이날에 우리 조국방문재일조선인예술단은 자나깨나 뵙고싶던 위대한 수령 **김일성**원수님을 모시고 첫 공연의 막을 올렸다.

이날 우리는 조국의 예술인들도 아직 올라보지 못한 사상문화교양의 대전당, 인민문화궁전의 첫 무대를 차지하게 되였다.

어버이수령님께서는 준공된지 이틀밖에 되지 않은 인민문화궁전의 첫 무대를 우리 재일조선예술인들에게 선참으로 내주시였던것이다.

우리들은 경애하는 수령님의 거듭되는 사랑과 배려에 보답하려는 불타는 마음으로 무대를 익히고 공연준비를 끝낸 다음 어버이수령님께서 도착하시기만을 가슴조이며 기다리고있었다.

어느덧 벽시계는 오후3시를 가리키고있었다.

승용차가 궁전앞뜰에 와 멎자 차문이 여닫기는 소리와 함께 우렁우렁한 음성이 들려왔다.

이윽고 나드는문이 열리는 순간 어버이수령님께서 만면에 환한 미소를 지으시고 조국의 간부들과 함께 들어서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원수님 만세!》

《만세!》

수륙만리 머나먼 이국땅에서 초상화로만 우러르며

끝없이 흠모하여마지않던 위대한 수령님을 몸가까이 뵙는 순간 우리들은 어버이수령님께 정중히 인사를 올리자던 약속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오래동안 헤여졌던 어머니의 품에 안기는 어린애처럼 수령님의 자애로운 품으로 달려갔다.

우리들을 향하여 은정깊은 미소를 보내시며 손을 들어 답례하시던 어버이수령님께서는 달려오는 모든 예술인들을 한품에 안으실듯 두팔을 벌리시고 몇걸음 더 걸으시다가 문득 멈추어서시였다.

《수령님!…》

《원수님!…》

꽃다발을 부여안은 무용가도 분장을 한채로 어린애처럼 흐느끼는 가수들도 어버이수령님의 품에 와락 안기였다.

뒤미처 달려온 예술인들은 어버이수령님의 두팔에 매달려 발을 동동 굴렀다.

어버이수령님을 겹겹이 에워싼 예술인들은 두볼을 타고 흘러내리는 감격의 눈물을 걷잡지 못하였다.

조금이라도 경애하는 수령님 곁으로 더 가까이 다가서려고 하는 예술인들의 어깨와 그우에 뻗은 손들이 어버이수령님의 품으로 달려오는 60만 재일동포들의 뜨거운 마음인양 끝없이 물결치는데 경애하는 수령님께서는 좌우를 굽어보시며 육친의 정이 고여흐르는 뜨거운 음성으로 말씀하시였다.

《동무들! 반갑소! 벌써 만나고싶었는데… 반

갑소.》

어버이수령님의 음성은 차차 갈리시며 속삭이듯 낮아지셨다.

《…먼길을 오느라고 힘들었지?!… 그래서 이렇게 만나면… 더 반갑소… 반가와! …》

어버이수령님의 말씀에 우리들은 더욱 어깨를 들먹이며 흐느끼였다.

어버이수령님께서는 손길이 미치시는대로 예술인들의 물결치는 어깨를 쓰다듬어주시면서 달래시듯 말씀하시였다.

《…자, 이젠 그만! … 이렇게 자꾸 울면 분장이 다 지워져서 어떻게 공연을 하려고… 자, 이젠 그치시오.》

어버이수령님께서는 우리 예술인들을 진정시키신 다음 우리들을 이끄시고 궁전안으로 들어가시였다.

잠시후 위대한 수령 **김일성**원수님께서는 조국의 간부들과 함께 관람석에 나오시였다.

계속되는 우뢰와 같은 환호와 박수 속에 먼저 자리를 정하신 어버이수령님께서는 재일조선인예술단 단장을 부르시여 자신의 바로 옆자리에 앉히시였다.

관람석의 불이 서서히 꺼지자 드디여 위대한 수령님 탄생 예순두돐을 축하하는 우리들의 예술공연이 시작되였다.

조명등불빛에 빛나는 흰옷차림으로 무대에 나선 소개자가 경애하는 수령님께 큰절을 올린후

어버이수령님에 대한 절절한 흠모의 정이 넘쳐흐르는 목소리를 가다듬어 《개막헌시》를 읊었다.

위대한 수령님께 삼가 드리는 60만의 송가로 엮어진 《개막헌시》를 통하여 고조된 어버이수령님에 대한 다함없는 흠모의 정을 그대로 받아이으며 영생불멸의 혁명송가 《김일성장군의 노래》의 장중한 선률이 울려퍼졌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계시는 평양의 하늘을 우러러 이국땅에서 심장으로 부르고 또 부르던 노래이건만 어버이수령님을 모시고 노래부르는 우리 예술인들의 눈에서는 후더운것이 흘러내리고있었다.

공연직전에 배우들에게 울면 안된다고 몇번이고 당부하고 반주석에서 지휘봉을 잡고있던 나도 그들과 함께 눈물을 흘리며 노래를 부르고있었다.

항일혈전의 간고한 나날 한편의 시가 천만사람의 가슴을 격동시키며 총칼이 미치지 못하는곳에서는 우리의 혁명적인 노래가 적의 심장을 꿰뚫을수 있다고 가르치시면서 몸소 불후의 고전적명작들인 《꽃파는 처녀》와 《피바다》를 비롯한 혁명적예술작품들을 창작하시여 이국땅에서 신음하는 동포들에게 민족재생의 희망과 혁명의 불씨를 안겨주시던 그 뜨거운 사랑으로 재일동포들에게 삶의 보람과 기쁨을 주시고 빼앗긴 조선의 노래와 춤을 다시 찾아주신 위대한 수령님.

눈보라치는 만주광야, 구름처럼 밀려드는 대적의 포위속에서 촉한을 만나시여 중태에 빠지셨던 말파리

우에서조차 《반일전가》를 지으시여 대원들의 가슴에 필승의 신념과 용맹을 부어주시던 그 강철의 의지로 재일조선인운동에 도전하는 반동들에게 철추를 내리시며 해외예술인들에게도 주체예술의 위력한 무기와 참다운 존엄을 안겨주신 위대한 수령님.

참으로 어버이수령님의 가르치심과 따사로운 손길이 있음으로 하여 오늘 재일조선공민들은 민족문화예술의 떳떳한 향유자로 되였으며 우리 재일조선예술인들도 천리마조선, 주체조선의 혁명적예술인으로 자기의 리상과 재능을 마음껏 꽃피워나갈수 있게 되였다.

천만년 세월이 가도 잊을수 없는 이 크나큰 은덕에 목이 메여 위대한 태양의 노래, 《김일성장군의 노래》를 심장으로 높이 불렀던것이다.

합창 《김일성장군의 노래》에 이어 재일동포들의 간절한 념원을 담은 춤 《수령님의 만수무강을 60만은 축원합니다》, 노래이야기 《해빛받은 상공인3형제》를 비롯하여 다채로운 종목으로 된 예술공연은 시종 감격과 흥분 속에서 진행되였다.

어버이수령님께서는 종목이 바뀔 때마다 제일먼저 박수를 쳐주시고 옆에 앉은 재일조선인예술단 단장에게 분에 넘치는 치하의 말씀을 거듭 주시였다.

이윽고 공훈배우인 녀성독창가수가 어버이수령님께 드리는 다함없는 충성의 한마음을 민요 《끝없는 이 행복 노래부르네》에 담아 노래하였다.

자애로운 어버이이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원수님을 모신 60만의 끝없는 행복을 심장으로 부르는 가수의 노래는 들을수록 더욱 깊은 감명을 자아내였다.

먼바다로 굽이치는 물결우에 피여오르는 흰구름처럼 환희와 행복을 싣고 흐르던 가수의 노래가 깊은 산골짜기의 산울림같이 아득히 여운을 남기며 끝났을 때 어버이수령님께서는 제일먼저 박수를 보내시며 재청을 요구하시였다.

《잘하오! 아주 훌륭하게 부릅니다!》

어버이수령님께서는 외국손님들과 재일조선인예술단 단장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며 계속 박수를 쳐주시였다.

우리 예술인들에게 보내는 조국인민들의 뜨거운 고무와 격려의 정이 흘러넘치는듯 만장의 박수갈채도 그칠줄을 몰랐다.

경애하는 수령님께서 재청을 하시자 가수는 감격에 겨워 두손을 모아잡고 다시 새로운 노래를 불렀다.

그가 부르는 노래 《조국의 사랑은 따사로와라》는 머나먼 일본땅에 교육원조비와 장학금을 보내주신 어버이수령님에 대한 재일동포들의 뜨거운 감사의 정과 은혜로운 조국의 품에 대한 그리움이 지난날 나라없던 설음과 오늘의 끝없는 행복에 하나로 조화되여 깊은 감회를 자아내면서 거침없이 흐르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얼마 못가서 그의 노래는 불현듯 관현악반주와 어긋나며 혼란되다가 뚝 멎어버렸다.

가수의 노래가 문득 끊어지는것과 때를 같이하여 그만 나의 심장도 금시 멎는것만 같아 나는 한순간 지휘봉을 든채 어쩔바를 모르고 서있었다.

나는 이런 돌발적인 사태가 어떻게 빚어진것인지 미처 판단할 겨를도 없이 가수에게 노래를 이어부르도록 재촉하였다.

그는 한발자국 내디디며 다시 노래를 이으려고 하였으나 북받쳐오르는 울음을 참지 못하고 그만 어깨를 들먹이기 시작하였다.

그의 흐느낌소리는 확성기를 통하여 노래 대신 온 장내에 울려퍼졌다.

관중들도 뜨거운 눈물로 두볼을 적시면서 같이 흐느끼였다.

흠모의 눈물을 애써 삼키는 가수의 흐느낌이 전류처럼 일시에 심장에서 심장으로 퍼져간것이다.

나도 쏟아지는 두줄기 눈물을 씻을념도 않고 지휘봉을 움직여나갔다.

그러나 지휘봉은 나의 손에서가 아니라 장내에 굽이치는 흠모의 바다, 격정의 파도에 실려 저절로 움직여나가는듯싶었다.

관현악반주는 은은히 계속되였다.

관현악선률도 여울치는 물결처럼 목메여 흐느끼는듯했다.

정녕 세상에 음악이 생겨난이래 수천수만년을 헤아리는 기나긴 력사를 통하여 일찌기 있어본적이 없는

예술적 감동과 효과의 절정이였다.

바로 이것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원수님을 한자리에 모시고 어버이수령님의 품속에서 참된 예술과 인간의 존엄을 되찾은 자기들의 기쁨과 행복을 마음껏 노래부르는 우리 예술인들의 무대에서만 이루어질수 있는 충성의 노래, 흠모의 노래의 절정이였다.

나는 가수와 관중이 일심동체가 되여 흐느낀 사실을 알지 못하고있으며 가수의 노래아닌 흐느낌을 부축해준 그러한 반주가 있었다는 이야기를 아직 들어본적이 없다. 그리고 가수의 흐느낌이 노래도 미칠수 없는 눈물어린 감동의 세계를 그렇듯 절절하게 펼쳐보인 그러한 격동적인 사실에 대해서도 알지 못하고있다.

경애하는 수령님께서는 아직도 흐느껴우는 가수를 바라보시며 손수건을 눈가로 가져가시였다.

나는 누를길 없는 마음의 격정을 지휘봉에 옮겨 반주를 이어나갔다.

격동하는 갖가지의 음들은 하나의 흐름에 융합되여 위대한 수령님의 어버이사랑에 대하여, 은혜로운 조국과 60만의 끝없는 행복에 대하여 노래하고있었다.

관현악반주가 여운을 끌며 사라졌을 때 독창가수는 눈에 가득한 이슬을 숨기려고 눈길을 떨군채 어버이수령님께 인사를 올리였다.

경애하는 수령님께서는 오래오래 박수를 쳐주시였다. 그러시고는 장내가 조용해지자 안경을 벗으시여

닦으시였다.

공연이 끝나자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친히 무대에 오르시여 출연자들의 손을 한사람한사람 따뜻이 잡아주사고 공연성과를 축하하여 기념사진까지 함께 찍어주시였다.

이날저녁 어버이수령님께서는 우리 재일조선인예술단과 재일조선상공인축하단을 위해 성대한 만찬회를 마련하여주시였다.

이 영광에 넘치는 자리에서 위대한 수령 **김일성**원수님께서는 다정한 눈길로 우리들을 둘러보시며 분에 넘치는 치하와 격려의 말씀을 하여주시였다.

《나는 오늘 재일조선인예술단의 성대한 공연을 보고 매우 감동되여 눈물까지 흘렸습니다.

동무들은 오늘 공연에서 자기 조국에 대한 무한한 충실성, 자기 수령에 대한 충실성, 자기 인민에 대한 충실성, 로동계급에 대한 충실성을 남김없이 보여주었습니다.

동무들의 이러한 충실성은 모든 사람들 지어는 외국의 많은 인사들도 눈물을 흘리게 하였습니다.

동무들은 오늘 공연을 통하여 훌륭한 예술을 보여주었습니다.

동무들의 공연은 조국에 대한 충실성으로 충만되여있을뿐아니라 예술적기교의 측면에서도 완전무결한 사회주의적이고 애국주의적이며 인민적이고 로동계급적인 예술입니다.》

어버이수령님께서는 마디마디에 크나큰 믿음과 사랑을 담으시여 말씀을 이으시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와 공화국정부와 나자신은 해외에서 자기 조국을 믿음직하게 보위하고 사회주의적이며 애국주의적인 예술을 발전시키는 사업에 충실히 복무하고있는 훌륭한 예술단을 가지고있는데 대하여 매우 자랑스럽게, 매우 만족스럽게 생각하며 여러분들의 성과에 대하여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위대한 수령님의 높은 치하의 말씀에 우리들은 어버이수령님의 문예전사된 한없는 긍지와 자부심으로 하여 가슴이 설레임을 금할수 없었다.

어버이수령님의 말씀을 가슴에 되새기며 아직도 귀전에 울리는 뜨거운 흠모의 노래, 충성의 노래를 더듬어가는 나의 머리에는 어느덧 서글펐던 지난날이 가슴저리게 떠올랐다.

경애하는 수령님께서 재일조선인중앙예술단을 무어주시기전까지만 하여도 재일조선예술인들의 처지는 비참하기 그지없었다.

예술을 황금의 노예로 만들고 조선사람을 다른 민족이라 하여 멸시하고 박해하는 자본주의이국땅에서 우리 예술인들은 자기의 재능을 꽃피우지 못한채 서리맞은 꽃잎처럼 한생을 마쳐야 하였다.

해종일 약광고를 소개하는 악사나 류랑하는 곡마단의 광대처럼 하루하루를 연명하기 위하여 노래를 팔고 웃음을 팔아야 하였던 우리 예술인들에게는 찬이슬

내리는 네거리와 뒤골목이 무대로 차례졌다.

어찌다가 공연무대를 마련하려고 하여도 엄청난 사용료를 물기 위해 여러날 품팔이를 하여야 했고 단칸 세방도 없어 쪽잠이 그립던 우리 예술인들이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원수님께서는 우리 재일조선예술인들의 이러한 눈물겨운 처지를 깊이 헤아리시고 력사상 처음으로 해외교포운동에서 민족문화예술이 차지하는 지위와 그 역할을 밝히신데 기초하시여 재일조선인중앙예술단을 무어주시였으며 거칠은 이국땅우에 참신한 주체예술의 아름다운 화원을 마련하여주시였다.

그리하여 재일조선인운동은 민족문화예술의 믿음직한 부대를 가지게 되였으며 우리 총련의 예술은 동포대중속에서 **김일성**주의사상체계를 세우며 그들을 혁명화하는데 적극 이바지할수 있게 되였다.

구슬픈 《아리랑》의 노래를 혁명의 노래로 바꾸어주시고 가슴에 서리고 맺힌 네거리의 설음을 화려한 예술무대와 참된 예술인의 존엄으로 바꾸어주시였으며 오늘 또다시 인민문화궁전의 첫 무대를 선참으로 안겨주시는 어버이수령님의 은덕에 나는 뜨거운것을 삼키고 또 삼키였다.

이날 어버이수령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존함이 모셔진 귀중한 선물을 안겨주시는 크나큰 사랑을 베풀어주시였다.

우리들은 하염없이 흘러내리는 눈물을 삼키며 제국주의의 그 어떤 사상문화적독소에도 오염되지 않는

주체예술의 영원한 초병으로 어버이수령님께 끝까지 충성다할것을 굳게 마음다지였다.

1974년 4월 15일!

우리는 혁명의 수도 평양에서 밝아오는 이 경사스러운 아침을 맞이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원수님을 몸가까이 뵈온 그 시각부터 더욱더 못견디게 감격과 흥분으로 가슴부풀고 있던 이날저녁 어버이수령님께서는 조국방문 재일조선인예술단의 한 성원인 녀성일군을 몸소 저택에 부르시였다.

그 일군이 후에 들려준 어버이수령님의 은정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들을 또다시 크나큰 감동에 휩싸이게 하였다.

어버이수령님께서는 일본에서 총련사업을 하고 있는 그의 부모들의 안부며 생활형편을 여러가지로 알아보신 다음 우리 예술인들의 축하공연에 대하여 다시금 과분한 치하의 말씀을 주시였다.

《동무들이 공연을 잘하였습니다. 아주 훌륭합니다… 동무들의 공연은 숱한 사람들을 감탄시켰습니다.》

어버이수령님께서는 못내 만족해하시며 치하의 말씀을 이으시였다.

《동무들이 부른 노래는 인민적이고 통속적이여서 부르기 쉽고 사람들의 심금을 울립니다. 음악이 통속적이여서 좋습니다. 음악은 통속적이고 부르기 헐해

야 하며 대중을 위한것이여야 합니다. 가사도 아주 순하고 좋습니다.

총련이 우리 당의 문예방침을 잘 받아물었습니다.

지금 우리 당에서도 총련의 예술이 그 방향으로 나갈것을 바라고있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우리 나라의 노래는 유순하고 부드러우며 굴곡이 심하지 않고 은근하다.

그리고 아름답고 귀맛이 좋으며 부르기 쉽게 되여있다.

여기에 우리 음악의 민족적선률의 중요한 특징이 있는것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바로 총련의 예술이 동포대중의 심장을 울리며 진정으로 그들의 사랑을 받기 위하여서는 반드시 고상한 혁명적내용에 이렇듯 조선사람의 감정과 구미에 맞는 슬기롭고 다양한 민족적형식을 옳게 결합시켜야 한다는것을 명철하게 가르쳐주신것이였다.

어버이수령님께서는 감회깊은 안색으로 우리 예술단의 축하공연종목들을 하나하나 더듬어나가시다가 약간 갈리신듯한 음성으로 말씀하시였다.

《나는 어제 독창 〈조국의 사랑은 따사로와라〉를 들으며 깊이 감동되였습니다.》

가슴을 파고드는 어버이수령님의 절절한 말씀에 그 녀성일군의 눈에는 눈물이 핑 돌았다.

어느덧 시간이 흘러 그 녀성일군은 자리에서 일어섰다.

《돌아가면 예술단동무들에게 나의 인사를 전하십시오.》

어버이수령님께서는 문밖까지 나오시여 그를 바래주시면서 다정하게 말씀하시였다.

그러시고는 밤이슬에 축축히 젖은 가로등밑에서 멀어져가는 승용차를 오래오래 지켜보시였다.

어버이수령님을 만나뵈온 녀성일군의 이야기를 들으며 그날밤 우리들은 잠을 이루지 못하였다.

가슴에 새길수록 어버이수령님의 품에 안긴 우리 예술인들의 행복을 두고 실로 많은것을 생각케 하는 감명깊은 이야기였다.

우리 예술인들은 그후 평양을 떠나 지방공연의 길에 올랐다.

어버이수령님의 사랑은 그이의 곁을 멀리 떠나갈수록 더욱 뜨겁게 미쳐왔다.

어버이수령님께서는 우리들이 일정을 너무 바삐잡지 말고 하루 공연한 다음에는 하루 쉬면서 번영하는 사회주의조국의 들끓는 현실도 보고 학습도 할수 있도록 배려해주시였고 숙소와 침식조건에 이르기까지 친부모의 심정으로 극진히 보살펴주시였다.

그리고 우리들이 개성예술극장에서 공연을 하고있던 5월 초하루에는 총련예술단동무들이 조국에 와서 처음으로 맞는 5.1절명절을 지방에 나가서 어떻게 보

내는지 격정이 된다고 하시면서 자신의 저택온실에서 손수 가꾸신 참외를 따시여 그날저녁으로 우리들의 식탁에 놓아주라고 수백리 먼길을 자동차편으로 보내주시였다.

우리들이 지방공연을 마치고 돌아온 뒤에도 어버이수령님께서는 공해가 심한 일본땅에서 산좋고 물맑은 조국을 그리워하던 우리들을 생각하시여 개나리와 진달래꽃이 만발한 조국의 봄과 복숭아, 살구꽃 향기속에 더욱 아름다운 모란봉의 풍치를 마음껏 즐기라고 잊을수 없는 꽃놀이까지 마련하여주시였다.

우리들을 먼길에 떠나보내시고나면 깊은 심려로 주무시지 못하시고 색다른 음식이 생겨도 잊지 못하시여 선참으로 보내주시며 한송이 꽃을 보시여도 이국땅에 더욱 아름답게 피여날 주체예술의 꽃송이들을 먼저 생각하시는 어버이수령님.

정녕 자식들을 애지중지 아끼고 사랑하는 친부모의 심정인들 어찌 이보다 더 뜨겁고 살뜰할수 있으랴.

어버이수령님의 품속에서 끝없이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있던 우리들은 또다시 가슴벅찬 감격에 휩싸이게 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원수님께서 우리들이 조국에 머물러있는동안 혁명가극 《금강산의 노래》를 배우도록 배려하여주신 크나큰 믿음과 은정깊은 사랑의 말씀을 전달받았던것이다.

우리들은 걷잡을수 없는 감격에 휩싸였다.

혁명가극 《금강산의 노래》는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시기의 가극예술의 불멸의 기치이며 현대 혁명가극발전의 시원을 열어놓은 가극예술의 최고봉인 《피바다》식 혁명가극들중의 하나가 아닌가.

그런것만큼 우리들은 혁명가극 《금강산의 노래》와 같은 혁명적대작을 직접 배워가지고 가게 되리라고는 정말 꿈에도 생각지 못했다.

더우기 우리 예술단의 구성과 수준을 놓고볼 때 형상창조에서의 높은 예술적 수준과 기량을 요구하는 이런 기념비적대작을 창조할수 있다고는 더욱 생각할수 없는 일이였다.

그러나 어버이수령님의 구상은 원대하시였다.

우리는 그것을 후에 조국의 한 간부로부터 전해들은 이야기를 통해서 똑똑히 알수 있었다.

이해 3월중순께였다고 한다.

현지지도의 길에서 돌아오신 경애하는 수령님께서는 결론을 기다리는 수많은 일들을 뒤로 미루시고 제일먼저 재일조선인예술단의 조국방문에 대해서 관심을 돌리시며 한 일군을 부르시여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예술단동무들이 와서 조국의 벅찬 현실도 보고 학습도 하면서 예술적기량을 높이고 가면 나쁘지 않습니다. 그리고 기념으로 될만한 선물도 주어야 합니다.》

어버이수령님께서는 더욱 심중한 안색으로 말씀을 이으시였다.

《그런데 우리가 그들에게 무엇인가 더 해줄것이 없겠는지 생각해보아야 합니다.》

어버이수령님의 말씀에 그 일군은 환영연회며 군중집회를 비롯한 여러가지 행사들이 더 이채를 띠게 할데 대해서도 생각해보고 참관대상지를 늘일데 대해서도 생각해본 다음 그 자리에서 말씀드리였다.

어버이수령님께서는 그의 대답을 주의깊이 들으시고나서 미소를 지으시며 다시 이렇게 말씀하시였다.

《다시한번 심중히 생각해봅시다. 그리고 예술단동무들의 일정계획을 내가 좀 더 연구해보겠습니다.》

그 일군은 위대한 수령님께 심려를 끼쳐드린 죄송스러움으로 하여 어버이수령님 앞에 잠간 망설이고 서있다가 정중히 인사를 올린 다음 출입문쪽으로 돌아서 나오려고 하였다.

그런데 어버이수령님께서는 문가로 다가가는 그 일군을 멈춰세우시고 잠시 생각을 더듬으시다가 대극장에서 공연하는 혁명가극 《금강산의 노래》를 저녁에 함께 보자고 말씀하시였다.

그때까지만 하여도 그 일군은 현지지도의 길에서 금방 돌아오신 어버이수령님이시니 아마 피로를 푸시려고 그러시는가보다고 생각하고있었다.

그날저녁 어버이수령님께서는 혁명가극을 보시면서 이 가극을 재일동포들에게 보여주었으면 얼마나 좋겠는가고 말씀하시였다.

어버이수령님의 깊으신 심중을 알길 없었던 그 일

군은 그저 모든 재일동포들을 조국에 데려다 보여주지 못한것이 안타깝다고만 말씀올렸다.

며칠후 어버이수령님께서는 다시 그 일군을 부르시였다.

《내가 동무들이 힘들어하는것 같아서 총련예술단의 일정계획을 생각해보았습니다.》

어버이수령님께서는 몸소 작성하신 일정계획을 펼치시면서 말씀하시였다.

《재일조선인예술단을 환영하는 모임과 연회는 부주석동지들과 정치위원동무들이 참가하여 잘해주어야 합니다. 환영군중집회는 체육관에서 크게 하면 좋습니다. 일정은 너무 긴장하게 하지 말고 조국에 와서 배우기도 하고 공연도 하는 방향에서 생각해보아야 합니다.》

어버이수령님의 음성은 한결 더 부드러워지시였다.

《선물은 예술단동무들에게도 주고 부모들에게 드리라고 우리 천으로 옷감을 한벌씩 더 주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는 안되겠습니다. 이번에 조국에서 총련예술단동무들과 재일동포들에게 큰 선물을 안겨줄수 있습니다.》

어버이수령님께서는 잠간 동안을 두시였다가 말씀을 계속하시였다.

《아무리 생각해보아도 조국에서 그들에게 줄수 있는 가장 훌륭한 선물은 혁명가극 〈금강산의 노래〉입니

다. 이국땅에서 조국을 그리워하는 동포들에게 <금강산의 노래>를 안겨줍시다!

다시말하여 예술단동무들이 조국에 와서 머무르는동안 가극을 하나 배워가지고 가게 하자는것입니다.》

그 일군은 감격에 목이 메여 아무 말씀도 올리지 못하고 흐려지는 눈길을 들어 어버이수령님의 자애로운 모습을 우러르기만 하였다.

《총련예술단동무들도 틀림없이 가극을 한번 해보고싶어할것입니다.

가극이라고 하여 신비하게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마음먹고 해보느라면 담도 커지고 기량도 높아집니다.

조국에서 잘 도와주어야 합니다.》

경애하는 수령님께서는 자리에서 일어서시여 조국의 지도앞으로 천천히 걸어가시였다.

어버이수령님께서는 미제침략자들과 그 앞잡이들의 학정밑에서 신음하는 남조선인민들을 생각하시는지 잠시 남녘땅을 더듬으시다가 그 일군에게로 몸을 돌리시였다.

《총련에서 가극을 배워가지고 가서 일본에 다녀가는 남조선인민들에게도 보여주어야 합니다.

남조선에서 금강산은 지척에 있습니다. 그러나 남조선인민들은 안팎의 분렬주의자들의 범죄적책동으로 말미암아 금강산에 와보지 못합니다.》

근엄하시던 어버이수령님의 안색은 다시 온화한

표정으로 돌아오시였다.

《오스트랄리아기자 버체트는 〈금강산의 노래〉를 보다가 조국에 두고 온 딸을 생각하여 정신을 잃었다고 합니다.

〈금강산의 노래〉는 해외에서 조국을 그리워하는 동포들과 나라의 분렬로 하여 고통받고있는 남조선인민들에게 큰 감명을 줄수 있습니다.

나는 이 가극이 조국을 떠나 해외에서 고생하는 60만 재일동포들에게 좋은 선물로 되리라는것을 굳게 믿습니다.》

어버이수령님께서는 두팔을 결으시고 의자에 돌아와 앉으시여 나지막하면서도 확신에 찬 어조로 말씀하시였다.

《총련예술단동무들에게 가극을 배워주고 의상과 무대장치도 만들어보냅시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것은 〈금강산가극단〉을 무어주는것입니다.》

《금강산가극단!》

우리 예술인들과 재일동포들에게 차례진 이 크나큰 사랑의 선물은 위대한 수령님에 의하여 바로 이렇게 구상되고 마련되였던것이다.

경애하는 수령님께서는 풍치 아름다운 서해바다기슭 와우도에 새로 지은 국제려관을 우리들의 숙소로 정해주시고 조국의 예술인들이 잘 도와주어야 한다고 하시면서 혁명가극창조과정에 풍부한 경험을 쌓은 수

십명의 연출가, 지휘자, 안무가, 배우들을 보내주시였다.

우리들은 어버이수령님의 두터운 믿음과 기대에 보답할 불타는 충성의 마음을 안고 남포예술극장에서 가극을 배우는데 달라붙었다.

어버이수령님께서는 수시로 먼거리전화를 거시고 또 사람을 보내시여 앓는 동무들이 없는가, 애로되는 것은 무엇인가를 하나하나 알아보시고 크나큰 은정을 베풀어주시였다.

그리고 우리들을 친히 평양으로 부르시여 재일조선인예술단에 영예의 《김일성훈장》을 수여해주시고 예술단성원들에게는 여러가지 국가수훈과 인민예술가, 인민배우, 공훈예술가, 공훈배우의 영예를 안겨주시였다.

어버이수령님께서는 별로 한 일이 없는 나에게도 인민예술가칭호와 함께 국기훈장 제1급을 수여해주시는 더없는 영광을 베풀어주시였다.

조국의 예술인들도 위대한 수령님의 사랑과 배려가 더 잘 미치고 우리들이 수령님께서 맡겨주신 애국과업을 더 잘 수행할수 있도록 힘껏 도와나섰다.

그들은 일본에서 서양식발성법에 습관되여온 우리들이 주체적인 발성법을 완전히 체득하여 음질과 음색을 고치고 성량을 늘이게 하여주었으며 군중성이 있는 창법을 해결하고 화술에서 평양문화어에 정통하도록 해주었다.

또한 그들은 위대한 수령님의 가르치심대로 33개의 막과 의상, 소도구들을 만드는데 든 천만 하여도 6천메터가 넘는 그 방대한 무대장치며 의상이며 소도구들을 불과 보름동안에 마련하여주었다.

뿐만아니라 어버이수령님께서는 남포예술극장안에 종합병원을 차려주고 유능한 의사와 간호원들을 보내주도록 하시였으며 가수들이 노래연습을 많이 하면 목이 쉴수 있는데 목이 쉰데는 꿀과 잣기름이 제일 좋다고 그것을 해결하여주도록 하시였다.

이리하여 우리는 혁명가극 《금강산의 노래》를 불과 한달동안에 완성하여 무대에 올릴수 있게 되였다.

수개월에 걸친 우리 예술인들의 조국방문기간이 거의 끝나가던 그해 6월 26일이였다.

새날이 밝으면 우리는 일정에 따라 혁명의 성산 백두산을 답사하기 위해 떠나가게 되여있었다.

그런데 우리들에게는 한가지, 그처럼 품을 들여 완성한 가극을 어버이수령님께 보여드리지 못한것이 서운하기 그지없었다.

그때 어버이수령님께서는 매우 중요한 일로 현지지도의 길에 오르시여 아주 멀리 나가계셨던것이다.

우리들은 허전한 마음으로 무대장치를 포장해놓고 길떠날 차비들을 하였다.

이제 백두산만 다녀오면 우리는 조국을 떠나게 될것이였다.

정녕 조국에서 배워가지고 가는 혁명가극을

어버이수령님께 기어이 보여드리고싶은 우리들의 마음은 마치 학교에서 배운 노래를 아버지앞에서 불러보지 않고서는 못견디는 어린이의 심정 그대로였다.

그런데 이튿날아침, 우리는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원수님께서 저희들의 공연을 보아주시러 오신다는 뜻밖의 소식에 접하게 되였다.

어버이수령님께서는 저희들의 절절한 소망을 먼거리전화로 보고받으시고 그 동무들의 소원이라면 꼭 들어주어야 하겠다고 말씀하셨다는것이였다.

감격의 이 소식은 삽시에 전체 예술단성원들에게 알려졌다.

우리들은 기쁨에 넘쳐 환성을 올리며 공연장소인 평양대극장으로 달려갔다.

그런데 극장에 다달은 우리들은 또다시 놀라지 않을수 없었다.

전날 밤에 공연을 끝내고 해체하여 포장해둔 무대장치가 당장 공연을 할수 있게 준비되여있었던것이다.

활짝 열려진 분장실마다에는 정성껏 다려놓은 무대옷들이 주런이 걸려있었고 신발까지 다 갖추어져있었다.

알고보니 조국의 예술인들이 이번에도 우리들이 단잠을 자고있는 밤사이에 이렇듯 공연준비를 말끔히 끝내놓았던것이다.

이날 저녁 위대한 수령 **김일성**원수님께서는 머나먼 현지지도의 길에서 돌아오시자 곧바로 평양대극장

에 찾아오시였다.

우리들의 공연은 어버이수령님을 모신것으로 하여 더욱더 커다란 감동속에 진행되였다.

이윽고 공연이 끝나자 어버이수령님께서는 만면에 환한 웃음을 담으시고 무대에 오르시여 우리 예술인들의 어깨와 등을 쓸어주시며 공연을 아주 잘했다고 분에 넘치는 치하의 말씀을 주시였다.

우리 예술인들은 너무도 기쁘고 행복에 겨워 어린 애들처럼 어버이수령님의 두팔에 매달려 흐느끼다가 소리내여 울었다.

온 극장안은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끝없는 흠모와 감사의 정으로 끓어번지였다.

이날 어버이수령님께서는 우리 예술인들을 극장안의 한 방으로 부르시였다.

우리들은 분장도 미처 지우지 못한채 어버이수령님께로 달려갔다.

어버이수령님께서는 저희들을 자리에 앉히시고 공연성과에 거듭 만족을 표시하시면서 140여명의 전체 성원들에게 축배잔까지 일일이 쪼어주시였다.

정녕 어버이수령님을 모신 방안은 말그대로 하나의 가정적분위기로 차넘치였다.

어버이수령님께서는 이제 돌아가면 이 집단을 고착시켜 《금강산가극단》을 꾸리고 《금강산의 노래》를 공연하여 재일동포들과 일본인민들, 《민단》동포들과 남조선에서 오가는 사람들에게 우리 조국에서의 사회

주의건설성과를 보여주며 조국통일을 이룩하는데 이바지하기 바란다고 말씀하시였다.

그리고 앞으로 2년에 한번씩 조국에 와서 새 작품을 배워가도록 하라고 말씀하시였다.

밤이 깊어 어버이수령님께서 떠나셔야 할 시각이 되였다.

우리들은 어버이수령님을 모시고 밖으로 나왔다.

한 일군이 경애하는 수령님께서 오르실 승용차의 문을 조용히 열어드리였다.

어버이수령님께서 천천히 그 문옆에 이르시여 걸음을 멈추시자 우리들은 미리 약속이나 한듯 승용차를 겹겹이 에워쌌다.

이제 바래드리고나면 다시 조국땅을 밟을 때까지 어버이수령님을 뵈옵지 못하고 해를 넘기는 그리움속에 있어야 하는 우리들이기에 석별의 정은 더욱 가슴에 사무쳐왔다.

어버이수령님께서는 먼저 말씀을 떼시였다.

《그럼… 동무들… 곧 떠나게 된다는데 몸조심해서… 잘들 돌아가시오… 또 만납시다.》

어버이수령님의 말씀이 채 끝나기전부터 우리들속에서 흐느낌소리가 새여나왔다.

《수령님… 만수무강하십시오!…》

《… 부디… 부디… 만년장수하십시오!…》

우리는 말끝을 흐리며 인사의 말씀을 올리였다.

《고맙소… 고맙소… 동무들도 건강하시오. 건강

하시오.》

어버이수령님의 음성은 갈리시였다.

차마 떠나시기 아쉬운듯 한자리에 서계시던 어버이수령님께서 승용차에 오르시자 우리 예술인들은 그 차에 이마를 대고 또 손이 미치는대로 차체를 부여잡으며 더욱 크게 흐느껴울었다.

어버이수령님께서는 차창으로 상반신을 내미시고 팔을 드시여 예술인들의 손을 잡아흔드시면서 타이르시듯 말씀하시였다.

《자, 그만… 너무 이러지들 마시오… 또 만나겠는데!… 이젠 그만!…》

어버이수령님께서도 손수건으로 눈가를 훔치시면서 말씀하시였다.

《그럼 이렇게 하자구. 아까는 2년에 한번씩 오기로 했는데… 그럼 매해 오기로 하자구!… 해마다 와서 만나기로! 응?!… 그렇게 하자구!… 자, 이젠 그쳐!… 그치라는데…》

하늘의 뭇별도 눈시울을 슴벅이고 확성기에서 울리는 기악중주의 은은한 선률도 떨며 흐느끼는듯 석별의 정에 넘쳐 밤은 깊어만갔다.

우리들은 어버이수령님께서 타신 차가 멀리 보이지 않을 때까지 그 자리에 못박힌듯 서있었다.

그해 8월 29일, 우리들은 위대한 수령님의 가르치심을 높이 받들고 《금강산가극단》을 뭇는 모임을 성대히 가지였다.

《금강산가극단》이 무어진것은 이국땅에 금강의 메부리가 솟아오른것과 같은 해외교포예술에서의 하나의 기적이였으며 우리 재일동포들과 예술인들이 아름다운 금강의 품, 주체예술의 황홀한 품에 영원히 안긴 또 하나의 경사였다.

세계해외교포운동력사에서 그 류례를 찾아볼수 없는 민족가극단, 세계적인 대가극단으로서의 《금강산가극단》의 탄생, 이것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원수님께서 우리 재일 동포들과 예술인들에게 베풀어주시는 크나큰 정치적신임과 육친적배려의 또하나의 빛나는 열매였으며 세계해외교포예술의 새시대를 알리는 장엄한 서곡이였다.

드디여 우리는 영광스러운 조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 스물여섯돐을 경축하여 도꾜조선문화회관에서 혁명가극 《금강산의 노래》 첫막을 열었다.

관중들중에는 《민단》산하 동포들과 남조선인민들도 있고 일본인민들은 물론 외국의 벗들도 있었다.

혁명가극을 본 오까야마현의 한 《민단》계동포는 《이 위대한 조선의 예술을 두고 사상의 차이가 문제로 되겠습니까.

이북에서는 언제나 이렇게 독창적이고 세인을 놀래우는 위업을 척척 해내고 총련도 한 나라 못지않은 일을 하고있으니 이것은 우리의 자랑이기도 합니다.

저는 이북의 정치와 사회주의제도를 지지합니다.》라고 흥분된 어조로 말하였으며 남조선에서 온 한

동포는 가극을 보고 《참으로 좋았다. 난생처음 보는 가극에 매혹되여 그저 감탄, 탄복이라는 말밖에 다른 말이 나오지 않는다. 이 가극을 서울이나 부산에서 공연하면 얼마나 좋겠는가.

영명하시고 위대하신 **김일성**장군님을 모시고 5천만 겨레가 한강토에서 행복하게 살 그날은 반드시 오고야말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되였다.》라고 감격에 넘쳐 말하였다.

일본의 한 영화배우는 《나는 수많은 가극을 보았지만 이처럼 큰 충격을 받은것은 처음이다.

조선인민이 이렇게 훌륭한 예술을 창조할수 있었던것은 오로지 예술의 영재이신 위대한 **김일성**주석께서 계시기때문이다. 마지막에 아버지와 딸이 상봉하는 장면에서 나는 인간에 대한 지극한 사랑, 조국통일에 대한 조선인민의 불같은 념원을 가슴뜨겁게 느꼈으며 감격의 눈물을 억누를수가 없었다.

나는 앞으로 조선의 통일을 위해 할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자기의 격동된 심정을 토로했으며 세네갈근로자전국동맹의 한 대표는 경탄을 금치 못하여 《무대에 압축되여 형상된 조선의 력사는 곧 싸우는 세계인민들에게 승리와 용기를 줄것이다.

예술의 왕국 주체조선 만세! 주체의 혁명가극 만세!》라고 힘차게 웨쳤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예견하신대로 《금강산가극단》은 일본의 이르는곳마다에서 폭풍같은 반향을 불러일

으켰으며 총련애국운동의 로정우에 걸음마다 충성의 꽃을 피우며 자랑찬 길을 걸어왔다.

오늘 우리는 어버이수령님의 은혜로운 해빛아래 금강산봉이마다 활짝 핀 목란꽃과 같이 다함없는 감사의 정을 안고 조국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이국땅에서 영광스러운 주체예술의 혁명전위로 힘차게 살며 싸우고있다.

저희들은 자신의 체험을 통하여 위대한 수령님의 문예전사된 영광과 긍지보다 더 귀한것이 없으며 해외에 자기의 훌륭한 예술단, 가극단을 가지고 주체예술의 아름다운 화원을 가꾸어가고있는 우리 재일조선예술인보다 더 행복하고 자랑스러운 해외교포예술인은 세상에 없다는것을 굳게 확신하고있다.

우리는 이국의 눈서리에 버림받고 시들던 저희들을 주체예술의 화원에 빛나는 혁명의 꽃으로 붉게 피워주시고 일만이천봉이마다 기쁨과 행복이 가득 고인 아름다운 금강의 노래와 춤을 안겨주시였으며 모든 해외동포들과 남조선인민들에게 금강산과 같이 살기 좋은 인민의 락원을 안겨주시려는 깊은 심려와 뜨거운 사랑으로 《금강산가극단》을 무어주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원수님의 고마운 은덕에 반드시 충성으로 보답할것이다.

은혜로운 품속에서 (4)

낸 곳	문 예 출 판 사
인 쇄 소	평양종합인쇄공장 -- 2
인 쇄	1 9 8 0 년 4월 1일
발 행	1 9 8 0 년 4월 15일

ㄱ—80670 100,000부 값 1원 10전

1/-